성경 공과

제1권

가정 예배 (For Home Worship)

천지 창조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책

아니타 돌 지음/ 배제형 편역

도서 출판 벽옥

상응 해석으로 합리적 이해를 돕는

성경 공과

제1권

For Home Worship

아니타 에스. 돌 지음
배제형 편저

도서 출판 벽옥

ANITA STURGES DOLE

(Mrs. Louis A. Dole)

1889-1973

이 책에 대하여....

이 책은 성경의 깊은 뜻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신 스스로 이해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읍니다.

영문판인 Anita S. Dole여사의 Bible Study Notes는 기념 출판용인지라 성경의 순서에 따라 6권의 책으로 편집되고 있으나 한국어판은 저자의 취지 그대로 매주 1회 4년을 성경 공부의 한 주기가 되도록 4권으로 재편집하였는데, 다시 각 권에는 6반(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1권 가정 예배를 위해 부모에게, Notes for parents 만을 모아 가지고 편집한 책입니다.

이 책, 가정 예배 (Home Worship)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못하거나, 또는 가정 예배의 중요성을 감지한 부모들을 위한 설교 자료이므로 이 자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필요시 찬송 까지 곁들이면 가정에서도 주님을 향한 성심어린 예배를 훌륭히 꾸려가리라 확신합니다.

예배에서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성경을 읽을 때라 사료됩니다. 그 이유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찬송, 기도, 헌금, 축도 등등, 어느 예배 순서 보다 더욱 확실하게 하느님의 의지가 담긴 성경 낭독은 예배에서 가장 사랑받는 순서, 영감받는 순서로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예배에서 사용할 경우도 성서 본문은 해설 보다 무척 더 중요함으로 정성 기울이고, 옷깃여민 자세로 낭독하기를 재삼 당부합니다.

성서는 구절이나 문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기초인 글자의미 “예수의 겉옷”에 해당되는데 이 의미는 누구나 알 수 있고 지상의 모든 교파가 자기들에게 적합하도록 찢어 다시 꿰매는 것이 허용되고 있는 성서 지식입니다.(요한복음 19장 23-24절) 그러나 영적 의미는 “예수의 속옷”입니다. 이 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솔 없이 통으로 짠 것”으로 여느 학자나 교파가 찢고 꿰매지 못하게 섭리된 지식이고, 인간의 거듭남을 위한 지식을 알려 줍니다. 가장 깊은 의미인 천적 의미는 주님 자신에 관한 사항들, 특히 주님께서 신성화 하신 과정의 설명도 포함되여 있읍니다.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성서, 즉 욥기, 잠언...바울 서신 등등은 거의 자연적 의미의 범주내에 있어 여러분 스스로 이해가 가능하여 선견자의 도움이나 여느 누구에 의한 별도의 강론 내지 주석이 필요 없는바 각자 열심을 내어 읽어 정독하면 각자의 신앙 성숙을 위해 주님의 가르침이 별도로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책이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처음 성겨을 대하는 이들의 경우, 읽기가 더 수월한 것같이 여겨졌기 때문에서 입니다. 그러나 상응적인 해석과 이해를 위해서는 가능한 원어에 근접된 완벽한 직번역이 요구되므로 개역 성경 또는 영문 성경을 사용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의역이 심할 경우 상응에 의한 해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www.baysidechurch.org 사이트를 방문하면 성경의 합리적 이해를 위한 더 많은 자료를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차례

** 이 책에 대하여.....
1. 창조에 관하여 창세기 1장; 2장 1-3절 9
2. 에덴의 동산 창세기 2장 8-25절 15
3. 노아가 방주를 짓다 창세기 6장 20
4. 아브람을 부르심 창세기 11장 27-30절; 12장 1-10절 25
5. 이사악의 출생 창세기 21장 1-21절 30
6. 야곱과 에사오 창세기 25장 19-34절; 27장 35
7. 요셉과 그 형제들 창세기 37장 42
8. 모세의 출생 출애굽기 1장; 2장 1-10절 47
9. 홍해를 건너다 출애굽기 13장 17-22절; 14장 53
10. 십계명 출애굽기 19장 16-25절; 20장 1-21절 60
11.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66
12. 발람 민수기 22, 23, 24장 71
13. 예리고 성의 정복 여호수아 6장 81
14. 드보라와 바락 판관기 4장 87
15. 사무엘의 출생 사무엘상 1장; 2장 1-11절 93
16. 사울을 선택함 사무엘상 9, 10장 99
17. 다윗을 기름붓다 사무엘상 16장 106
18.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3장 112
19. 엘리야와 아합 열왕기상 17; 18장 118
20. 아사왕의 통치 열왕기상 15장 9-24절 127
21. 시편에 관해서 열왕기하 23장 1-2절; 시편 1편 132
22. 이사야를 부르심 이사야 6장 136
23. 활활 타는 화덕 다니엘 3장 142
24. 예언자 미가 미가 6장 148
25. 성전의 재건 하깨 1장 152

26. 주님이 세상에 오시다 마태복음 1:18-25; 2:13-23 157
27. 동방박사의 방문 마태복음 2장 1-15절 162
28. 세례를 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3장 167
29. 시험을 받으신 주님 마태복음 4장 1-11절 172
30. 주님의 첫 제자들 마태복음 4장 12-25절 177
31. 산 위에서의 설교 마태복음 5, 6, 7장 182
32. 주님의 공생애 마태복음 8장 191
33.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 196
34.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마태복음 17장 203
35. 종려주일 마태복음 21장 1-27절 208
36. 주님의 지상 마지막 주간 마태복음 26, 27장 213
37. 부활하신 주님 마태복음 28장 223
38. 요한의 환상 요한 계시록 1장 230
39.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요한 계시록 2, 3장 236
40.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 21, 22장 244

1
창조에 관하여

머리말

성경은 세상의 어느 책과도 다르다. 주님께서 그 저자이시며 그 속에 주님 자신에 관한 것과 우리가 천국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 이라고 부른다. 이 책의 첫 권은 「창세기」로써 "시작"이라는 뜻이다.

「교리 요점」은 공부의 편의를 위해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는바 유용할 것이다. 이는 단지 어느 부분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각 요점은 교회의 4가지 기본 원칙이 되는 4교리인 주님, 말씀, 믿음, 생활(charity) 중 어느 하나와 관련되어 있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1장, 2장 1-3절

1장: 1.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내셨다. 2.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 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3.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4.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6.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7.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8.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9.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하느님께서는 마른 땅을 뭍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

11.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거라! 땅 위에 낟알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2.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낟알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3. 이렇게 사흗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14.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 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15.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16.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느님께서는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 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 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19. 이렇게 나흗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0.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 위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 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1.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물 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 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2.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23. 이렇게 닷샛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4.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집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25.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26.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 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 내시고 28.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 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29.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낟알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30.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샛날도 밤, 낮 하루가 지났다.
2장: 1.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2. 하느님께서는 엿샛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교리 요점 (Doctrinal Points)

* 주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하늘과 땅을 창조 하셨다.
* 말씀은 우리의 창조주에 관한 것과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주님의 계시이다.
*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판단이 주님의 말씀과 다르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다.
*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을 가지고는 어떤 진정한 선도 행할 수 없다. 모든 선은 주님에게만 있고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

해설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것과 이루어야 할 일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 학교에 보낸다. 또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더 높은

영원한 세계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할 더 심오한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자녀들을 주일 학교에 보낸다.

영혼을 살찌우는 참된 진리들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학교는 늘 성경을 가르친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읽고, 또 그를 항상 기억하도록 돕는다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튼튼한 기초가 심어질 것이다. 주님은 단지 말씀만 남기신 것이 아니며 우리들의 기억 속에 심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실재하신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성경을 알고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 된다. 창조는 가장 중요하며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경의 첫 구절은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로 시작한다. 만약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의 삶에 있게 되는 진정한 목적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오늘날 매우 발달된 과학은 세상이 형성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까지 추정해 내며 그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까지 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창조와 그것의 근거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서에 대한 직역적 해석 때문에 생긴 잘못된 이해이다. 노인들이 「In my day, people didn't do that」 - 내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 - 라고 말할 때, 여기서의 때(day)는 과학적이고 명확한 시간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창세기 1장의 육 일간의 창조란 24시간으로 이루어진 6일이라는 시간이 아닌 인간의 영적 성장의 6단계의 상태들을 의미한다. 물론, 물질적인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도 창조 이야기와 대체로 비슷한 순서이기는 하지만,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인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 졌냐는 것이 아니다. 스웨덴볼에 따르면 하느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들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발견하고 개발될 수 있는 물질계의 이루어짐이 아닌,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며 그분으로부터 있게 되는 진리와 선에 의해서만 발전이 가능한 영혼의 내면과 그것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있다는 것이다.

창세기의 1장은 사람이 무의식 상태일 때, 따라서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단지 잠재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유아(태아)기로부터 진정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영적인 것은 하늘에 해당되고 자연적인 것은 땅,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처음으로 창조된 "빛"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빛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주님의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배움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며, 이로 인해 하느님의 형상에 이르게 되고 그분을 닮아 안식일로 상징되는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From the Writings of Swedenborg)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6과 20항)」:

16항. 태고 시대를 '시작'이라고 불렀다. 성서의 여러 곳에서 예언자들은 이것을 '오래된 날들' 또는 '영원의 날들'이라 불렀다. 또한 「시작」은 사람이 다시 거듭나는 첫 순간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가 거듭남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듭나는(regeneration)것을 사람의 "새로운 창조"라고도 부른다. 「창조」, 「형성」, 「만듬」이란 표현은 구체적인 상징성에서는 다르지만 예언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는 대체로 거듭남을 뜻한다. 또한 「하늘」은 내적인 사람을, 「땅」은 다시 태어나기 이전의 외적인 사람을 뜻한다.

20항.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거듭남의 그 첫 번째 단계는 사람이 선과 진리는 더 높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외적인 삶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진리인지 조차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애와 세상에 대한 사랑에 속한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애와 세상 사랑을 선호하는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선이라 믿는 것이 사실은 악이고 그러한 악을 선호하는 진리는 사실은 거짓들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새로이 태어나게 될 때 처음으로 스스로의 선은 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빛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선과 진리 자체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질문 정리

1) 우리는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가?
2)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3) 우리는 성경을 또 다르게 무엇이라고도 부르는가?
4) 성경의 처음 말씀은 무엇인가?
5)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6) 세상과 모든 것이 창조 되는데 며칠이 걸렸을까?
7) "날"은 24시간 단위의 하루를 의미하는가?
8) 첫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9)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0) 셋째 날에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11) 셋째 날에 무엇이 새로 창조 되었을까?
12) 넷째 날에 무엇이 나타났을까?
13) 다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 되었을까?
14) 몇째 날에 동물이 만들어졌을까?
15) 무엇이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을까?
16) 인류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을까?
17)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말하셨을까?
18) 주님은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
19) 주님이 첫 장에서 우리에게 진실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
20)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21) 해와 달과 별들은 무엇에 상응될까?

질문의 답

1) 성경 2) 하느님 3) 주님의 책, 말씀, 생명의 책 4) 한 처음에 5) 창조 6) 육일 7) 아니다 8) 빛 9) 창공 10) 바다와 마른 땅 11) 풀, 나무들

12) 해, 달, 별들 13) 물고기, 새들 14) 여섯째 날 15) 사람 16) 하느님 17)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18) 쉬셨다 19) 우리의 영적 성장의 시작 20)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21)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천국적인 것들에 관한 지식들

2
에덴의 동산

머리말

창세기의 1장부터 7장까지는 고대 언어의 표현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며 상징성이 강하다. 이 부분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기에 적합한데 그 이유는 어린이들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기 때문이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장

2장: 8. 야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시고 당신께서 빚어 만드신 사람을 그리로 데려다가 살게 하셨다. 9. 야훼 하느님께서는 보기 좋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그 땅에서 돋아나게 하셨다. 또 그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돋아나게 하셨다.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 나와 그 동산을 적신 다음 네 줄기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줄기의 이름은 비손이라 하는데, 은과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2. 그 땅은 좋은 금뿐 아니라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 같은 보석이 나는 곳이었다. 13. 둘째 강줄기의 이름은 기혼이라 하는데, 구스 온 땅을 돌아 흐르고

있었다. 14. 셋째 강줄기의 이름은 티그리스라 하는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넷째 강줄기의 이름은 유프라테스라고 하였다. 15.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시며 16. 이렇게 이르셨다.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 먹어라.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 먹지 말아라. 그것을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18. 야훼 하느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 주리라”하시고, 19.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하나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그가 무슨 이름을 붙이는가 보고 계셨다. 아담이 동물 하나하나에게 붙여 준 것이 그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아담은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21. 그래서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시고는 22.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다음, 아담에게 데려 오시자 23.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 24.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되었다. 25. 아담 내외는 알몸이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교리 요점

*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는 우리의 영혼 여러 평면에 적용된다.
*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과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 선을 찾지 말고 항상 주님에게서 그것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설

에덴의 동산은 아름다운 곳에 대한 비유로 태초의 사람들이 자신 안에 교회를 이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교회의 중심에는 선과 진리의 근원인 주님이 계셨고 이것이

생명나무로 묘사됐다. 이 동산에 물을 공급하는 강은 주님에게서 온 진리가 그들의 삶의 여러 평면으로 흘러감을 의미하며 이것이 삶의 이상적인 상태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가 왜 지속되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이 동산에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나무 -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이었다. 사람은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동물과는 태초부터 다른 존재였다. 사람은 점차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뜻을 따르거나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선택에 자유가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키며 그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상징된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주님의 진리 없이도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의 이야기 또한 비유이다. 앞서 밝혔듯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두 고대에 사용된 상징적 언어로 된 표현들에서 모세가 발췌한 것이며 그 말씀들은 이미 존재했던 것이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두 명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앞서 우리가 배웠듯이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창조된 것이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 또는 '인류'를 뜻하며 '이브'는 '생명'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브의 창조를 통해 주님의 자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던 인간이 주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보여준다. 이것은 또한 우리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으며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서야 우리가 천사의 모습으로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29항)」: "사람은 스스로가 생각해낸 원칙들의 지배를 받는다. 설사 그 원칙들이 그릇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지식과 추론은 그러한 원칙들을 선호한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유(consideration)들이 생겨나서 잘못된 원칙들을 지지하게 되어 마침내 그 사람은

거짓을 진리처럼 여기고 만다. 그러므로 볼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믿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상상력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으로부터, 즉 주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길이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후 추론과 기억적 지식에 관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깨우침이 있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결코 금지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삶에 도움이 되며 즐거운 일이다. 또한 신앙인들이 세상의 배운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능력이 닿는 한 영적이고 천적인 진리를 자연적인 진리, 즉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으로 확증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이어야 하며 스스로가 되어서는 안된다. 전자는 생명이며 후자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1)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
2)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은 무엇인가?
3) 창세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4) 첫 장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5) 주님은 며칠 동안 모든 것을 창조 하셨을까?
6) 무엇이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을까?
7) 사람은 누구와 닮게 창조되었을까?
8) 주님은 7일째 무엇을 하셨을까?
9) 주님은 첫 사람들을 어디에 살게 하셨을까?
10) 첫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졌을까?
11) 아담은 무엇을 의미할까?
12)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

13) 물은 동산에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14) 강은 몇 개의 물줄기로 나뉘었을까?
15) 무슨 나무로부터의 것을 먹지말라고 말해졌는가?
16) 아담은 무엇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17)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주님은 그로부터 무엇을 빼내셨을까?
18) 주님께서 그 갈비뼈로 무엇을 만드셨을까?
19) 에덴의 동산을 통해 보여주는 뜻은 무엇인가?
20) 강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21) 두 개의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하느님의 말씀 2) 창세기 3) 시작 4) 창조 5) 육 일 6) 사람 7) 하느님 9) 에덴의 동산 8) 휴식 10) 아담 11) 인류 12) 돌보고 가꾸는 일 13) 강 14) 네 개 15) 선악에 관한 지식 16) 동물들과 새들 17) 갈비뼈 18)여자 19) 주님에게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상태 20)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21) 「생명의 나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며 주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선한 것과 슬기로운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3
노아가 방주를 짓다

머리말

뱀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들은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아와 스스로의 욕망에만 집착함으로써 순진함, 천적인 상태 그리고 선행에 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즉 악의 근원에 대해 알려 주고 있다. 본장을 통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이 주님께 첫 번째로 불순종한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자.

성 서 본 문: 창세기 6장

6장: 1.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2. 하느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3. 그래서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사람은 백 이십 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4. 그 때 그리고 그 뒤에도 세상에는 느빌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옛날부터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5.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6.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7. 야훼께서는 "내가 지어 낸 사람이지만, 땅 위에서 쓸어버리리라. 공연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는 것과 공중에 새까지 모조리 없애 버리리라. 공연히 만들었구나"하고 탄식하셨다. 8. 그러나 노아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었다. 9. 노아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 당시에 노아만큼 올바르고 흠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다. 10.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11. 하느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12. 하느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13.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이제 막판에 이르렀다. 땅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저것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14. 너는 전나무로 배 한 척을 만들어라. 배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15. 그 배는 이렇게 만들도록 하여라. 길이는 삼백 자, 나비는 오십 자, 높이는 삼십 자로 하고, 16. 또 배에 지붕을 만들어 한 자 치켜 올려 덮고 옆에는 출입문을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만들어라. 17. 내가 이제 땅 위에 폭우를 쏟으리라. 홍수를 내어 하늘 아래 숨 쉬는 동물은 다 쓸어버리리라. 땅 위에 사는 것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18. 그러나 나는 너와 계약을 세운다.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19. 그리고 목숨이 있는 온갖 동물도 암컷과 수컷으로 한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 가 너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여라. 20. 온갖 새와 온갖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온갖 길짐승이 두 마리씩 너한테로 올 터이니 그것들을 살려 주어라. 21.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먹도록 저장해 두어라." 22. 노아는 모든 일을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교리 요점

* 노아의 방주 때부터 인간은 "천적" 본성 대신에 한 단계 낮은 "영적" 본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인간이 진리를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자연적인 애착들을 믿어 진리를 배우고 깨우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해설

최초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를 주님께 불순종하는데 사용 했다. 욕망과 자기 확신의 상징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들에게 생명나무 보다 더 매혹적이었다. 이것이 스웨덴볼이 설명하는 악의 근원 또는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선에 대해 주님 보다 더 잘 안다고 확신하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판단은 우리를 점점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한다. 주님에게서 지속적으로 멀어진 태고교회의 사람들은 그들의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에게서 생겨난 자아만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러한 상태는 주님이 보시기에 인간성을 잃은 짐승의 모습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그들을 파괴한 "홍수"가 상징하는 것인 악과 거짓이 인간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다. 홍수가 인류를 파괴함이 상징하는 것은 악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하여 버린 태고교회의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으신 천국에 갈수가 없었는데, 스웨덴볼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 영적인 세계에 지옥이라는 곳이 생겨났다고 한다.

태고교회의 말기에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한 소수의 사람들이 노아로 묘사되고 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방주는 인간이 하느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만들어지는 인격을 상징한다. 이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방주의 침수를 막기 위해 안과 밖에 칠한 역청(송진)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기심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진리와 선을 알지 못하더라도 나의 이득과 행복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악과 거짓에 완전히 빠지지 않아 선택의 기회를 갖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이다. 방주의 3층 구조는 우리의 지적인 면의 3단계 즉 아는 것(지식), 이해하는 것(습득), 깨우치는 것(이해)에 해당된다. 방주의 문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들을 뜻한다. 방주의 위에 있는 창문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찾는 우리의 의지를 뜻한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은 우리의 다양한 애착과 생각들을 상징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읽고 기억하기 쉬운 이야기의 형태로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경이로움과 성경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주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607,608항)」:
607항.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믿기도 힘든 것은 태고 교회의 사람들이 내적 호흡을 하였고 외적 호흡은 오직 잠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후의 세대들이나 오늘날의 우리처럼 많은 단어들로 말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관념(ideas)으로 소통했다. 그들은 모습과 얼굴의 무수한 변화들로 의사를 표현했는데 그중 입술의 변화무쌍함이 특별했다. 입술에는 지금은 퇴화되어버린 근육 조직이 아주 많은데, 그들은 이 근육 조직들을 사용해서 오늘날의 음절로는 한 시간 이상이 걸려야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일분 만에 표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의사소통은 언어를 사용해서 뜻을 전달해야만 하는 오늘날의 우리 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였다고 한다.
608항. 내적 호흡이 점차로 힘들어 지면서 외적 호흡(external respiration)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 외적 호흡이란 단어들의 조합인 언어로 뜻을 전하는 것인데, 생각 속의 사상이 결정되면 자음소리(articulate sound)를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내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어졌고 지금은 태고 교회의 내적 지각력 대신 고대 교회의 양심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639항)」: "역청을 바른 방주, 방주의 크기, 구조 그리고 홍수 등등이 글자 그대로만을 의미 한다면, 그 안에 영적 또는 천적인 의미들이 없을 것이며 그것들은 기껏해야 역사적인 가치 그것도 여느 학자들의 소견들과 같은 정도의 쓸모만이 인류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안에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방주에 관한 것들도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질문 정리

1) 주님은 첫 사람을 어디에 놓으셨을까?

2) 첫 사람들은 그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3) 에덴의 동산에 물은 어떻게 공급되었을까?
4)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었던 나무는 무엇일까?
5) 에덴의 동산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었을까?
6) 주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금하셨을까?
7) 주님은 아담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로부터 무엇을 취하셨을까?
8) 주님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드셨을까?
9) 첫 사람은 어떻게 주님께 불순종 했을까?
10) 주님께 불순종한 그들은 어떤 벌을 받았을까?
11) 그들은 회개했을까?
12)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을까?
13) 주님은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을까?
14) 주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15) 우리는 방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까?
16)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을까?
17)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18) 노아는 방주로 무엇을 들어오게 했을까?
19)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은 무엇을 의미할까?
20) 홍수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21) 방주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에덴의 동산 2) 지키고 잘 돌보았다 3) 강 4) 생명나무 5)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6) 지식의 나무로부터의 것을 먹는 것 (eat of tree of knowledge) 7) 갈비뼈 8) 여자 9)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 10) 동산으로부터 쫓겨남 11) 아니다 12) 인류를 멸하기로 13) 그들은 선했기 때문에 14) 방주 15) 전나무, 역청, 3층, 칸막이 방들, 창문, 문 16) 아내, 아들, 며느리 17) 셈, 함,

야벳 18) 창조물의 쌍들 19) 자아에게서 올바름을 찾음
20) 진리가 거짓이 되어 파괴적이 됨 21) 주님께 순종함으로 형성된 좋은 인격

4
아브람을 부르심

머리말

시간이 흐르자 노아의 후손들 또한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 결국 그들은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지상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도덕적 교훈은,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일원이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그 집단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균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서 본문: 창세기 11장 27-30절, 12장 1-10절

11장: 27. 데라의 후손은 다음과 같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28. 하란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29.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가와는 동기간이었다. 30. 사래는 잉태를 하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 31.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길을 떠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다 자리잡고 살았다. 32. 데라는 이백 오 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1.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 줄 땅으로 가거라. 2.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네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 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3.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 사람들이 네 덕을 입을 것이다." 4. 아브람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떠났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람의 나이는 칠십 오 세였다. 5.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 6.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거쳐 모레의 상수리나무가 있는 세겜 성소에 이르게 되었다. 그 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7.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아브람은 야훼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쳤다. 8. 아브람은 그 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악지대로 옮겨 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아브람은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께 바치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 9. 아브람은 다시 길을 떠나 네겝 쪽으로 옮겨 갔다. 10.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몸붙여 살려고 옮겨 간 일이 있었다.

교리 요점

* 창세기 1장부터 11장 까지는 고대 말씀에서 취해 온 것이며 이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쓰인 것이 아니다. 사실적인 역사시대는 제 12장부터 시작된다.

해설

아브람의 이야기에서부터 역사시대로 접어든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다. 주님은 이들을 선택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으며 또한 이들의 삶이 쓰인 성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신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로 이뤄진 두 번째 교회도 첫 번째 교회처럼 그들 스스로의 인간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사고를 근간으로 살아가면서 악으로 기울어져 갔다. 아브

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새로 시작되는 길고 긴 영적 성장의 과정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적 성장 과정들의 반복은 인류 역사와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된다. 한 나라가 심히 부패되어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를 수 없게 되면 주님은 그들 가운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 개인이 악해져서 삶의 옳은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은 그의 구원을 위해 그 사람 안에서 선을 향할 기초가 될 것을 새로이 발견 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악을 선택해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까지 주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 삶은 하나의 여행이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아브람의 여행으로 상징되는 영적 여행을 하도록 부름을 받게 된다. 가나안 땅 즉 거룩한 땅이라고도 하는 이곳은 천국 또는 천국적 인격을 상징한다. 주님이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주님께 순종하려는 사람들이라도 모두 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아브람의 형제인 「나홀」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의 북동쪽인 「하란」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번성하며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과는 교류하며 가깝게 지냈다.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아내와 손자인 야곱의 아내들은 모두 하란 출신이었다. 하느님을 믿으며 선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돌보시는 "양"들로 상징되어진다. 하지만 선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아브람이 그랬듯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그분에 대해서 더욱 많이 배우기를 원해야한다. 아브람이 흉년 때문에 이집트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섬기는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배우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461항)」: "아브람이 체류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내려갔다. (창세기12:10)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온 지식 속에 있는 교훈을 의미한다. 이집트와 체류란 단어로부터 그 의미의 근거를 알 수 있다. 이집트는 지식 중에서 기억적 지식을 뜻하고 체류란 가르침을 받는 상태에 속함을 쉽게 알게 된다. 겉 사람(external man)은 물질적이고 감각적이다. 하지만 겉 사람에게 지식이 배양되지 않으면 천국적인 것, 영적인 것,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지식(knowledges)은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같아서 천국적인 것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반드시 말씀에서 얻은 지식이어야 한다. 말씀으로부터 지식을 얻게 되면 주님 자신이 그 지식을 열고 가르치신다. 그 이유는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하여 내려 왔기 때문이오, 외적 형태(external form)로는 주님이 잘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말씀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1) 성경의 첫 11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인가?
2) 성경에 언급된 첫 실제 인물은 누구인가?
3) 지상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은 누구인가?
4) 아브람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5) 아브람의 형제는 누구인가?
6) 아브람의 아내는 누구인가?
7)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8) 주님은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9) 그들이 첫 번째 멈춘 곳은 어디인가?
10) 누가 하란으로부터 떠나 계속 여행을 했는가? 롯은 누구인가?

11) 주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12)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머문 곳은 어디인가?
13) 아브람이 두 번째 멈춘 곳은 어디인가?
14) 아브람은 멈춘 두 장소에서 무엇을 지었는가?
15) 그 후, 아브람은 어디로 갔으며 왜 그곳으로 갔는가?
16) 가나안 땅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7) 아브람의 여행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18) 에집트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 주님께서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아니다 2) 에벨 3) 아브람 4) 데라 5) 하란, 나홀 6) 사래 7) 갈대아의 우르 8) 가나안 9) 하란(나홀의 성) 10)아브람과 롯, 아브람의 조카 11) "큰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12) 세겜 13) 베델 근처 14) 제단 15) 에집트, 흉년 때문에 16) 생활 속에 있는 천국적인 방법 17) 유전된 이기적 경향성들을 떠나는 것 18) 말씀 속에서 필요한 진리를 얻는 것 19) 우리는 진리를 꾸준히 더 배워 나가야 할 것

5
이사악의 출생

머리말

첫 번째 합리성을 의미하는 이스마엘과 두 번째 합리성을 의미하는 이사악의 대조를 위해 먼저 이스마엘의 출생에 관한 재검토와 상속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자.

성 서 본 문: 창세기 21장 1-21절

21장 1. 야훼께서는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니, 2.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3.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 준 아들을 이사악이라 이름지어 불렀다. 4. 하느님의 분부를 따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사악이 태어난 지 팔 일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5. 아브라함이 아들 이사악을 얻은 것은 백 살이 되던 해였다. 6.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7.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노령에 아들을 얻으셨구나.” 8. 아기가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다. 이사악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9. 그런데 사라는 에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사악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10.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 계집종과 아들을 내쫓아 주십시오. 그 계집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사악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11.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이스마엘도 자기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12. 그러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애와 네 계집종을 걱정하여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어 주어라. 이사악에게서 난 자식이라야 네 혈통을 이을 것이다. 13. 그러나 이 계집종의 아들도 네 자식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4.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식 얼마와 물 한 부대를 하갈에게 메어 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였다. 하갈은 길을 떠나 얼마쯤 가다가 브엘세바 빈들을 헤매게 되었다. 15. 부대의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한 구석에 아들을 내려 놓고 16.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 뜨고 보랴”고 탄식하며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아 이스마엘을 바라 보았다. 하갈은 이스마엘이 소리내어 우는데도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았다. 17.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셨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느님께서 저기서 네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18. 어서 가서 아이를 안아 일으켜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19. 하느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의 눈에 샘이 보였다. 하갈은 큰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20.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 그는 자라서 사막에서 살며 활을 쏘는 사냥꾼이 되었다. 21. 그는 바란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감을 에집트 땅에서 골라 맞아 들였다.

교리 요점

*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와 표준에 따라 판단하는 이성보다 더 높은 이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아브라함, 이사악, 그리고 야곱은 우리들처럼 약함과 과실이 많았다. 주님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그들의 삶을 말씀 안에 기록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 필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게하기

위함에서 였다. 주님께서는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 깊은 교훈들을 말씀의 매 단계마다 포함되도록 기록하셨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행과 좋은 감정 뿐 아니라 우리의 죄와 잘못까지도 선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하시며 천국적인 삶으로 인도되도록 노력하고 계신다.

본장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이집트 출신 하녀를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사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브라함 때에는 진정한 결혼의 의미조차 망각되어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인 관습으로 되어 있었다. 사라와 아브라함 역시 일부다처가 그르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첩을 거느린 것을 벌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장차 그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고 하갈에게 약속하셨다. 그러나 사라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줄 아들 이사악을 낳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머니 하갈과 함께 쫓겨났다.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는 족보는 우리들의 영혼이 유아기에서 성년기까지의 성장과정과 같다. 아브람은 어린 아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고 순종적이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자라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부모에게 따지기 시작한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처음으로 논리성을 가지는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것이다. 아이들이 사물의 내부를 보거나 스스로에게 좋게 느껴지는 것이라 해도 다 선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인정하기에는 그들의 삶이 아직 부족하다. 아이들은 스스로의 생각이 언제나 옳고 부모의 생각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스마엘은 이러한 어린 아이들에 해당되며 마치 들나귀와 같았다. 그는 히브리어로 "야생(wild)"라고 창세기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들나귀(wild-ass)를 의미한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는 우리의 아주 어린 시절과 같은 성향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단계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거룩한 땅에 거주하지는 못하더라도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사악의 출생은 겉치레적인 표현과 사리추구를 원리로 삼는 대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하느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보다 높은 추론을 통해 영적으로 진보하게 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2654항)」:
[4] "인간적 합리성은 감각적 능력을 통해 알게 되는 세상적인 것들의 유사성으로부터 태어나고, 과학적 그리고 인식적 지식에 의해 성장된다. 이러한 인간적 합리성에게 만일 "너는 삶이 너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진실은 아니야"고 말하면, 인간적 합리성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 말을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또한 인간적인 합리성은 삶이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믿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 현명하고 총명하게 되고, 더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비웃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야말로 천사들의 삶이며 특별히 주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삼층천(천적:celestial)의 천사들의 삶인 것이다. 그 이유가 삼 층 천국의 천사들은 생명은 여호와 주님 한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므로 누구도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생명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5] 또한 이러한 인간적 합리성은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이들은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들이라 여기는 이들이요, 가장 지혜로운 이들은 스스로를 가장 미련하게 여기는 이들이요, 가장 행복한 이들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며 나의 행복을 가장 나중으로 여기는 이들이라는 진리 또한 비웃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합리성은 천국은 다른 이들 모두를 높이며 자신은 늘 낮추는 겸손한 상태에 임하며, 지옥은 모두 위에 서려는 오만과 독선에 들어와 있다는 것도 부인 할 것이며, 그 결과 천국에 있는 영광스러움은 지상의 영화로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 또한 받아들이지 못한다."

질문 정리

1) 지상의 두 번째 교회의 종말을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는 무엇인가?
2) 그 속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3)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어느 가정을 택하셨는가?
4) 그들은 어디서 살았는가?
5)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6)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중 멈춘 곳은 어디인가?
7) 누가 가나안으로 계속 갔는가?
8) 아브람이 제단을 쌓은 가나안의 두 장소는 어디인가?
9) 왜 그는 이집트로 갔는가?
10) 그는 이집트에서 돌아 온 후 어디에 정착했는가?
11)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12)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13) 사라는 아브라함의 대를 어떻게 잇게 했는가?
14) 하갈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15) 주님께서 이스마엘에 관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6)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는가?
17) 사라의 아들 이름은 무엇인가?
18) 이스마엘의 어떤 행동이 사라를 불쾌하게 했는가?
19)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는가?
20)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1)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는가?
22) 천사들은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가?
23) 이스마엘은 무엇이 되었는가?
24) 이스마엘은 어느 나라에서 자기의 아내를 구했는가?
25) 이집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6) 이사악과 이스마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1) 바벨탑 2) 흩트려짐 3) 아브람(에벨, 데라) 4) 갈대아의 우르

5) 가나안으로 가라 6) 하란 7) 아브람, 사래, 롯 8) 세겜, 베델 9) 기근
10)헤브론 11) “바다의 모래같이 불어나리라” 12) 아들 13) 하갈을 그의 아내로 줌 14) 이스마엘 15)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16) 백 세 17) 이사악 18) 이사악을 조롱했다 19)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20) 사라의 말을 따라라 21) 사막(광야) 22)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23) 활 쏘는 자 24) 이집트 25) 기억적인 지식
26) 이스마엘 - 자연적 또는 첫 번째 합리성, 이사악 - 영적 또는 두 번째 합리성

6
야곱과 에사오

머리말

본장에서는 쌍둥이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이사악의 아내를 하란에서 데려오는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25장 19-34절, 27장

25장: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악의 역사는 아래와 같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 이사악이 태어났는데, 20. 이사악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의 나이는 사십 세였다. 리브가는 바딴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로서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21.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하였으므로 이사악은 야훼께 아기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야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는데, 22.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우므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와서야 어디 살겠는가!”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23.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 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24. 달이 차서 몸을 풀고 보니 쌍동이였다. 25. 선동이는 살결이 붉은데다가 온 몸이 털투성이였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 하였다. 26. 후동이는 에사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사악이 육십 세 되던 해였다. 27.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28. 이사악은 에사오가 사냥해 오는 고기에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29.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 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30.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하였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31.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32.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33.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34.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 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7장: 1. 이사악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그는 큰아들 에사오를 불렀다.“얘야!”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2.“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3. 그러니 너는 사냥할 때 쓰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에 나가 사냥을 해다가 4.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5. 리브가는 이사악이 아들 에사오에게 하는 이 말을 엿듣고는 에사오가 사냥하러 들에 나간 틈을 타서 6. 아들 야곱에게 귀띔해 주었다. “아버지가 네 형 에사오에게 7. 사냥해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시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잡수시고 에사오에게 복을 빌어 주겠다고 하시더구나. 8.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9. 양떼들한테 가서 살진 염소 새끼 두 마리만 끌어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터이니 10.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잡수시고 세상을 뜨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것이다.” 11.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형 에사오는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12. 아버님이 저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기나 한 것처럼 되어 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13.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야곱아,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어서 가서 염소 새끼나 끌어 오너라." 어머니의 말대로 14. 야곱은 염소 새끼 둘을 어머니에게 끌고 왔다. 어머니는 남편 구미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15.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 두었던 큰아들 에사오의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 준 다음, 17. 장만해 놓은 별미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18.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 가 "아버지!"하고 불렀다. 아버지 이사악이 "오냐, 네가 누구냐?"하고 묻자 19. 야곱이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님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아버님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사악이 아들에게 물었다. "에사오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아 왔느냐?" "아버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사악은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오인지 만져 보아야 겠다"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22. 가까이 온 야곱을 만져 보고 이사악은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소린데 손은 에사오의 손이라!" 23.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에사오의 손처럼 털이 많았으므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기로 하였다. 24. 이사악은 "네가 틀림없는 내 아들 에사오냐?"하고 다짐하였다.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하자 26. 이사악은 "에사오야! 사냥한 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 주리라"하였다. 야곱이 가져다 바치는 요리와 술을 먹고 마신 뒤 26. 아버지 이사악은 야곱에게 "에사오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하였다. 27.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사악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 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서 풍기는 냄새, 야훼께 복 받은 들 향기로구나.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이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 나거라. 뭇 백성은 너를 섬기고 뭇 족속들은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네 겨레의 영도자가 되어 네 동기들이 네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30. 야곱이 아버지 이사악이 빌어 주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형 에사오가 사냥에서 돌아 왔다. 31. 그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들어 가 권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해 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32. 아버지 이사악이 “대체 너는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아버님 맏아들 에사오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33. 이사악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누군가가 벌써 사냥해다가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왔었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받아 배부르게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 주었다.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34. 에사오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하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35. “네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 갈 복을 가로챘구나.” 36. 이 말을 듣고 에사오는, “나를 두 번씩이나 뒷발질하라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이었던가? 저번에는 내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마저 가로채는구나!” 하며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37. 이사악이 에사오에게 대답하였다. “도리에는 어긋나지마는 나는 야곱을 너의 상전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그에게는 곡식과 술도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에사오야,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느냐?” 38. 그러나 에사오는 거듭 애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 주실 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입을 다문 채 말이 없는 이사악 앞에서 에사오는 목 놓아 울었다. 39. 아버지 이사악이 아들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은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이다.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그가 씌워 준 멍에를 목에서 떨쳐 버려야 하리라.“ 41. 에사오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 준 일로 야곱을 미워하였다. 에사오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 때 동생 야곱을 없애 버리리라”고 마음먹었다. 42. 리브가는 큰아들 에사오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놓고 일렀다. “큰일 났다. 형 에사오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을 모양이다. 43.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 가거라. 44.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댁에 가 있거라. 45. 네 형의 노여움이 풀려 네가 한 일을 잊을 만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오마. 한꺼번에 너희 두 형제를 잃고서야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46. 리브가가 이사악에게 호소하였다. “헷 여자들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헷 여자를 아내로 맞는다면 무슨 살 맛이 있겠습니까?”

교리 요점

*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까지 선용하시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다.
*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모방해야할 본보기들은 아니다. 오직 주님의 삶만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된다.

해설

이사악의 아내 리브가는 하란 출신이다. 하란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행 도중 나홀이 멈춰 정착한 곳이다. 리브가는 나홀의 손녀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정착한 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가문은 혈통이 순수하게 지켜질 수 있었다.

이사악과 리브가는 결혼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 그 후 쌍둥이 형제 에사오와 야곱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쌍둥이였음에도 아주 달랐다. 에사오는 그의 다른 이름「에돔(Edom)」이 뜻하는 「붉음(red)」과 같이 살결이 붉고 온몸이 털인 반면 야곱은 매끈한 살결을 가지고 태어났다. 에사오는 사냥꾼이 되어 들판에서 살았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하여 양떼와 가축을 돌보면서 집에 머물렀다. 아버지, 이사악은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에게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장에서 다루는 두 이야기는 이에 대한 좋은 예라 하겠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야곱은 그의 형과 약삭빠르게 흥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에사오는 인간적 결함이 야곱보다 더해서 자기의 일시적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장자의 권리를 쉽게 포기해 버린다. 에사오는 장자로서 상속권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의 꾀임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겨 화가 난 에사오는 아우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우리에게 에사오와 야곱 사이의 잘잘못을 따져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성경에서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가인과 아벨, 요셉의 두 아들, 유브라임과 므나쎄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등의 이야기들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형제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많은 결실을 맺게 되며 이러한 결실들 안에는 두 가지의 특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도(intention)와 생각(thought)이다. 다른 말로 의지(will)와 이해성(understanding)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어린 시절의 순진한 마음을 표현하며 이사악은 우리 추론능력의 상향적 발달을 표현함에 대해 공부했다. 에사오와 야곱은 젊은이들이 독립적인 삶을 시작하는 시기 즉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에 가는 것 등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 첫 시기에 해당된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의지와 이해성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목적을 위해 강한 바램(소망) 또는 욕구(의도)가 있더라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로 현명해질 수 있는 것을 배워 옳은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갈 때까지 충동적 추진력을 조절해야 함을 보여 준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하느님의 섭리(Divine Providence) 제 234항」: “허용의 법칙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의 법칙에서 떨어져 나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둘은 결국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이 어떠한 것을 허용하였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뜻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그분의 목표이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섭리는 항상 인간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리고 멀어지는 곳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섭리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역사하심에 끊임이 없어서 매 순간 또는 매 단계에서 인간이 이러한 주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감지되면 섭리의 법칙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되돌리기 위해 역사하시는 데

우리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멀어지고 선을 향해 가도록 하신다. 이러한 인간 구원의 섭리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연유로 마땅한 까닭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까닭들은 반드시 주님의 섭리의 법칙 안에서 발견되어 져야만 하는데, 이 때 주님의 섭리의 법칙은 우리에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준다.

질문 정리

1) 이사악은 누구와 결혼했는가?
2) 그 여자는 어디 출신이었나?
3) 이사악과 리브가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4) 형은 누구인가?
5) 그들의 생김새는 어떻게 달랐는가?
6) 에사오는 야곱에게 무엇을 팔았는가?
7) 그는 무엇을 얻었는가?
8) 이사악이 예뻐한 아들은 누구인가?
9) 리브가가 예뻐한 아들은 누구인가?
10) 리브가는 이사악이 늙자 야곱이 그를 어떻게 속이도록 도왔는가?
11) 이사악은 에사오에게 주었어야 할 것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12) 이에 대해 에사오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13) 에사오와 야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4) 주님께서는 왜 야곱이 에사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허용 하셨는가?

질문의 답

1) 리브가 2) 하란 3) 에사오와 야곱 4) 에사오
5) 에사오는 털이 많고 붉음, 야곱은 매끈매끈 했음 6) 장자의 권리
7) 팥죽 8) 에사오 9) 야곱

10) 맛있는 고기 요리를 준비 시키고 야곱의 손에 염소 가죽을 씌워 주었다
11) 장자의 복 12) 야곱을 죽이길 원했다
13) 에사오는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의지, 야곱은 자연적인 수준에서의 이해성
14) 우리가 이기적인 의지에 의해 이끌려서는 안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

7
요셉과 그 형제들

머리말

야곱이 20년간 하란에 머물면서 있었던 일 즉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야기, 아들들의 출생, 베델에서의 주님의 약속, 그리고 가나안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야곱의 간절함 등을 살펴본다.

성 서 본 문: 창세기 37장

37장: 1. 한편 야곱은 자기 선친이 유랑민으로서 머문 적이 있던 땅 가나안에 자리를 잡았다. 2.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요셉은 열 일곱 살이 되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 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3. 이스라엘은 요셉을 늘그막에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어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장신구를 단 옷을 지어 입히곤 하였다. 4. 이렇게 아버지가 유별나게 그만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들은 미워서 정다운 말 한 마디 건넬 생각이 없었다. 5. 한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6.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 봐요”하며 그는 이야기를 꺼냈다. 7. “글쎄, 밭에서 우리가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이

둘러 서서 내가 묶은 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8. "네가 정말 우리에게 왕 노릇할 셈이냐? 네가 정말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셈이냐?" 형들은 그 꿈 이야기를 듣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9. 그 후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는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또 했다. "글쎄,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열 하나가 내게 절을 하더군요." 10. 그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네가 꾼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11. 형들은 그를 질투했지만,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두었다. 12.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세겜으로 갔을 때,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일렀다. "얘야,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네가 갔다 와야 하겠다." 그가 대답하였다. "네, 가지요." 14. "네 형들도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알고 싶으니 가서 보고 오너라." 그는 이렇게 이르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은 세겜에 이르러 15. 들판을 헤매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 그가 "누굴 찾느냐?"고 요셉에게 물었다. 16. "저의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형들이 어디서 풀을 뜯기고 있는지 알거든 알려 달라고 했다. 17. 그가 대답하였다. "벌써 여기를 떠났다. 도다인으로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다인으로 찾아 가 거기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었다. 18. 형들은 멀리서 알아보고 그가 다다르기 전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19. "야, 꿈장이가 오는구나. 20. 저 녀석을 죽여 아무 구덩이에다 처넣고는 들 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보자." 21. 그러나 르우벤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 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하였다. 22. "피만은 흘리지 말아라. 그 녀석을 이 빈들에 있는 구덩이에 처넣고 손만은 대지 말아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 내어 아버지께로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23. 이윽고 요셉이 다다르자 그들은 요셉에게서 옷을 벗겼다. 그것은 장신구를 단 옷이었다. 24. 그리고는 그를 잡아 구덩이에 처넣었는데 그 구덩이는 물 없는 빈 구덩이었다.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는데, 마침 길르앗으로부터 낙타를 몰고 오는 이스마엘 상인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향고무와 유향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에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26.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래도 우리 동기인데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덮어 버린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니? 27. 그러니 그 애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버리고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아무래도 우리 동기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했다. 28. 그러는 동안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이십 냥에 팔아 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29. 르우벤은 구덩이로 돌아 와 요셉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30. 형제들에게로 돌아 가 "그 애가 없어졌다.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하고 부르짖었다. 31. 그러자 그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져다 그 피를 묻혔다. 32. 그리고 그 장신구로 꾸민 옷을 아버지께 보내며 말을 전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주웠습니다. 이것이 아버님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잘 보십시오." 33. 그는 그것을 곧 알아보고 외쳤다. "내 아들의 옷이다. 들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짐승들의 밥이 되다니!" 34. 야곱은 옷을 찢고, 베옷을 몸에 걸친 채 아들을 생각하며 날이 가도 달이 가도 울기만 했다. 35. 그의 아들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니다, 나는 지하로 내 아들한테 울면서 내려가겠다." 이렇게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여 울었다. 36. 한편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그를 팔아 넘겼다.

교리 요점

* 스웨덴볼에 의하면 말씀의 가장 깊은 뜻은 주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우리의 거듭남이란 시험, 투쟁 그리고 승리라는 회전의 연속이다.

해설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중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들 중의 하나로, 요셉과 주님의 삶은 비슷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타의에 의해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던 것,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것, 은전 몇 푼에 팔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믿음직스러웠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했던 것 등이 있겠다.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이다,

그는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 머물렀던 하란에서 낳은 아들 중에서는 가장 막내이다. 라헬의 둘째 아들 베냐민은 야곱이 그의 형 에사오와 재회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후 얻은 아들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과는 매우 달랐다. 그의 형들은 세상적 성공에만 관심을 두었지만 요셉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고 이타적인 성향이 짙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꿈장이"라고 불렀다. 세상적인 것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적인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몽상가 또는 이상주의자라고 부르며 조소한다. 그러나 천국적인 삶을 중시하던 사람들은 주님에 의해 중히 쓰여서 결국 인류 역사에 큰 인물들이 된 경우가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고, 요셉이 그의 형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 이사악,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들 중에서 야곱은 우리가 세상적 삶으로 나아가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상태를 그린다.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들은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질들을 뜻한다. 열두 아들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자면, 요셉 전에 태어난 열 명은 우리의 실질적이며 세상적인 삶의 능력들이며 요셉과 베냐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된 보다 높은 것 즉 영적 자극과 생각들을 상징한다.

세상적인 성공에 분주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한 쪽으로 치워놓고는 때로 이러한 것들이 아예 죽어 없어진 것 같이 착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야곱이 요셉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질들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보존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진리와 선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느낄 때까지 기다리신다. 요셉은 주님께서 주신 자질 곧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인해 감옥으로부터 이집트의 고관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후에 그의 형들이 기근을 당해 요셉을 찾아오게 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4669항)」: "요셉은 주님의 영적 인간(Divine Spiritual Human)을 상징 한다. 말씀의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요셉은 영적 측면에서의 주님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주님이 요셉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도 일반적

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천국적인 요셉을 말할 때 주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상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의 어떤 면이 요셉에 의해 상징 되는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요셉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영적 측면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신성한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영적 측면은 주님에게서 비롯되어서 천국과 교회에 있는 신성한 진리이다. 주님의 영적 측면 또는 신성한 진리는 주님의 왕으로서의 위엄이라 불리우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의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요셉이 이집트의 왕처럼 되었고 그러므로 주님의 왕의 위엄을 상징한다."

질문 정리

1) 하란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인가?
2) 아들 중 맏형은 누구인가?
3) 하란에서 태어난 아들 중 막내는 누구인가?
4) 가나안에 돌아온 후 태어난 아들은 누구인가?
5) 라헬의 아들은 누구인가?
6) 야곱은 어떤 아들을 가장 사랑했는가?
7) 야곱은 요셉에게 무엇을 입혀 주었는가?
8) 요셉의 형들은 왜 그를 미워했는가?
9)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가?
10) 야곱은 요셉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켰는가?
11) 요셉은 어디서 형들을 찾았는가?
12)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13) 누가 요셉의 생명을 구해 주었는가?
14) 형들은 결국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15) 요셉은 어느 나라로 팔려 갔는가?
16) 야곱의 열 두 아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7) 요셉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8)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1) 열한 명 2) 르우벤 3) 요셉 4) 베냐민 5) 요셉과 베냐민
6) 요셉 7) 다양한 색깔의 채색 옷 8) 아버지가 특별히 예뻐했고 그의 꿈 때문이다
9) 곡식 단, 해, 달, 별들 10) 형들을 찾아보라고 11) 도다인 12) 죽이기로
13) 르우벤 14) 구덩이에 집어넣었다 15) 이집트로 16) 기본이 되는 모든 정신적 자질 17) 영적 원리
18) 영적 원리가 우리의 외적 기억 속으로 추방당하는 상황

8
모세의 출생

머리말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난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안락하게 정착했고 또 요셉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경외심이 살아 있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어 히브리족의 숫자가 불어나자 이집트인들의 경계심이 고조되었고, 마침내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여 히브리인들에게서 난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까지 떨어지게 됐다.

성서 본문: 출애굽기 1장, 2장 1-10절

1장: 1. 야곱을 따라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 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2.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3. 이싸갈, 즈불룬, 베냐민, 4. 단 납달리, 가드, 아셀. 5.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칠십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내려 가 있었다. 6. 얼마 뒤에 요셉이 죽고 그의 동기들과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으나 7.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무섭게 불어났다. 8. 그런데 요셉의 사적을 모르는 왕이 새로 이집트의 왕이 되어 9.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일렀다.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듯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10.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보아 손을 써야겠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원수의 편에 붙어 우리를 치고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른다." 11. 그리하여 그들은 공사 감독들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 둘 도성 비돔과 라므세스를 세웠다. 12. 그러나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불어났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13.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14. 그들은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과 밭일 등,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15. 한편 이집트 왕은 히브리 산파- 한 사람은 시브라였고 또 한 사람은 부아였다-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16. "히브리 여인이 해산하는 것을 도와줄 때, 사타구니를 보고 아들이거든 죽여 버리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17. 그러나 산파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 주었다. 18. 에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들여 "사내아이들을 살려 두다니,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꾸짖었다. 19.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는 달리 기운이 좋아 산파가 가기 전에 애기를 낳아 버립니다." 20. 하느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날로 무섭게 불어 나갔다. 21. 산파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22. 마침내 파라오는 온 백성에게 명을 내렸다. "히브리인들이 계집 아이를 낳으면 살려 두되 사내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2장: 1. 레위 가문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2. 아내가 아기를 배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 생겨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3. 그러다가 더 숨겨 둘 수 없게 되자 왕골상자를 얻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숲 속에 놓아두었다. 4. 그리고

아기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5.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6. 열어 보았더니, 사내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7. 그 때 아기의 누이가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모를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8.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 오너라"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 왔다. 9.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삯을 줄 터이니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10.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 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 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교리 요점

*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해설

가나안의 땅이 천국 또는 천국적 인격을 의미함은 폭넓게 인식되어 있으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가 우리들 마음의 특별한 상태 또는 특별한 평면을 그리고 있음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나라는 가나안, 아시리아 그리고 이집트인데, 이 세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 갖는 세 가지 중요한 층면들을 뜻한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끼는 곳이 가장 깊은 층면이며 우리의 합리성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층면은 그 다음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연적 지식과 생각에 속하는 층면은 바깥 또는 제일 아래층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나안은 가장 깊거나 높은 층면, 아시리아는 합리적 층면 그리고 이집트는 가장 바깥쪽 또는 자연적 층면을 의미한다. 우리의 모든 감각적 영향(인상)이 있는 곳은 가장 바깥 또는 자연적 층면이다. 이 자연적 층면 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읽은 것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배운

것 등의 모든 것이 축적되어 있다. 요셉이 흉년에 대비해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지식의 필요성을 대비해 우리의 기억 속에 모든 것이 저장되는 것을 묘사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이집트로 내려간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변 상황에 대해서 배우는 여러 시기를 그린다. 그러나 배움 그 자체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며 배움이 특정한 용도로 쓰여 질 때 그 가치가 있게 된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흉년이 지난 후에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풍성함과 안락함을 발견하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고향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침내 하느님 대신 이집트인들의 신들을 예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전문가, 무역가 혹은 사업가 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한다. 그 후 우리는 지식 그 자체에 몰두하거나 단순히 그 지식을 얻은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어 우리가 그 지식들을 이웃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잊게 된다. 어떤 남자는 자기의 사업에 몰두하여 자기 가족, 친구, 심지어 교회에는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여기며 때로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어떤 여자는 자기 가족을 위한 집과 집을 가꾸는데 온 열정을 쏟으며 그 집이 가장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전함과 행복함을 찾으려 하고 그곳에서 세상에 유용한 것을 위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 한다. 이와 같은 남녀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이 노예 상태에 놓인 것과 같은 모습이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세를 선택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다. 특히 주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살리셔서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양육되게 하신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을 소량이나마 담아두심을 뜻한다. 이것은 대체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우는 것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 속 깊숙이 담겨진 지식을 돌보시고 우리가 자아반성을 통해 스스로의 오만과 이기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실감할 때 이 지식을 우리의 의식적인 기억으로 들어 올리신다.

모세는 주님의 섭리 하에 모든 이집트인의 학식이 모여 있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훈육되었다. 하지만 주님의 섭리에 의해 모세를 구한 이집트의 공주는 모세의 양육을 그의 친어머니에게 위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모세는 왕자에 준하는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이집트의 왕실에서 받았고, 히브리인으로서의 교육은 그의 친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것은 모세로 상징되는 지식 또는 진리가 우리의 영적성장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가 되어 받는 압박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40년이라는 긴 광야의 여정을 통해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이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긴 방황을 마치고 우리 속의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반드시 "모세"로 상징되는 지식 또는 진리가 있어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미리 선택하시어 키우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적 지식을 키우고 욕망에 휩쓸려 사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어린 시절에 심어 놓으신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양육하시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신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볶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6751항)」: "하느님의 법은 폭 넓은 의미에서 말씀 전체를 의미하며 보다 좁은 의미로는 말씀의 역사적 부분에 해당된다. 그 보다 좁은 의미에서 보면 모세를 통해 쓰여진 말씀들이며, 아주 좁혀 생각하면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느 면에서나 법(law)을 표현 한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6723항)」: "그 여자는 왕골상자를 얻어다가" (출애굽기 2장 3절)라는 구절은 진리에서 파생은 되었으나 간접적으로 낮은 수준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상자는 어떤 것을 담을 수 있게 주변을 둘러싸서 만든다는 것 즉, 내부의 내용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왕골이 가치가 낮은 물건이나 진리에서 파생되어 있는 것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모세는 법으로서의 신성 또는 말씀 (특별히 역사적 측면에서의 말씀)을 표현하도록

섭리되었다. 모세는 유아기 때 작은 궤 안 즉 낮은 가치를 가진 것들 안에 놓여지게 되는 데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역사적인 측면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의 시작이 진리로부터 파생된 낮은 것들을 상징하는 궤안에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둘째, 모세는 법으로서의 신성을 상징함으로, 왕골상자에 담긴 모세는 신성이 글자적인 의미의 법안에 담겨 있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 법으로서의 신성 그 자체가 시내 산에서 빛을 발할 때 이 법은 "언약의 궤"라 불리는 상자 안에 놓여 지게 된다.

질문 정리

1)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처음 정착할 때 이집트인들의 대접은 어떠했는가?
2) 해가 거듭될수록 그 대접은 어떻게 변했는가?
3) 파라오는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4)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의 증가를 어떻게 막으려 했는가?
5) 구원된 아기의 이름은 무엇인가?
6) 그의 어머니는 그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7) 누가 아기를 발견했는가?
8) 그 여자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9) 모세를 젖 먹이기 위해 누가 불리어졌는가?
10) 이집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11) 이집트에서의 속박은 무엇을 그리는가?
12) 모세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1) '존경하는 손님' 2) 노예가 되는 쪽으로 변화 3) 히브리족이 강해짐을 두려워했음 4) 새로 태어난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 5) 모세 6) "상자를 만들고, 갈대 숲 속에 놓아 둠" 7) 파라오의 딸 8) 그를 양자로 삼는 것 9) 모세의 친 어머니

10) 지식을 획득하는 상태
11) 세상적 지식, 사업, 쾌락 등의 노예가 됨 12) 하느님의 법(Divine Law)

9
홍해를 건너다

머리말

홍해를 건너는 광경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나 과월절에 관한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과월절(Passover)이란 단어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연결되어 머리 속에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3장 17-22절, 14장

13장: 17. 파라오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곧장 불러 새 땅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서는 이 백성이 닥쳐 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후회가 되어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염려하셨던 것이다. 18. 그래서 하느님은 그들을 홍해바다에 이르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단히 무장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19. 이 때, 모세는 요셉의 유해를 모시고 떠났다. 요셉이 "하느님께서 너희를 돌보아 찾아오실 터이니, 그 때 너희는 내 뼈를 여기에서 옮겨다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단히 다짐해 두었던 것이다.
20. 그들은 수곳을 떠나 광야 접경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21. 야훼께서는 그들이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14장: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으로 돌아 와 그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3. 그러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4.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면 그가 그들의 뒤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쳐서 내 영광을 드러내어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5.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정보가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려 먹지 않고 풀어 보내다니, 안 될 일이다.”라고 하였다. 6. 파라오는 병거에 말을 메워 백성을 거느리고 나섰다.
7. 특수 병거 육백 대로 편성된 정예부대를 앞세워 이집트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나섰다. 8. 야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되었다. 9. 이리하여 파라오의 병거와 기마, 기병, 보병 등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뒤쫓아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 본 앞 해변에 진을 친 그들을 따라 잡았다.
10. 파라오가 다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질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11.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에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12.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더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13.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14.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15.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16.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쳐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게

하여라. 17.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를 뒤따라 들어서게 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을 쳐서 영광을 드러내리라. 18.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이 비로소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19.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던 하느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 가 호위하자 그들 앞에 서 있던 구름 기둥도 뒤로 돌아가 20. 이집트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섰다. 그러자 구름 때문에 캄캄해져서 서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밤을 새웠다. 21.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훼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 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22.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23. 이집트인들이 뒤쫓아 왔다. 파라오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그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섰다. 24. 새벽녘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자 이집트 군대는 갈팡질팡하였다. 25. 또한 야훼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 놓아 꼼짝도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자. 야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군대를 치신다"하고 소리쳤다.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물이 도로 덮이게 네 팔을 바다 위로 뻗쳐라." 27. 모세는 팔을 바다 위로 뻗쳤다. 날이 새자 바닷물이 제 자리로 돌아 왔다. 이집트인들은 물결을 무릅쓰고 도망치려고 했으나, 야훼께서 이집트인들을 바다 속에 처넣으셨다. 28. 물결이 도로 밀려오며 병거와 기병을 모두 삼켜 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에 들어섰던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29.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30. 그 날, 야훼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 군대로부터 건지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이 해변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31.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께서 그 큰 팔을 펴시어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 야훼를 두려워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교리 요점

* 주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을 언제나 보호하신다.
* 선은 사랑되어져야 하는바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된다.

해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실감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꺼내기 시작하신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축해 두신 하느님의 말씀을 꺼내셔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세상이 아닌 천국임을 알려 주시며, 우리가 세상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어린 아이들처럼 되어 재출발하는 지점에 위치해야 함을 상기 시켜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것은 세상적 욕망과 추론이 우리를 잡아 두려고 재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억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때란 우리가 세상적인 것 속에 파묻힌 영혼을 해치는 재난들을 더욱 더 실감하게 될 때 가능하다. 이것은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이집트인들에게 하나씩 내려 마지막으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가도록 허락할 때까지 그것이 계속되는 것과 같다. 이집트를 떠나는 저녁을 기념하는 과월절 축제란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꺼내 주셨음을 감사하는 축제이다.

어떤 교파는 「개종(conversion)」이란 단어를 크게 강조하며, 각 개인의 개종을 위한 프로그램도 꽤 다양하다. 개종이란 이 방향에서 저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turning)을 의미한다.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환이 꼭 필요하며, 우리의 마음이 "이집트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결심은 과월절을 기념하는 순간과 같은 것이며, 이 순간은 천국을 향한 여정의 첫 단계가 된다. 하지만 개종의 계기가 어느 유명하다는 부흥사의 감정적인 호소와 같은 순간적인 감정의 격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의 천국을 향한 여정은 오히려 퇴보(backslide)해 버리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결심은 즉각적인 개종이라는 행동과 동시에 모세로 표현된 하느님의 말씀을 스스로의 안내자로 삼아 삶의 새로운 길 안에서 꾸준한 진보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안내와 보호 하에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한 것에 해당된다.

본장의 이야기는 이 여행 중에 만나게 되는 첫 시험과 그 시험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민족을 예전의 노예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그들을 추격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의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분석하며 충분한 다짐과 열성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의 나쁜 습관이 곧바로 우리를 뒤쫓아 붙잡으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예 시작 초부터 과거의 습관이 지닌 강한 힘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들은 홍해라는 바다로 상징되어 있다. 주님에 의해 잘 훈육되어 있는 모세가 자기 팔을 바다 앞에 뻗치자 바다가 갈라졌다. 이처럼 우리 역시 시험에 닥칠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 그들을 뒤쫓아 오던 이집트 군대를 삼켜버린 바다를 바라보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시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경험으로서의 확신에 해당되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 모든 시험은 주님의 권능 아래서 극복되며 그분은 우리에게 있던 악들의 실질적인 무능력이 보여 지도록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순종하면 그분은 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8192항)」: "하느님의 천사가 뒤로 돌아가" (출애굽기 14:19). 이 부분의 의미는 하느님의 진리로 정리정돈 된다는 것이다. 「뒤로 돌아가 (setting out)」가 「정리정돈 (a setting in order)」을 명시하는 이유는 천군 천사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앞에서 전진하다가 이스라엘 진영과 이집트 진영 사이로 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주님은 이집트인들에게는 어둠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빛을 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일을 천군 천사 즉 기둥을

뒤로 옮기시는 순서로 정돈하셨다. 이렇게 주님은 양 진영의 중간에 끼어들어 방해하시는 방법을 쓰셨으므로 「뒤로 돌아가」란 「질서대로 놓으심」 즉 마음이 정리정돈되는 상황을 뜻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알아야 할 것은 말씀 안에 천사들의 등장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경우도 하느님의 천사라고 말하여지고 이 천사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 앞에 서서 전진한 기둥으로 상징된다. 그리고 이 기둥은 많은 천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 안에서 이름으로 붙여진 천사를 예로 들면, 미카엘 그리고 라파엘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 천사들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부여 받은 천사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천사들의 이름은 어느 개인적 천사들이 아니라 천사들의 기능 자체를 뜻한 것이며 주님의 신성이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8215항)」: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병거 바퀴들을 얽어 놓아 혹은 병거 바퀴들을 벗겨서" (출애굽기 14;25). 이 문단은 거짓들이 가하는 힘이 제거됨을 의미하는데, 「벗김(take off)」이란 「제거됨, 물러감, 줄어듦(take away)」이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바퀴(wheel)」는 전진하는 힘을 의미하고 「파라오의 병거(chariots)」들은 거짓이 만들어 낸 교리적인 것들을 의미한다. 마차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물건을 운반하는 짐마차며 다른 하나는 전쟁에 쓰이는 전차이다. 짐마차는 거짓이란 짐을 운반하는 것 즉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전차는 좋은 면이든지 나쁜 면이든지 양쪽 면에서 교리적 사항에 속하는 것들을 의미하며 거짓과 진리 모두 다 싸움을 위해 준비된다. 이것을 통해 「병거 바퀴」는 전진하는 힘, 여기서는 거짓들이 밀어붙이는 힘 또는 진리에 대항해 싸우려는 힘을 뜻함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면에서 보면 이 힘은 지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바퀴」란 교리 속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하는 지적 부분을 의미한다. 저 세상에도 마차들은 자주 나타난다. 천사들에게 교리에 대한 강연이 천국에서 열릴 때 이러한 마차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질문 정리

1)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파라오에게 히브리인들을 가게 해달라고 했는가?

2)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출발하는 저녁에 했던 큰 축제는 무엇인가?
3) 히브리인들이 떠날 때, 이집트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4)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5) 히브리인들이 떠난 후 파라오는 무엇을 했는가?
6)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어디서 따라 잡았는가?
7) 주님은 히브리인들을 밤새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8) 아침에 히브리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가?
9) 히브리인들을 바다 안까지 뒤쫓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10)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를 떠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1) 홍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12) 이집트 군대가 파멸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질문의 답

1) 재앙들을 내림 2) 과월절 3) 금, 은 그리고 의복 등을 주었음 4)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 5) 히브리인들을 뒤쫓았다 6) 홍해 근처에서 7) 양 진영 사이에 기둥을 두심 8) 홍해가 갈라지게 되어 건넜음 9) 물에 빠져 죽음 10) 세상에 속한 것만을 하다가 그것을 멈추기로 결심하여 영적 생활을 추구함을 묘사한다. 11) 악에서 나오는 거짓이 축적된 상태 12) 세상적 삶의 노예가 되었던 것과 영원히 이별함

10
십계명

머리말

먼저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광경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며 많은 곤란과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심과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3개월째에 시나이 반도에 도착했음도 기억하자. 본장의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출애굽기 제 15장부터 19장까지를 자세히 읽어 두자. 본장은 19장에서 언급된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성 서 본 문: 출애굽기 19장 16-25절, 20장 1-21절

19장: 16. 셋째 날 아침, 천둥소리와 함께 번개가 치고 시나이산 위에 짙은 구름이 덮이며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자 진지에 있던 백성이 모두 떨었다. 17. 모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만나 보게 하려고 진지에서 데리고 나와 산기슭에 세웠다. 18. 시나이산은 연기가 자욱하였다. 야훼께서 불 속에서 내려 오셨던 것이다. 가마에서 뿜어 나오듯 연기가 치솟으며 산이 송두리째 뒤흔들렸다. 19.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느님께 말씀을 올리자 하느님께서 천둥소리로 대답하셨다. 20. 야훼께서 시나이산 봉우리에 내려 오셔서 모세에게 산봉우리로 오르라고 하시자 모세가 올라갔다. 2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이 백성에게,

야훼를 보려고 마구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 두어라. 22. 야훼에게 가까이 올 사제들도 몸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야훼가 내려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 23.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 백성은 시나이산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 산 둘레에 표시를 해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24. 야훼께서 그에게 "그러면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 오너라. 그러나 사제들이나 백성은 야훼를 보러 마구 올라 와서는 안 된다. 올라오면 야훼가 내려 가 그들을 마구 칠 것이다"하고 말씀하시자 25.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 가 그 말씀을 전하였다.

20장: 1.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하느님이다. 3.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4.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 따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5. 그 앞에 절하며 섬기지 못한다. 나 야훼 너희의 하느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삼 대에까지 갚는다. 6.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7.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야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10. 이렛날은 너희 하느님 야훼 앞에서 쉬어라. 그 날 너희는 어떤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한다.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남종 여종뿐 아니라 가축이나 집 안에 머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 11. 야훼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레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훼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날로 삼으신 것이다. 12.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13. 살인하지 못한다. 14. 간음하지 못한다.

15. 도둑질하지 못한다. 16.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못한다.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네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지 탐내지 못한다." 18. 온 백성은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에 자욱한 연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19. 모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잘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20.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주었다. "두려워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21. 모세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백성은 멀리 서 있었다.

교리 요점

* 십계명은 하느님의 법이며 사람이 지어낸 법이 아니다.

해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은 40년간 지속 되었으며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긴 여정을 짐작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집단은 무려 장정만 60여만 명에 많은 가축 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여행이 길었던 것은 여행경로가 길거나 험난했기 보다는 집단내의 불평, 배반, 그리고 소심함으로 인해서였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여행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과거의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버리기로 결심한 후,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며 좋은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불평과 반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때로 앞에 있는 압박감을 헤쳐 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뒤만 더 돌아보게 되는 것에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셨음을 알고 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이 임하신다. 우리가 새로운 진리가 쓰다고 느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라」에서 쓴 물을 발견할 때와 같은 것이다. 주님은 이 쓴 물을 달게 해주는 나무를 보여 주시는데, 이 나무는 섬김을

사랑하는 것을 원리로 삼아야 함을 뜻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휴식과 만족감을 주시는데, 이것은 「엘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친 상태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한 즐거움도 가져다주신다. 이것이 저녁에 이스라엘 진영을 뒤덮은 메추라기 떼로 의미된다. 우리는 아침 즉 새로운 심정상태에서 주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위한 빵 조각을 항상 발견하게 되며, 주님은 또한 말씀의 글자라는 큰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도 해주신다. 아말렉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처럼, 실망과 의심이 우리를 공격하려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 손을 그분을 향해 들라고 하시며 그분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여 그것을 극복하도록 해준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법 뒤에 있는 진정한 목적과 더 상세한 그분의 가르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보다 조직화할 준비를 하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시나이 산 밑에서 거의 일 년을 야영하면서 보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있어야 할 도덕적, 시민적, 그리고 종교적 생활을 규율할 완전한 법전을 주셨다. 이리하여 비조직적인 유목민에 불과했던 그들은 그들 삶의 중심에 성막(tabernacle)을 가진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성막의 지성소에는 「궤(ark)」가 놓여 있고 그 궤 안에는 하느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놓여 있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관련된 첫 계명은 첫째 돌판에, 이웃들에 관련된 의무는 둘째 돌판에 쓰여 있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째로 큰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계명은 생생한 하느님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어졌다. 그 이유는 이 계명이 우주 만물에 관한 기본법이며 하느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 이 계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 무시하거나 그 일부분을 잊어버리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우리는 십계명을 간직함으로써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는 길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 잘 알고 스스로 그것을 반복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진정한 기독 종교 (True Christian Religion 제 412 - 416항)」: 이웃이란 용어가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웃이란 상대방 즉 개인 외에 무슨 의미가 더 있느냐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함은 이웃에게 혜택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이웃과 이웃을 사랑함은 개개인이 모여 사회와 국가를 이루듯이 그 안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여 공동체도 그것의 크기와 관계없이 집합된 사람들이므로 하나의 이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들도 사랑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공동체에 대하여 옳게 뜻하고 행동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있는 선을 참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의 국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보다 더 큰 이웃이 된다. 국가를 사랑함이란 공적 복지를 사랑함이 된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며 그 나라에 대해 선한 뜻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사후에도 하느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된다. 내 나라를 사랑하듯 주님의 나라(천국)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천국을 이루는 모두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며 영원한 삶은 교회를 통해 인간에게 소개되므로 교회는 보다 높은 측면에서의 이웃으로서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건물로서의 교회 그 자체를 사람보다 더 높은 측면에서의 이웃으로서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직자가 다른 사람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웃은 아닌 것이다. 성직자는 단지 섬기는 자일뿐이다, 잘 섬기는 만큼 존경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는 최고로 높은 측면에서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향한 선행과와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을 인식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정도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도 있게 된다.

질문 정리

1)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지역을 통해 가나안으로 여행해야만 했는가?
2) 그들이 배고팠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무엇을 그리워했는가?

3)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4) 석 달 째에 그들은 어느 산에 도착했는가?
5) 주님으로부터 계명이 내릴 때 그들은 산에 올라가도록 허락 되었는가?
6) 셋째 날 아침 그들을 무섭게 만든 광경은 무엇인가?
7) 그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는가?
8) 맨 처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9) 그 다음 주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10) 계명은 어떻게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가?
11) 첫째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12) 둘째 돌판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13) 이러한 계명은 본문 시대 이전에도 있었는가?
14) 주님은 왜 시나이산으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셨는가?
15) 광야의 여행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질문의 답

1) 광야 혹은 사막 2) 양식(고기), 물 3) 만나, 메추라기, 바위로부터 물 4) 시나이산 5) 아니다 6) 천둥과 번개 7) 하느님의 음성 8)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9) 십계명 10) 첫째 돌판은 1-5계명; 둘째 돌판은 6-10계명 11) 하느님에 대한 의무 12) 이웃에 대한 의무 13) 예 14) 이 계명들이 하느님의 법임을 보여 주시려고 15) 재형성 - 영적 삶을 위한 준비시기

11
나답과 아비후

머리말

본과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산 밑에서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과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 특히 주님께서 예배 의식에 관한 법을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본과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 또한 성막에 관한 내용, 성막에 두개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어긴 분향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성 서 본 문: 레위기 10장

10장: 1.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들고 있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불에 향을 피우며 야훼께 바쳤다. 그러나 그 불은 야훼께서 지시하신 것과는 다른 불이었다. 2. 야훼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자 그들은 야훼 앞에서 죽었다. 3. 이것을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온 백성 앞에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아론은 다만 입을 다물고 있었다. 4.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찌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놓고 "어서 가서 너의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지

밖으로 끌어내어라" 하고 일렀다. 5. 그들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조카들의
속옷을 잡고 진지 밖으로 끌어내었다. 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잘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시오. 그러다가는 죽을 것이오.
야훼께서 분노하신 것은 온 회중에게 하신 것이니, 야훼께서 태워 죽이신 자들을
위하여 한 겨레인 이스라엘 온 가문이 곡해야 할 것이오. 7. 그대들은 만남의 장막
문간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나가면 죽을 것이오. 그대들은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해
주신 사람들이 아니오?" 그들은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8.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9. "네가 아들들을 거느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 갈 때에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면 죽으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정이다.
10.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간할 때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간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11. 또 야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
게 가르칠 때에도 마시면 안 된다." 12. 모세는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엘르아잘
과 이다말에게 일렀다. "야훼께 살라 바치고 남은 곡식예물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시오.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이오. 13. 거룩한
자리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야훼께 살라 바친 제물 중에서 이것이 형의 몫이요,
형의 아들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나는 받았소. 14. 또 흔들어
바친 갈비와 받들어 바친 뒷다리는 형의 아들과 딸들이 형과 함께 깨끗한 자리에서라
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친교제물에서 형과 형의 아들들에
게 돌아 갈 몫이오. 이것이 야훼께서 지시하신 영원히 지킬 규정이오." 16. 모세는
그들이 속죄제물로 바친 수염소가 어찌 되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이미 불에 태워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모세는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엘르아잘과 이다말에
게 화를 내며 추궁하였다. 17. "어찌하여 속죄제물을 거룩한 자리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더없이 거룩한 것으로서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회중의 죄악을 치워 버리고
야훼 앞에서 그들의 죄를 벗겨 주려는 것이었다. 18. 그것은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 가는 제물이 아닌 까닭에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그것을 성소에서 반드시
먹었어야 했다." 19. 아론이 모세에게 변명하였다. "그 아이들이 바로 오늘 야훼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다. 그런데도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데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야훼께서 좋게 보아 주시겠느냐?"

20.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그도 그렇겠다고 생각하였다.

교리 요점

* 이기적 동기에 근거한 예배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시킨다.

해설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관한 법을 포함한다. 이 법은 레위인들의 생활지침으로서 그들이 주도하는 성막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 포함되어 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졌다. 아론의 네 아들은 아론의 보조자가 되었고 아론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그의 후손들이 계승하도록 되었다.

성막은 레위인들의 생활의 중심이었다. 성막의 건축 및 장식물의 세세한 지시는 주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시나이 산에서 내려졌다. 성막은 가장 깊숙한 방 즉 지성소(Holy of Holies), 바깥방 즉 성소(Holy Place) 그리고 바깥뜰 즉 성막 뜰(Outer Court)의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궤(ark)는 지성소 안의 유일한 가구로 하느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놓여져 있었다. 성소 안에는 분향단, 빵을 놓는 테이블 그리고 일곱 가지가 있는 금 촛대가 있었다. 그리고 성막 뜰에는 큰 희생제단과 손을 씻는 큰 놋그릇이 있었다.

두 제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제물은 다양한 이유로 수없이 바쳐졌기 때문에 제단 위의 불은 언제나 타고 있어야 했다. 주님은 이 불이 절대 꺼져서는 안된다고 명령하셨다. (레위기 6:13) 제물은 실질적으로는 "정결하게 만듦"을 의미한다. 다양한 제물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 다양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표현한다. 제단 위의 불은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다. 첫 계명을 통해 배웠듯이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큰 제단에서 불을 취해 향로에 담아 분향단이 있는 성막 안으로 운반했으며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분향 즉 향을 피운다 함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들어 올림을 묘사하는 것이다.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을 읽어 보면 이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론의 맏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께 이상한 불 (거룩하지 않은 불)을 드렸다.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을 삼켜 죽게 되었다. 이상한 불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의 사랑 즉 자아를 사랑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거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가면, 우리는 이상한 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 우리가 이상한 불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가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닌 그 이기적 용도에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와서 결국 우리의 영적 생명이 파괴되어 진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나온 불은 파괴적인 불이 되어 버린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캠프 밖으로 운반 되었다. 아론과 남은 두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벌을 받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곡하지 말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의 온 가문이 곡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악이 행해졌을 때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으며 벌은 죄가 가진 필연인 것이다. 우리는 때로 벌의 고통으로 인해 통곡하지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섬긴다면 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통곡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INIQUITY (부정)

「천국의 신비 제 9965항」: "'부정을 범해 죽는 일은 면할 것이다' (출애굽기 28:43). 이 절의 의미는 예배의 전체가 소멸되어 짐을 말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사제로서의 직분이 상징하는 것이 주님에게서 온 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있는 악들과 거짓들의 제거됨이라는 것을 언급할 때 설명한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정함을 짊어지는 것'이 뜻하는 바를 참조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천국의 신비 제 9937항 참조) '부정을 범해 죽는다'고 말해질 때는 모든 예배가 소멸되어 짐을 의미하는 이유는 그 교회의 어떤 것도 더 이상 천국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표현적인 교회가 죽은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부정한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태웠을 때 그들이 벌을 받아 죽었다는 것은 표현적인 교회가 법규에 따르지 않는 순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제단 위의 불은 신성한 사랑 즉 주님으로부터만 온 사랑을 상징하고, 부정한 불이란 지옥에서 나온 사랑을 표현한다. 예배가 소멸되어짐이란 부정한 불로 향을 태우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 주님의 규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곧 죄를 짓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리는데, 저주는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씀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부정한 불을 사용한 부정한 행위 그 자체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전형적인 예배가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은 죄 가운데 남아있어 저주를 받은 자들의 전형이 되었다. 어느 누구도 외적 규정을 소홀히 했다고 저주 받지 않으나 심령 속의 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저주받는 것이다."

질문 정리

1) 성막이란 무엇인가?
2) 대제사장은 누구였는가?
3) 아론의 보조자들은 누구였는가?
4) 본문에 나오는 두 개의 제단은 무엇인가?
5) 성막의 어느 곳에 큰 제단이 있었는가?
6) 큰 제단은 어떤 때에 사용되었는가?
7) 성막의 어느 곳에 분향단이 있었는가?
8) 하루에 몇 번씩 분향하였는가?
9) 향을 피우기 위한 숯불을 운반하는 그릇은 무엇인가?
10) 숯불은 어디서 취했는가?
11) 아론의 보조자 중 첫째, 둘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12) 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13) 불이 "이상하다"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4) 나답과 아비후에게 무슨 변이 발생했는가?
15) 죽은 그들의 몸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16)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었는가?
17) 모세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도록 했는가?
18) 향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9) 큰 제단 위의 불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20) "이상한" 또는 거룩하지 않은 불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질문의 답

1) 운반용 교회 2) 아론 3) 그의 네 아들들 4) 큰 제단(번 제단, great bronze); 분향단 (incense)
5) 성막 뜰 (Outer Court) 6) 제물을 바칠 때 (Sacrifices) 7) 성소 (Holy Place) 8) 아침과 저녁에 한번씩 9) 향로 (a censer) 10) 큰 제단 11) 나답과 아비후 12) "이상한" 불 또는 거룩치 않은 불을 드렸음 13) 타당치 않음 14) 불이 그들을 죽임 15) 진영 밖으로 끌어내졌음 16) 슬퍼하지 말라 17) 불에 타 죽은 자들을 위해 통곡하라고 18) 기도 19)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20) 이기적인 목적으로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

12
발람

머리말

본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며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다

는 것,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 별을 가지고 점을 쳤던 것, 발람과 동방박사가 같은 고향 출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고대 말씀을 계속 받아왔다는 것 등을 알아본다.

성 서 본 문: 민수기 22, 23, 24장

22장: 1. 이스라엘 백성은 또 길을 떠나 예리고 근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2. 시뽈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3.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가 너무나 많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려 4. 미디안 장로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소가 들풀을 뜯어 먹듯이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때 모압 왕은 시뽈의 아들 발락이었다. 5. 그는 큰 강 가, 아마윗 사람들의 땅 브돌로 사절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오게 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금 나의 접경에까지 와서 온 땅을 뒤덮고 있소. 6. 어찌나 많은지 나로서는 당할 수가 없으니,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대가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줄을 나는 아오.” 7.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복채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자 8. 발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에서 하룻밤 묵으시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가부간 대답해 드리리다.” 그래서 모압의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묵었다. 9.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물으셨다. “너를 찾아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10. 발람은 “시뽈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의 보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하며 하느님께 아뢰었다. 11.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으니 어서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쳐서 쫓아 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12.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따라 가지 말라. 또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13.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일렀다. “어서들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야훼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소.” 14. 그리하여 모압의 고관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 와서 발람이 따라 와 주지 않겠다고 보고하였다. 15. 발락은 다시 그들보다도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16.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을 전하였다. “시뽈의 아들 발락의 전갈입니다. ‘나의 청을 거절하지 말고 부디 와 주시오. 17. 잘 대우해 드리리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해 줄 터이니 부디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그의 궁궐에 가득 찬 금과 은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갈 수가 없소.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나는 절대로 나의 하느님 야훼의 명령을 어길 수 없소. 19. 그러나 하룻밤만 여기에 묵어 보시오. 야훼께서 다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알아보리다.” 20. 그 날 밤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21.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섰다. 22. 하느님은 발람이 가는 것을 보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야훼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섰다. 마침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23. 야훼의 천사가 칼을 빼든 채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때려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24. 그러자 야훼의 천사는 다시 포도밭 사이 길을 막고 섰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는데, 25.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벽에 몸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히자 그는 다시 채찍질을 하였다. 26. 야훼의 천사가 더 다가서며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몸을 뺄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몰아 세웠다. 27. 나귀가 야훼의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털썩 주저앉자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28. 마침내 야훼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하였다.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29.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었으면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하고 말하자 30.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오늘날까지 당신은 나를 줄 곧 타고 다니셨는데 내가 언제 주인께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없었다.” 31. 그 때에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셨다. 그제야 야훼의 천사가 칼을 뽑아 든 채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본 발람은 고개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32. 야훼의 천사가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너는 네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렸느냐? 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너를 막아 선 것이다.
33.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내 앞을 피했기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나귀만 살려 주고 너는 이미 죽였을 것이다." 34. 발람이 야훼의 천사에게 아뢰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아서 계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는 길이라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35. 야훼의 천사가 발람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한다"하고 말하자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36.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논강 가 국경 도시 아르모압에 이르러 그를 맞으며 37.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도 왜 오지 않으셨소? 내가 당신을 잘 대우해 드리지 못할 줄 아셨소?" 38.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못합니다." 39. 발람은 발락과 동행하여 후솟 마을에 이르렀다. 40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따라 온 고관들에게도 보내 주었다.
41. 아침이 되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가 끝까지 내려다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23장: 1.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일곱을 쌓고 중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잡아 오시오." 2.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3. 그러자 발람이 발락에게 부탁하였다. "자리를 뜨지 마시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내가 갔다 오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 주시든지 그대로 알려 드리리다." 그리고 그는 꼭대기로 올라갔다. 4. 마침 하느님께서 발람을 찾아 오셨다. 발람이 아뢰었다. "일곱 제단을 쌓았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5. 야훼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이르셨다. "발락에게로 돌아 가 이러이러하게 일러라." 6. 발람이 발락에게 돌아 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 옆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7.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 왔겠다. 모압 임금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 왔겠다. 와서 제 편이 되어 야곱을 저주해 달라고, 와서 제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욕해 달라고

하였지만 8.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야훼께서 욕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욕하랴. 9. 이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다보고 이 언덕에서 굽어보니, 아, 저 백성, 남과 섞여 살지 않는 민족, 과연 만방에 견줄 데 없는 민족이구나. 10.야곱은 티끌 같아 헤아릴 수 없고 이스라엘은 먼지 같아 셀 수도 없구나. 내 목숨이 올바른 사람처럼 끝났으면! 내 여생도 그들과 같았으면!" 11.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웬일이오?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청해 왔는데 도리어 복을 빌어 주다니!" 12. 발람이 발락에게 "야훼께서 내 입에 담아 주신 말씀 말고 무슨 말을 하란 말이오?" 하고 대답하자 13. 발락은 그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였다. "저자들이 다 보이지 않고 조금만 보이는 곳으로 갑시다. 거기에서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14. 그러면서 그는 비스가산 꼭대기 감시소가 있는 곳으로 발람을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도 그는 제단 일곱을 쌓고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15.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내가 저리로 가서 야훼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자리를 뜨지 말고 이 번제물들 옆에 서 계시오." 16. 야훼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어 그의 입에 말씀을 담아 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하여라"하고 일러 주셨다. 17. 발람이 그에게로 돌아 와 보니, 그는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번제물을 떠나지 않고 지켜 서 있었다. 발락은 야훼께서 뭐라고 하시냐고 발람에게 물었다. 18.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으시오. 시뽈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19. 하느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하실 리도 없고 사람의 아들처럼 변덕을 부리실 리도 없으시다오.
말씀만 하시고 그대로 하지 않으실 리 없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으시다오.
20. 그런데 여보시오. 그가 복을 주시는데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가 복을 주시는데 뒤엎을 수 없는 노릇 아니오?
21. 야곱에겐 재앙일랑 보이지도 않는군요. 이스라엘에겐 불행일랑 비치지도 않는군요. 그들을 보살피시는 야훼 하느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소리 우렁차군요. 22.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뿔처럼 그들을 지켜 주시는군요. 23. 야곱을 꺽을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칠 술법이 없소이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에게 말하리다. '하느님께서 이렇듯이 큰일을 하셨구나'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리다. 24.보아라, 사자처럼 일어나는 백성을! 사자처럼 한번 몸을 일으키면 잡아먹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잡은 짐승의 피를 다 핥지 않고는 눕지 않는구나." 25.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내었다. "좋소!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오. 그러나 축복도 하지 마시오." 26.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일러 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7.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청하였다. "내가 당신을 다른 데로 모시겠소. 그리고 갑시다. 행여 그 곳이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들을 저주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28.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브올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29. 발람이 발락에게 일렀다. "여기에 일곱 제단을 세우고 중숭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마련해 오시오." 30.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제단마다에 중송아지와 수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24장: 1.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 주는 것을 야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전처럼 징조를 찾아 나서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2.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3. 그는 푸념하듯이 이렇게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4.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환상으로 뵙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5. 야곱아, 너의 천막들이 과연 좋구나! 이스라엘아, 네가 머문 곳이 참으로 좋구나!
6. 굽이굽이 뻗은 계곡과 같고
강물을 끼고 꾸며진 동산 같구나. 야훼께서 손수 심으신 느티나무와 같고 물가에서 자라는 송백 같구나. 7.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 나와 땅에 뿌린 씨가 물을 듬뿍 먹는구나. 임금은 아각을 누르리니 국위를 널리 떨치겠구나. 8.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것들을 이끌어 내신 하느님께서 들소 뿔처럼 지켜 주시어 적국을 집어 삼키고 그 뼈들을 짓부수고 옆구리를 찌르는 구나.
9.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는데 그 사자 같은 자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랴! 누구든지 너에게 복을 빌어 주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10. 발락은 울화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원수들을 저주해 달라고 너를 불러 왔는데, 너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11. 당장 너

살던 데로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잘 대우해 주겠다고 했지만, 너는 야훼 때문에 부귀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12.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나에게 보낸 사절들에게 내가 분명히 말해 두지 않았습니까? 13. 발락이 궁궐에 가득 찬 은과 금을 준다고 하여도 나는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야훼께서 몸소 주시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4. 이제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마당에, 후일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나 알려 드리리다." 15. 그리고 나서 그는 푸념하듯이 읊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천리안을 가진 사내의 말이다. 16.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말이다. 지존하신 이의 생각을 깨치고 하는 말이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환상을 뵙고 엎어지며 눈이 열려 하는 말이다. 17.이 눈에 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러나 당장 있을 일은 아니다. 그 모습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나 눈앞에 다가 온 일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솟는구나. 이스라엘에게서 한 왕권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모압 사람들의 관자놀이를 부수고 셋의 후손의 정수리를 모조리 부수리라. 18. 에돔은 그의 속국이 되고 세일은 그의 차지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힘이 뻗치고 19.야곱은 원수들을 지배하며 아르에서 빠져 나온 피난민을 멸절시키리라."
20.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 첫째라더니, 결국은 아주 망하고 말겠구나."
21 .또 그는 켄족을 바라보며 푸념하듯이 읊었다. "네가 사는 곳은 견고하건만, 바위틈에 보금자리를 틀어 올렸건만,
22. 카인은 타 죽고 말리라. 끝내 아시리아에게 털리고 말리라." 23. 그는 또 푸념하듯이 읊었다. "아, 누가 과연 살아 남으랴! 24.함대가 기띰 쪽에서 온다. 그들은 아시리아를 누르고 에벨을 누르겠지만 그들도 결국 망하고 말리라."
25. 그리고 발람은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교리 요점

* 고대 교회의 말기에 상응에 관한 지식이 악용되었는데 그것이 성서에 등장하는

마술의 시작이다.

* 우리가 주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바르게 살기위해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

해설

민수기(Numbers)라는 책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산으로부터 출발하기 전, 주님이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부분은 사람의 수를 세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제 10장부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서 걷히고 캠프를 거둠으로 행군을 시작하게 된다. 나머지 부분은 그들의 여행에 관한 내용이다. 주님에 대한 불평, 반역, 그리고 불신으로 인해 그들은 마지막 캠프인 "예리고 근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 평야"에 도착 하는데 까지 무려 40여 년이 걸렸다.

그들은 여정 동안 많은 적을 무찔렀다. 그들은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족은 해치지 않도록 주님에 의해 명령되었는데, 이것은 그 백성들이 그들의 혈육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압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백전백승함을 알고 그들을 두려워했다.

많은 교인들이 발람과 그의 나귀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주는 깊은 교훈을 알기 위해 세심하게 읽는 이는 드물다. 발람은 아람 (시리아) 즉 "동편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 출신이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 역시 이 지역 출신이다. 이곳은 고대 말씀에 관한 지식이 보존되어 온 지역이기도 하다. 성경의 제 11장까지의 말씀은 고대 말씀으로부터 취해져 있다. 본문 24장 17절에서 발람이 별(star)로 예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방박사들도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고대 말씀에서 온 지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러나 발람은 이러한 지식을 이기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도 말씀의 진정한 목적 대신 스스로의 명예나 영향력을 얻기 위해 성서로부터 온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발람은 발락이 제공한 대가(보수)에 솔깃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어떤 능력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게 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알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옳은 선택만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시지는 않는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기 전에 명백하게 알게 해주신다. 그 후에 우리가 만약 해서는 안 될 것을 선택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주님은 경고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결정한 해서는 안 될 일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 멈추고 생각하게 해 주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이기적 노력의 방향이 바뀌게 하거나 우리의 이기적 노력으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앞서,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했다. 나귀는 우리의 자연적 추론 또는 상식에 해당 된다. 만일 우리가 귀를 늘 열어두고 산다면 말씀에 대한 깊은 공부가 없는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기적인 노력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오늘 성서의 본분에서와는 달리 나귀는 인간의 말을 하지는 못한다. 다만, 나귀가 갖는 상응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나귀의 입을 통하여 발람에게 들린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볶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3762항)」: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서" (Jacob lift up his feet, and went to the land of the sons of the east)-(본 단원은 위의 밑줄 친 부분만의 주석임.) 이 부분은 사랑에서 나오는 진리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 가지는 의미에서 파악할 수 있다. 아람 또는 시리아가 동방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불리어지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향한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시리아는 선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하나, 특별히 큰 강가의 시리아 (Aram-Naharaim, Syria of the rivers)는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진리들, 즉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지식들은 인간이 거듭날 가능성이 보여지기 전에 이미 습득 되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이 진리들이 인간의 마음에 인식되어 믿어지고 있었음 또한 명백하다.

즉 인간은 이 진리들을 인식하고 믿어 생활 안에 실천한 만큼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만큼 진리를 인간의 자연성 즉 자기 고유의 터(ground)에 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경배하러 온 박사들도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주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지식을 가졌고 또 동방에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주님의 탄생을 알았던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고대시대 때부터 이와 같은 예언적 지식이 시리아 지역 즉 동방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했었음은 주님의 강림에 관한 발람의 예언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민수기 24:17). 발람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 즉 시리아로부터 왔음은 다음의 말들로서 명확해 진다: "발람은 푸념하듯이 읊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왔겠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민수기 23:7)."

질문 정리

1) 광야 여행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인가?
2) 이스라엘 후손들은 몇 년간 광야에서 배회했는가?
3)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영 지는 어디인가?
4) 이스라엘 후손들이 오는 것에 두려워했던 왕은 누군가?
5) 발락은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가?
6) 발락은 발람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7) 발람은 그의 힘을 누구에게서 구했는가?
8) 주님은 발람에게 맨 처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9) 발락이 두 번째 사신을 발람에게 보냈을 때, 주님은 무었을 말씀하셨는가?
10) 길을 가는 도중 발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1) 발람은 발락에게 어떤 준비를 하라고 했는가?
12) 발람은 이러한 제단이나 제물을 바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13) 발람은 이스라엘을 몇 번이나 저주하려 했는가?
14) 그때 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5) 발람은 이스라엘을 왜 저주할 수 없었는가?

16) 발람은 어떤 특별한 예언을 했는가?
17)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 수 있었는가?
18) 발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
19) 나귀는 무엇을 표현 하는가?
20) 이스라엘 진영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질문의 답

1) 구름기둥과 불기둥 2) 40년간 3) 모압 평야 4) 발락(모압왕) 5) 발람 6)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7) 하느님으로부터 8) 저주하러 가지 말라고 9) 내가 주는 말만 말하라고
10) 천사가 그의 나귀를 놀라게 했다 11) 일곱 제단과 제물로서 증송아지와 수양들 12) 상응에 관한 지식으로 13) 세 번 14) 저주가 축복으로 바뀜 15) 악한 의도 속에는 진정한 힘이 없기 때문 16) 별에 관한 예언 17)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18)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 와중에 살해 됨 19) 자연적인 이성이나 상식으로 추론함 20) 진실로 잘 정렬된 삶 즉 삶의 중심을 주님을 예배하는데 두는 상태

13
예리고 성의 정복

머리말

요르단 강을 건너는 광경을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교해 본다. 길갈에서 돌을 세우는 것, 과월절 축제 그리고 만나의 공급이 중지된 것 등도 염두 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1장부터 5장까지를 읽어 두면 본과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용이할 것이다.

성서 본문: 여호수아 6장

6장: 1. 예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굳게 닫혀 있어 드나드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2.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예리고와 그 왕을 네 손에 붙인다. 굳센 용사들아, 3. 너희 모든 군인들은 날마다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돌아라. 4. 사제 일곱이 각기 수양뿔 나팔을 들고 궤 앞에 나서라. 이렛날에는 이 성을 일곱 번 돈 다음 사제들이 나팔을 불어라. 5. 그 수양뿔 나팔 소리가 나면 백성은 다 같이 힘껏 고함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때 전군은 일제히 쳐들어 가거라.” 6.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들을 불러서 일렀다. “계약궤를 메고 나서시오. 일곱 사제는 수양 뿔 나팔 일곱 개를 가지고 야훼의 궤 앞에 나서시오.” 7. 그리고나서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행동을 개시하여라. 이 성을 돌아라. 정예부대는 야훼의 궤 앞에 나서라.” 8.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일곱 사제가 수양 뿔 나팔 일곱 개를 가지고 야훼 앞에 나서서 불었다. 그 뒤를 야훼의 계약궤가 따랐다. 9. 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는 정예부대가 행군하고 그 궤 뒤를 후위부대가 따라 가는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고함을 지르지 말라. 작은 소리도 내지 말라. 한 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다가 내가 고함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 때 고함을 질러라.” 11. 그는 야훼의 궤를 모시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한 다음 진지로 돌아 와 그 밤을 진지에서 보내게 하였다. 12.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사제들은 야훼의 궤를 메고 나섰다.
13. 일곱 수양 뿔 나팔을 가진 일곱 사제가 야훼의 궤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면, 정예부대가 그들 앞에 서서 행군하였고 후위부대는 야훼의 궤 뒤를 따랐다.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14. 둘째 날도 그들은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지로 돌아 왔다. 이렇게 하기를 엿새 동안 하였다. 15. 이렛날이 되어 새벽 동이 트자 그들은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일곱 바퀴 돌았다. 그 날만 성을 일곱 바퀴 돈 것이다. 16. 일곱 번째 사제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쳤다. “고함을

질러라.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17. 저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야훼께 바쳐 없애 버려라. 다만 창녀 라합의 목숨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만은 살려 두어라. 그 여자는 우리의 사명을 띠고 갔던 사람들을 숨겨 주었다. 18.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라. 없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없애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 그랬다가는 전멸당하는 운명을 이스라엘 진영에 스스로 불러들이게 된다. 19. 은이나 금이나 동제품이나 철제품은 모두 야훼께 드릴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야훼의 금고에 넣어야 한다." 20.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고 나팔 소리는 올려 퍼졌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은 "와"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은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 가 성을 점령하였다. 21.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소건 양이건 나귀건 모조리 칼로 쳐 없애 버렸다.
22.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일렀다. "그 창녀의 집에 들어 가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려 오너라." 23. 정탐원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그 집에 들어 가 라합과 그의 부모와 오빠들뿐 아니라 그에게 딸린 일가친척을 모두 이스라엘 진 바깥 안전한 곳으로 데려 내 왔다. 24. 그리고는 성에 불을 질러 그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태워 버렸다. 그러나 은과 금, 동제품과 철제품은 야훼의 금고에 넣었다. 25. 창녀 라합과 그의 가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만은 여호수아가 목숨을 살려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 여자가 예리고를 정찰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을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26. 그 때 여호수아가 맹세하였다. "이 성을 다시 짓겠다고 나서는 자는 야훼께 저주를 받으리라. 맏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기초를 놓지 못하고 막내아들을 죽이지 않고는 성문을 달지 못하리라." 27. 야훼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시니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교리 요점

* 모든 선과 진리는 주님에게만 있으며 심정으로 이를 인식하는 것이 거듭나는 삶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이다.
* 시험에 부딪친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함에 있어 지속적이며 신실한 자세로 행해야 한다.

해설

여호수아서는 신명기 다음에 나온다. 신명기서의 이름은 "두 번째 법" 또는 "법을 반복함"이라는 의미이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후손을 위하여 주었던 법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그들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상기하며 엄숙한 자세로 법을 지켜 나갈 때 번영하며 주님에 의해 보호받고 축복되어지므로 죽음과 악 대신 생명과 선을 선택하라는 의무가 담겨 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 약속되어진 땅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이스라엘 후손의 마지막 진영 근처인 느보산 꼭대기로 인도되었고 그 아래 펼쳐 있던 약속된 땅을 보게 된 후 죽었다.

모세의 지도권은 여호수아에게 승계 되었다. 여호수아는 광야여행 때에 모세의 보조자였으며 전투가 있을 때 마다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였다. 여호수아가 주님의 엄숙한 임무를 이스라엘의 후손들 앞에서 받는 광경을 떠올려 보자. 여호수아는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땅을 정복했고 각 부족의 위치를 구역별로 할당하여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이다.

요르단강은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주님에 의해 갈라졌고 주님의 능력은 하느님이 직접 새긴 돌판을 담은 궤를 통해 그 순간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 후 그들은 견고한 예리고성에서 멀지 않은 길갈에 진영을 만들고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더불어 과월절을 기념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되어서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들에게 중지 되었다.

다음으로는 예리고성이 주님의 기적으로 함락되는 놀랄만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기적은 주님이 그들의 정복 초기에 모든 힘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며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고자 하신 배려이다.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면 승리했고 불순종하면 패배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후에도 여러 번 그들에게

입증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약속된 땅 즉 천국에 두고자 희망하며, 이 땅은 우리에게 정복되어 지도록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유전적 이기심 즉 자아중심적인 마음으로 인해 이 정복은 긴 투쟁에 의해서만 이뤄진다. 그 땅에 있는 적들은 악으로 향하는 우리의 자연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튼튼한 거짓이라는 성벽과 시험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궤를 따른다면 즉 주님으로부터 극복할 힘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하여 계명을 성실하게 지켜간다면,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700항 15번- 17번」: "예리고성이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알게 된다. 그 이유가 예리고는 요르단 강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으며 요르단 강은 교회로 들어가는 입문적인 가르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의 모든 장소들은 교회에 속한 천적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데 이것은 태고시대 때부터 그러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교회를 표현하게 됨으로서 그들 지역에서 말씀이 기록되었으며 가나안 지역의 장소들은 천국과 교회 속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도록 언급되어졌다. 이러한 연유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말씀이 가르쳐 졌다. 그들이 말씀에 입문하는 것이 「요르단 강」으로 상징되고, 그에 대한 가르침이 「예리고」에 의해 상징된다. 「예리고」는 가르침(instruction)을 상징함으로 생활의 선도 상징한다. 그 이유는 삶에서의 선이 없는 사람은 교리에서 비롯되는 진리를 배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나안의 땅이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에서는 그 땅에 있는 성들이나 지역들의 의미가 정반대로 되어 버린다. 이때의 예리고는 선과 진리에 대한 모독을 상징한다. 이렇게 됨으로서 가나안 땅의 도시는 교회의 선과 진리를 악용하고 모독하는 악과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교리를 상징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리고의 성벽은 그릇된 교리를 수호하는 악으로부터 나온 거짓들을 상징한다. 그곳의 거주민들은 신성모독을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모든 신성모독은 선과

진리를 인식한 후에 있게 되는 지옥적인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성은 불에 태워졌고, 주민들은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성벽은 허물어져야만 했는데 그이유가 불은 지옥적인 사랑을, 저주는 완전히 소멸됨을, 그리고 성벽이 무너짐은 악과 거짓이 드러남을 뜻하기 때문이다. 사제들이 부는 나팔 소리란 하느님의 선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진리가 선포됨을 의미한다. 사람의 환호와 고함은 만족과 확증을 의미한다. 성을 도는 것은 우리 안의 악과 거짓을 성찰하고 주님으로부터 있는 하느님의 진리가 유입되어 악과 거짓이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입(influx)의 의미는 유입물을 담은 궤를 메고 성을 도는 것이다. 일곱 사제가 그 성을 칠일 동안 돌고 칠일 째 되는 날 일곱 번 돌았다는 구절은 거룩한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것은 하느님의 진리의 거룩한 선포인 것이다. 숫자 칠은 거룩을 의미하고 이것의 반대는 신성모독을 뜻한다. 금, 은, 동 그리고 철기들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금고에 넣어졌는데, 이것은 금속이 영적 또는 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금과 은은 영적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므로 모독을 일삼는 자들이 이것들을 사용하면 혐오스러운 악과 거짓으로 둔갑된다. 하지만 이 지식이 비록 악에 이용되었더라도 선한 것에 다시 응용되면 선을 섬길 수 있게 되므로 여호와의 집에 있는 금고에 넣어진 것이다."

질문 정리

1) 어떤 강이 이스라엘백성을 거룩한 땅으로부터 분리시켰는가?
2) 그들은 어떻게 이 강을 건넜는가?
3) 거룩한 땅에서의 그들의 첫 진영은 어디인가?
4) 그곳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는가?
5) 그들이 먹던 음식은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6) 그들이 정복해야 하는 첫 번째 성의 이름은 무엇인가?
7) 그 성 주위를 돌 때 무엇을 메고 돌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8) 궤 앞에 선 사제들은 몇 명이었는가?
9) 사제들은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

10) 육일 동안 하루에 몇 번 성을 돌았는가?
11) 칠일 째 되는 날 성을 몇 번 돌았는가?
12) 마지막으로 그들이 나팔을 불고 고함을 지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13) 그 성안에서 살아남은 것은 무엇인가?
14) 그 밖의 성에 있는 것을 어떻게 되었는가?
15) 여호수아에 의하여 말해진 저주의 내용은 무엇인가?
16) 거룩한 땅에 들어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 예리고의 의미는 무엇인가?
18) 주님은 왜 예리고성을 정복하게 해주셨는가?

질문의 답

1) 요르단강 2) 기적에 의하여 3) 길갈 4) 과월절 5) 만나가 중지되고 그 땅의 소출을 먹음
6) 예리고 7) 궤 8) 일곱 명 9) 수양 뿔 나팔 10) 하루에 한번 11) 일곱 번
12) 성벽이 무너짐 13) 라합과 그녀의 가족 및 금속들 14) 파괴해 버렸음
15) "이 성을 다시 짓는 자는 두 아들을 잃을 것이다" 16) 거듭나는 생활의 시작
17) 자연적인 자만
18) 자만으로 빠지려는 경향은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정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14
드보라와 바락

머리말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자취를 살펴보고 판관기 시대의 특성을 설명한다. 본장을 공부하면서 꼭 배워야할 중요한 점은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진리를 꾸준히 배우지 않고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나는 충분히 알고 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 하고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성 서 본 문: 판관기 4장

4장: 1. 에훗이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2. 그래서 야훼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겨 주셨다. 그의 군대 지휘관은 하로셋하고임에 사는 시스라라는 자였다. 3. 야빈은 철병거를 구백 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이십 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울부짖었다.
4. 그 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판관은 라삐돗의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였다. 5. 그가 에브라임 산악지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자리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6. 이 드보라가 납달리 케데스에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 놓고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너는 납달리 지파와 즈불룬 지파에서 만 명을 뽑아 다볼산으로 이끌고 가거라. 7. 그러면 나는 야빈의 군대 지휘관 시스라를 키손강으로 유인해 내겠다. 내가 그의 전군을 병거대까지 유인해 내다가 네 손에 붙이리라.'"
8. 바락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신다면 가겠지만,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못 가겠습니다." 9. 드보라는 "내가 꼭 함께 가겠소. 하지만 이번 길에서 그대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알아 두시오.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오"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갔다. 10. 바락이 즈불룬과 납달리 지파를 케데스로 출동시켰다. 만 명이나 되는 부대가 그의 뒤를 따라 올라 가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11.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켄 사람 헤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문중에서 떨어져 나가 케데스 근처 사아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
12.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전해들은 시스라는 13. 구백 대나 되는 철병거까지 합친 전 군대를 하로셋하고임에서 키손강으로 출동시켰다.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렀다. “행동을 개시하시오. 이 날은 야훼께서 시스라를 그대 손에 붙이시는 날이오. 정녕 야훼께서 그대 앞에 서서 전진하실 것이오.” 그리하여 바락은 만 명 부대를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 내려갔다. 15. 야훼께서 시스라가 거느린 그의 전병거대와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16.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로셋하고임까지 따라 가며 추격전을 벌였다.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칼에 맞아 쓰러졌다. 17. 한편 시스라는 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을 향해 뛰어 도망쳐 갔다. 하솔 왕 야빈과 켄 사람 하벨 가문은 서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18. 야엘이 시스라를 나와 맞으며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나리. 어서 들어오십시오. 마음 놓으십시오.” 시스라가 그의 천막에 들어오자 야엘은 담요로 그를 덮어 주었다. 19.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다.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부대를 열어 좀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자, 20. 시스라는 야엘에게 부탁하였다. “천막 문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없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해 주오.” 21. 헤벨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기진맥진하여 정신없이 자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22. 때마침 바락이 시스라를 추적하여 왔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입을 열었다. “들어 와 보십시오. 장군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락이 들어 가 보니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죽어 쓰러져 있었다. 23.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 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기세를 꺾으셨다. 24. 그 후로 가나안 왕 야빈은 점점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눌리다가 마침내 망하고 말았다.

교리 요점

* 주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통해 구원하신다.

*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지 않고도 의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이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시련에 빠지게 된다.

해설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땅에서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정복 전쟁을 하였는데 중앙, 남쪽 그리고 북쪽 세 곳으로 나누어 수행했다. 전쟁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적들을 복종시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 뒤 그들은 땅을 분할하였고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할당하였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시험을 어느 정도 이겨내어 거듭남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 했을 때, 우리 안의 모든 자질들이 삶의 설계에 따라 각기 적당한 위치에 앉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시점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누구나 범하기 쉬운 실수이다. 그들은 적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고 승리를 과신하여 더욱 굳건히 스스로를 단속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이와 더불어,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 적이었던 사람들과 결혼을 허용했고 또한 이방인들의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여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며 시정함을 멈추게 됨으로써 부주의함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

우리의 영적 부주의함은 이미 극복해 버렸다고 인식하고 있던 악들이 예전보다 더 강하게 자라서 튀어나올 기회를 준다. 이것이 가나안 땅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차례로 일어나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상징된다.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움을 원한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매번 곤경에 처하면 주님에게로 돌아갔고, 주님은 그들을 언제나 도우셨다. 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지도자를 세우셨다. 지도자들은 지방적이며 일시적이었으며 판관(Judge)이라 불렸다. 판관은 어떤 특별한 진리를 의미한다. 이 특별한 진리는 주님께서 하나의 시험에 처한 우리를 위해 그 상황에 맞게 보내시는 진리를 말하는데 이 진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이미 들어 있는 말씀에서 끄집어내신 진리로 우리가 처한 시험을 유발한 악과 거짓에 대항하여 싸우게 될 특별한 진리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판관 드보라는 전투를 직접 지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대장군인 바락을 지도 감독하고, 그를 축복하여 그로 하여금 적을 이기게 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의를 구하려는 단순한 바램이 우리들 속에서 올라오고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실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진리는 우리를 지도 감독하며 축복하여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험에 이기도록 우리를 노력시키며 천국적 삶 안에서 우리를 재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야엘(Jael)의 단호하고 잔혹한 행동과 그 행동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잔혹한 행위 자체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져온 결과를 축복하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선용하셔서 악한 경향성과 심정과 지성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사고에 대해 한 치의 양보도 없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악한 경향성이 일어나려 할 때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야엘처럼 때려 눕혀야 한다. 그래서 계명에 사용된 어귀 “.....하지 말라”는 야엘의 손에 든 천막 말뚝과 같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5280항 2번과 3번)」: “인간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재구성이 있어야 하며, 재구성은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이유가 사람은 말씀에서 또는 교리로부터 선(good)이 무엇인지 배워야하기 때문이다. 말씀 또는 교리로부터 비롯된 선에 관한 지식을 다른 말로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들(truths of faith)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믿음에서 비롯된 모든 진리는 선에서 흘러나와서 선으로 흘러가게 되며 진리들은 선을 그 궁극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거듭남 이전에 있어져야 하는 재구성의 상태를 첫 번째 상태라고 한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초등부와 중, 고등부 때에 자연스럽게 이 재구성의 상태로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아주 소수만이 거듭남을 이룬다. 그 이유가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들을 배움에 있어서 명성, 명예 또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배우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또는 이기적인 애착이 가득한 사람은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배우게 되더라도 이러한 잘못된 애착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거듭나지거나 새로 태어날 수가 없다. 잘못된 애착들이 제거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험(temptation)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세상적인 또는 이기적인 애착은 지옥에 사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지옥의 악령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활발해 진다. 반면에 유아기의 순진한 상태 안에 주입되어졌고 그 후 내면 깊은 곳에 저장되어지고 시험의 상태에 들게 될 때를 위해 보존 되어진 선과 진리에 대한 애착(affections)들은 천사들에 의해 활성화 된다. 그 결과가 악한 영들과 천사들의 충돌(conflict) 즉 전쟁으로 인간에게는 이것이 시험으로 느껴진다."

질문 정리

1) 여호수아는 일생동안 무엇을 성취했는가?
2) 거룩한 땅은 어떻게 지파 별로 분할 되었는가?
3) 여호수아를 바로 계승한 지도자가 있었는가?
4)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5) 그 결과는 무엇인가?
6) 그들이 주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는 가?
7) 주님께서 일으켜 세운 지도자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8) 여판관은 누구인가?
9) 여판관 당시 어떤 적이 공격했는가?
10) 그 적의 대장은 누구였는가?
11) 드보라가 세운 이스라엘 군대의 지도자의 이름은 무엇인가?
12) 어떤 조건하에 그는 군대를 이끌었는가?
13) 어떤 지파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뽑았는가?
14) 전투는 어디서 벌어졌는가?
15) 누가 승리했는가?
16) 시스라는 어디로 피신하여 누구에게 숨겨 달라고 했는가?
17) 그 여자는 시스라를 어떻게 했는가?
18) 판관 시대는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묘사하는가?

19) 북쪽에 있는 적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20) 천막 말뚝은 무엇을 뜻하는가?
21) 야엘의 영적 뜻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거룩한 땅을 정복했다 2) 제비 뽑아서 나누어짐 3) 없다 4) 주님을 잊어버림 5) 많은 적들이 그들을 괴롭힘 6) 지도자를 세워 주셨다 7) 판관 8) 드보라 9) 야빈 10) 시스라 11) 바락 12) 만일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13) 납달리, 스블론 14) 키손강 근처 15) 이스라엘 16) 야엘 17) 그를 죽였음 18)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모습 19) 거짓 사상을 생산해 내는 시험 20) 예배와 일상생활을 묶어주는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단순한 진리 21)이스라엘(천적인 천국)을 돕는 사람, Help for Israel, Help for the Celestial.

15
사무엘의 출생

머리말

판관시대의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재정리한다. 판관시대의 마지막 판관으로서 이스라엘 전 지파가 인정한 판관은 사무엘 이였음을 기억하자. 또한 어린 시절 사무엘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의 후기 업적들이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도 유의하자.

성서 본문: 사무엘상 1, 2장 1-11절

1장: 1. 에브라임 산악지대에 엘카나라는 수브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라마다임 출신으로서 에브라임 사람 수브의 현손이요, 도후의 증손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여로함의 아들이었다. 2. 그는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두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3. 엘카나는 해마다 자기의 성읍을 떠나 실로로 올라 가 만군의 야훼께 제사를 드려 예배하였다. 실로는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야훼를 모시고 사제 일을 보고 있는 곳이었다. 4. 제일이 되면 엘카나는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을 몫몫이 나누어 주었다. 5. 그러나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6. 게다가 적수 브닌나는, 야훼께서 잉태하게 해 주시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 한나를 더욱 괴롭혔다. 7. 엘카나가 매년 야훼의 신전에 올라 갈 적마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목이 메어 먹지를 못했다. 8. 남편 엘카나는 한나를 보고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오? 내가 당신한테는 아들 열보다도 낫지 않소?"하며 위로해 주었다. 9. 실로에서 젯상을 물리고 나자 한나는 일어나 야훼 앞에 나아갔다. 그 때 마침 사제 엘리가 야훼의 성전 문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10.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11. 그는 서원을 하며 빌었다. "이 계집종의 가련한 모습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 계집종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야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한나가 야훼께 오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13. 한나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가 한나를 술취한 여자로 알고, 14. "언제까지 이렇게 주정을 하고 있을 참이냐? 어서 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겠느냐?"하고 꾸짖자 15. 한나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사제님!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포도주도 소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훼께 제 속을 털어 놓고 있습니다. 16 사제님, 이 계집종을 좋지 못한 여자로 생각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이제껏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7. “그럼,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느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다.” 엘리가 이렇게 말하자, 18. 한나는 “그렇게까지 보아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하면서 물러나와 음식을 먹었다. 그 얼굴에는 어느덧 수심이 걷히었다.
19. 엘카나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식구들과 함께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 왔다. 엘카나가 아내 한나와 한자리에 들자, 야훼께서 한나를 마음에
두시어 20. 임신하게 해 주셨다. 한나는 달이 차서 아들을 낳자 “야훼께 빌어서 얻은
아기”라고 하여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 21. 엘카나, 그 사람이 식구들을 이끌고
다시 야훼께 주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22. 한나는 따라 나서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기가 젖을 떼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야훼를 뵙겠습니다.
그리고 영영 거기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23. “당신 좋을 대로 하구료. 젖뗄 때 까지
집에 남아 있으시오. 야훼께서 부디 당신의 서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는
남편 엘카나의 허락을 받고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키우게 되었다. 24. 이윽고
젖을 떼자 한나는 아기를 데리고 나섰다. 삼 년 된 황소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에다
가죽부대에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야훼의 성전으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다. 25. 일행은 소를 잡고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 갔다. 26.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사제님,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제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바로 이전에 여기 사제님 앞에서 야훼께 기도를 드리던 여자입니다. 27. 이
아이는 기도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제가 야훼께 애원했더니, 야훼께서 소원을 들어
주셨습니다. 28.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야훼께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야훼께 맡기고 싶습니다.” 그러자 일행이 거기 야훼 앞에 엎드리고,

2장: 1.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올렸다. “내 마음은 야훼님 생각으로 울렁거립니다.
하느님의 은덕으로 나는 얼굴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내 가슴에 승리의 기쁨을
안겨 주시니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2. 야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으
십니다. 당신밖에는 없으십니다. 우리 하느님 같은 바위는 없으십니다. 3. 잘난 체
지껄이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말아라. 야훼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아시는 하느님, 저울질하시는 하느님이시다.
4. 힘있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비틀거리던 군인은 허리를 묶고 일어나게 되리라.
5. 배불렀던 자는 떡 한 조각 얻기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되리라. 아이 못 낳던 여자는 일곱 남매를 낳고 아들 많던 어미는 그 기가 꺾이리라. 6.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사를 쥐고 계시어 지하에 떨어뜨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7. 야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가멸지게도 하시며 쓰러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신다. 8.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잿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들어 높이셔서 귀인들과 한 자리에 앉혀 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밑동은 야훼의 것, 그 위에 세상을 지으셨으니 9. 당신을 따르면 그 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지만 불의하게 살면 앞이 캄캄해져서 말문이 막히리라. 사람이 제 힘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법, 10. 야훼께 맞서는 자는 깨어지리라. 지존하신 이께서 하늘에서 천둥소리로 우렁차게 호령하신다. 야훼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 당신께서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의 이름을 떨치게 하신다." 11. 한나는 사제 엘리 밑에서 야훼를 모시도록 아이를 거기에 남겨두고 라마로 돌아갔다.

교리 요점

* 주님을 예배함을 중심으로 인생을 체계화해야 한다.
* 우리는 단순한 믿음과 순종에 관한 어린 시절의 심정상태를 회복시켜 보존해야 한다.

해설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는 구약성서 중에서 아주 사랑 받는 내용에 속한다. 아기를 낳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인의 심정과 만약 아이를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약하는 장면은 모든 여인들에게 쉽게 공감될 것이다. 또한 어린이가 가진 순종적이며 신실한 본성은 모두에게 감동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감동적인 부분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이야기가 전개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소홀함으로써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판관기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했던 것을 얻게 되자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을 쉽게 잊어버

리는 것을 보았다. 계약의 궤와 성막은 판관기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그 땅의 중심인 실로에 성막을 세웠고, 또한 백성들에게 항상 주님을 섬기라고 엄히 당부했다. 본문을 보면, 실로에 성막이 있고 아론의 계보로 내려온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정기적으로 성막에 제물을 바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들에게 예배하는데 빠져 있었고, 보조 사제인 엘리의 아들까지도 부패해져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삶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따라 주일 학교에 참석하고 말씀과 선한 삶에 대해 배우며 훈육되어진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자립하여 살게 되는 데, 그때 우리는 그동안 주일 학교와 부모님께 배운 바른 삶을 살기 보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를 체험한다고 주장하며 방탕하거나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삶 가운데 있는 선한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즉 주님에 대한 예배로부터 떨어져 나가 표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가 우리의 독선적인 마음은 삶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 이미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는 정말로 극복하기 힘든 심각한 시련에 부닥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스스로 느낄 때 까지 계속된다.

우리는 심각한 시련을 맞게 될 때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과 믿었던 것들을 떠올리거나 우리의 단순한 믿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무엘이다. 그는 역전의 용사는 아니었지만 순종적인 아이였다. 그는 후에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사장이 되고 예언자가 되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지도자로서 전 국토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판관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늘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통해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두 왕(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다.

주님께서는 우리와도 늘 동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의존하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주님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뤄짐을 인식해야 한다. 사무엘 시대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주님은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6148항 5-6번)」: "표현적 교회가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 설립되었는 바, 하느님의 선과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진행될 때는 하나 같이 연합하여 표현되었었다. 그러나 전쟁들과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인해 두 가지의 직무들 곧 통치자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들은 처음으로 분리되었다.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지도자들, 나중에는 판관들이라 불렸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사제들이라 불렸는데 사제들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과 레위지파로 이루어졌다. 이후에 두 직무들은 다시 한 사람 안에서 합쳐졌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와 사무엘이다. 표현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설립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 그들은 교회의 껍질, 즉 교회를 흉내냄(교회를 표현만 함) 만이 가능했다. 따라서 두 직무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허락되어 졌고 하느님의 진리 측면에서의 주님은 왕들에 의해 표현되며, 하느님의 선에 관한 측면에서의 주님은 제사장에 의해 표현된다. 이 나누어짐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나 주님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음을 사무엘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사무엘상 8:7 참조) 두 직무들이 원천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선으로부터 분리된 하느님의 진리는 저주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선과 결합된 하느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질문 정리

1) 누가 마지막 판관이었는가?
2) 사무엘의 부모는 누구인가?
3)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는가?
4) 제사장은 누구였는가?
5) 한나는 어떤 서약을 했는가?

6) 그 여자는 그것을 어떻게 지켰는가?
7)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는가?
8)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관기 당시 왜 그토록 곤란을 겪었는가?
9) 사무엘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1) 사무엘 2) 엘카나와 하나 3) 실로 4) 엘리 5) 만일 아들을 갖게 해 주신다면 주님에게 바치겠다고 서약했음 6) 사무엘을 엘리에게로 데려다 주어 살게 했음 7) 실로 8)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9) 어린 시절 우리의 상태 속에 주님이 아껴두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주님의 말씀

16
사울을 선택함

머리말

앞서 했던 성경 공부를 통해 판관시대의 특성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왜 곤란을 겪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무엘상 8장을 읽어 두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이 많은 노인으로 큰 인물이 되어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즉 예언자 또는 선견자가 되었음을 염두 하자.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9;10장

9장: 1. 베냐민 지파에 키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비야의 현손이요 브고랏의 증손이요 스롤의 손자요 아비엘의 아들이었다. 그는 베냐민 사람으로서 유지였다.

2.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깨끗하게 잘생긴 아들이었다. 누구든지 그의 옆에 서면 어깨 아래에 닿았다.
3. 하루는 아버지 키스가 기르던 암나귀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4. 그는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악지
대를 넘어 살리사 지방으로 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시 사알림 지방으로
건너 가 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5. 수브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은 데리고
가던 종에게 "아버지께서는 암나귀 생각보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고 하며 그만
돌아가자고 하였다. 6. 그러자 종이, "이 성읍에는 하느님의 사람 한 분이 살고 있습니
다.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고 다 들어맞는다고 하더군요.
그에게 가면 우리가 찾는 것을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줄지도 모릅니다"하고
말하였다. 7. 사울이 종에게 물었다. "간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가지고 가겠느냐?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그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릴 복채가 없으니,
무엇을 드리면 좋겠느냐?" 8. 종이 대답하였다. "여기 저에게 은 사분의 일 세겔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님의 사람에게 드리면,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을지 알려 줄
것입니다." 9. 그러자 사울은 종에게, "됐다. 네 말대로 어서 가자"하며 하느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다. 10.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느님께 물어 보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선견자에게 가자고 하였다. 오늘날 예언자라는 사람을 전에는 선견자라
고 하였다.
11. 사울은 종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 그 성으로 가다가 물을 길으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여기에 선견자가 한 분 계시다지?" 하고 물었다. 12.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예, 그분이 저 앞에 가십니다. 오늘 산당에서 이 성의 제사가 있어서 방금 도착하셨습
니다. 13. 성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산당으로 음복하시러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고 그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한 다음에야 손님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가시면 곧 만나실
것입니다."
14.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성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성 안에 막 들어서려는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 가다가 그들과 맞부딪치게 되었다. 15.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당신의 뜻을 밝히셨다. 16.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방

에서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세워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에게서 구해 낼 것이다.
나는 내 백성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17. 사울이
사무엘의 눈에 뜨이는 순간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너에게
말해 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지배할 사람이다." 18. 사울이 성 문간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여기 선견자 한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의 댁이 어딘지
가르쳐 주십시오." 19.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하고 사무엘이 말하였다. "먼저 산당으
로 올라가시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나눕시다. 내일 아침에, 그대가 걱정하고
있는 일을 다 일러 준 다음 떠나도록 해 주리다. 20.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
일로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오. 나귀는 찾았소. 이스라엘의 모든 기대가 누구의
어깨에 걸려 있는지 아시오? 그대와 그대의 가문에 걸려 있소." 21. 사울이 대답하였
다. "그렇지만 저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저희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저의 문벌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2.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 가 삼십 명 가량 모인 손님들의 상좌에 앉혔다. 23.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잘
간수하라고 맡겨 두었던 그 제사 음식을 가져 오너라"하고 이르자,
24. 요리사가 제물의 다리와 꼬리를 들어다가 사울 앞에 차려 놓고 말하였다. "당신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 둔 몫입니다. 어서 잡수십시오. 이 손님들과 함께 잡수시라고
떼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 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25. 그들이 산당에서 성으로 내려 와 보니 사울의 잠자리가 옥상에 마련되어 있어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26. 날이 새자 사무엘이 옥상에 대고 "일어나 길을 떠납시다"하고 사울을 불렀다.
사울은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27. 그들은 성읍의 끝에까지 걸어 내려갔
다. 거기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일렀다. "종을 먼저 보내고 그대는 잠깐 여기에
서 있으시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리다."
10장 1. 사무엘은 기름 한 병을 꺼내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이렇게
선언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시는 것이오. 그대는 야훼의 백성을 지배하시오. 그대는 사방에 있는

적의 세력으로부터 이 백성은 구해 내어야 하오. 야훼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몫인 이 백성의 수령으로 성별해 세우신 표는 이것이오. 2. 오늘 그대는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그대가 찾아다니던 암나귀를 찾아냈으므로 나귀 걱정은 놓았지만 그대들이 걱정되어 '내 아들이 어찌 되었느냐?'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알려 줄 것이오. 3. 거기에서 다시 다볼에 있는 상수리나무 쪽으로 건너가시오. 거기에서 그대는 하느님을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과 마주칠 것이오. 한 사람은 염소새끼 세 마리를 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술 한 자루를 메고 올 것이오. 6. 그 때 야훼의 기운이 갑자기 내리덮쳐, 그대도 그들과 함께 신이 들려 아주 딴사람이 될 것이오. 7.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8. 그대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시오. 나도 뒤따라 그대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리다. 나와 만날 때까지 칠 일간 기다리시오. 그 때에 가서 그대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소."

9. 사울이 사무엘을 뒤에 두고 길을 떠나자 하느님께서 그의 속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그 날로 이런 조짐이 모두 일어났다. 10. 사울은 종을 데리고 그 언덕에 이르렀을 때 과연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느님의 기운이 사울에게 내리 덮쳐 그도 신이 들려 그들과 함께 신들린 것을 보고는 서로 "키스의 아들이, 저게 어찌 된 일이냐. 사울도 예언자들 중의 하나던가?"하며 수군거렸다. 12. 거기에 있던 사람 하나가 "이들이 도대체 누구네 집 아들이냐?"고 묻는 바람에 "사울도 예언자들 중 하나더냐?"하는 속담이 생겼다. 13. 사울은 이렇게 신이 들렸다가 풀려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14. 사울이 종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그의 삼촌이 "어디를 갔다 왔느냐?"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암나귀를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하고 사무엘 어른께 갔다 오는 길입니다." 15. 이 말을 듣고 사울의 삼촌이 다시 물었다. "그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더냐?" 16. 사울은 "암나귀는 이미 찾았다고 알려 주시더군요"하고 대답하면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만은 하지 않았다. 17.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야훼 앞에 모아 놓고 18. 일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집트뿐만 아니라 너희를 못살게 구는 모든 나라의 손아귀에서 너희를 구해 주었다.' 19. 그런데도 당신들은 오늘날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당신들을 살려 주신 당신들의 하느님을 저버리고 '안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하니, 이제 지파별, 씨족별로 야훼 앞에 나와 서시오."
20.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를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다시 베냐민 지파를 갈래별로 내세우고 제비를 뽑자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래서 그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22. 사람들이 야훼께,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하고 묻자 야훼께서 "그렇다, 저기 짐짝들 틈에 숨어 있다"하고 말씀하셨다. 23. 그래서 사람들이 뛰어 가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다. 24. 사무엘이 백성에게 "야훼께서 뽑으신 이를 보아라. 이 나라에는 이만한 인물이 없다"하고 선포하자 온 백성이 "우리 임금 만세!"하고 외쳤다.
25. 사무엘은 백성에게 군주제도를 설명하고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야훼 앞에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26. 사울도 역시 기브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때 하느님께서 마음을 내키게 하시어 그를 따라 나선 군인들이 있었다. 27. 그러나 "이 친구가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으랴?"하고 멸시하는 못된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울을 얕잡아 보고 선물도 바치지 않았다.

교리 요점

* 우리의 성인 생활은 주님을 섬김 아래 놓여져야 한다는 첫째가는 원리가 때로는 우리의 파생적인 판단으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

해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했다. 첫 번째는 열조 형태 즉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졌다. 이들의 후손들은 오랫동안 이집트

의 노예 상태로 있었다. 두 번째는 지도자 형태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르는 시기이다. 세 번째는 판관시대로 지속적인 통치자나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서 곤경을 겪을 때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도자를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관 사무엘이 등장한다. 사무엘은 주님이 선택하신 예언자로 그들에게 입증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선택의 방향을 구했다.

사무엘은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심판하는 직무를 수행 했다. 그는 언제나 현명하고 의로웠으며 주님께 온전히 신실했다. 그는 늙어서 직무의 일부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물려받은 권한을 남용했다. 결국 사람들은 이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어 다른 국가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고 나면 자신이 그들을 위해 해왔던 모든 것을 잊을 것으로 여겨서 이에 대해 좋지 않게 느꼈다. 그들이 사무엘이 행한 일을 잊는 것은 사실 그들이 주님을 잊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주님이 세우신 예언자가 사무엘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왕을 가지도록 허락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또한 주님은 왕이 누가 될 것인지도 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때가 바로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본문은 주님이 사울에게 왕으로 선택된 것을 처음 입증함과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사울을 첫 왕으로 승낙하고 인식하도록 인도되는가를 보여준다.

우리는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기쁘게 승낙하게 된 본문의 구절에 유의해야 한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서자, 그들의 키는 모두 그의 어깨에도 차지 못하였다" (10:23)라는 구절을 통해 그들은 사울을 외모로만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역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보편적 원리를 찾을 때 이러한 판단을 한다. 젊은 사람들은 때로 스스로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타인이 자기의 생각에 따를 때만 그들을 옳다고 인정한다. 또한 젊은 사람들은 사물의 표면만을 직시하여 사물의 더 깊은 측면, 사물이 함유한 힘 그리고 그에 대처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호의적이며 정열적이지만, 현명하지는 못하다. 반면, 연륜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본문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담겨 있다. 주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명한 지도자를 승낙할 준비가 안 되어서 그를 추종하지 못함을 알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로부터 고개를 돌림으로 이를 입증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현명한 충고를 거절할 때와 같은 모습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2015항 11번)」: "왕들은 명령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진리들을 표현하는 데 그 이유가 선에서 분리된 진리들은 비난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들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주님의 꾸짖음을 부를 만큼 매우 불쾌한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선으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을 때, 그 진리의 성질(性質)이 사무엘상 8장 11-18절에서 이런저런 왕의 권리들로 묘사되고 있다. 신명기(17:14-16)를 보면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은 선으로부터 비롯된 참된 진리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위조된 진리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참된 진리를 추론들과 기억적 지식들(memory-knowledge, scientifia)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에 의해 주어진 왕에 관련된 지침들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말씀의 글자만으로는 누구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이지만, 속뜻에 내포된 몇 가지 사항들을 참고하면 그 의미가 명백해진다. 그러므로 왕 또는 왕권은 진리를 표현하거나 의미함도 확실해진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8770항 2번): "야곱의 후손들 중에 있었던 표현적 교회에는 첫 째로 판관들의 왕국이 있었고 이후에 제사장들의 왕국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들의 왕국이 있었다. 판관들의 왕국은 하느님의 선에서 비롯된 하느님의 진리를 표현하며, 판관들이면서 제사장들인 이들의 왕국은 하느님의 진리에서 비롯된 하느님의 선을 표현한다. 그리고 왕들의 왕국은 하느님의 선 없이 하느님의 진리만 있는 것을 표현한다."

질문 정리

1) 사무엘이 늙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왕을 요구했는가?

2) 그 요구에 대해 사무엘은 어떻게 느꼈는가?
3) 주님은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가 무엇을 말한다고 하셨는가?
4) 주님이 뽑은 첫 왕은 누구였는가?
5)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보았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6) 사무엘은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어떻게 입증했는가?
7) 기름부음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8) 주님은 사람들을 어디에 모으라고 하셨는가?
9) 사울은 그곳에서 어떻게 뽑혔는가?
10) 실제 제비가 뽑혀지도록 한 이는 누구인가?
11) 사람들은 왜 사울이 왕으로 됨을 기뻐했는가?
12) 왕은 무엇을 뜻하는가?
13) 사울의 통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는 왜 통치했는가?

질문의 답

1) 사무엘의 아들들이 악했기 때문이다. 2) 불쾌하게 여겨 거절했다. 3) "그들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4) 사울 5)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다. 6) 그에게 기름을 부음 (사무엘상 10:2-6)
7)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 8) 미스바 9) 제비로 뽑힘 10) 주님
11) 키가 크고 힘이 세게 보였기 때문 12) 통치하는 진리
13)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는 진리가 통치함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받아야 할 통치 수준이 상식적 즉 자연적인 수준에만 머물렀기 때문

17
다윗을 기름붓다

머리말

사울의 약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읽도록 하자. 아주 어린 사람도 사울이 사무엘에게 불순종했던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외모 또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사울의 성향을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가는 변화의 연결점은 영적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성 서 본 문: 사무엘상 16장

16장: 1.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켰다고 해서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셈이냐?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로 보낸다. 그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2. 사무엘이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어떻게 갑니까?”하고 여쭙자 야훼께서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거라.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3.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 주리라. 너는 내가 지적하여 일러주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시켜 나에게 바쳐라”하고 이르셨다. 4. 사무엘은 야훼께서 이르시는 대로 하였다. 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안절부절못하고 그를 맞으며 “언짢은 일로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5. “아니오. 좋은 일로 왔소.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오. 그러니 모두들 목욕재계하고 함께 제사 드리러 갑시다.”이렇게 일러 놓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목욕재계시킨 다음 제사에 나오라고 초청하였다. 6. 그들이 나타나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8. 다음으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나와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오”라고 하였다. 9. 이새가

다시 삼마를 보여 드렸지만, 사무엘은 그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라고 하였다.
10. 이렇게 이새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에 나와 뵙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 가운데는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없소”하고
11. 이새에게 그 밖에 아들은 또 없느냐고 물었다. 이새가 “막내가 또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데려
오시오. 그가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하고 일렀다. 12.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 온 그는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는 잘생긴 아이였다. 야훼께서
말씀을 내리셨다.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13. 그리하여
사무엘은 기름 채운 뿔을 집어 들고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야훼의 영이 다윗에게 내려 그 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러 있었다. 사무엘은
길을 떠나 라마로 갔다.
14. 야훼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야훼께서 내리신 악령이 그를 공포에 넣자 15. 그의
신하들이 말하였다. “삼가 아룁니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악령이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16. 부디 소인들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 오도록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임금님께 악령을 내리실 때마다 그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시면 마음이
개운해지실 것입니다.”
17. 그래서 사울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18. 시중들던 한 젊은이가 말하였다. “소인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알고
있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씩씩하고 날랜 용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데다 야훼께서 함께 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19.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전갈
을 보내어 양을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보내라고 하였다. 20. 이새는 빵을 나귀로
한 바리, 술을 가죽부대로 한 부대 그리고 새끼양 한 마리를 마련하여 아들 다윗
편에 사울에게 보냈다. 21. 이리하여 다윗은 사울을 찾아 와 그를 시중들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몹시 사랑하여 그를 자기의 무기당번으로 삼았다. 22. 그리고 이새에게
전갈을 보냈다. “너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다.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시중들게
허락하여라.” 23. 하느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사울에게 내릴 때마다 다윗은 수금을
뜯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교리 요점

*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

해설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이야기는 해야 할 것 혹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존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사울은 호의적이고 힘도 세며 열성 있는 지도자였다. 하지만 그는 현명하지 못했다.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든 사람들도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행위의 결과에 성급하며, 주님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사울은 사무엘을 주님의 예언자로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사무엘의 훈계나 그 훈계에 순종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분을 꾸준히 기다려라"라는 단순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아주 힘겹게 배운다. 주님은 언제나 일에 대한 적절한 때와 방법을 알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배우고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성경 한 구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주님은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그는 이미 내 눈 밖에 났다.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라고 하셨다. 주님은 그분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또한 우리가 별로 좋지 않게 여기던 선한 것들도 옳은 방법으로 옳은 곳에 사용하려고 하면,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 더 나은 상태가 되도록 유도하신다.

깊은 변화는 단번에 거행되지 않는다. 다윗이 기름 부어진 후에도 사울은 오래도록 왕좌에 앉아 있었다. 사울은 다윗을 처음에는 크게 사랑했지만, 후에는 그를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경험이 적은 시기에 형성된 사고와 느낌들과 세월이 지난 후에 우월하고 보다 현명한 방법들과의 대립으로 우리는 후자가 더 나음을 인식하면서도 과거의 것들을 버리는 것에 힘겨워한 다는 것을 묘사한다.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은 더 나은 변화에 반대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원리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들어감"같이 되어서 승리하게 된다.

다윗은 많은 결점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에는 절대 순종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소탕하였고 예루살렘도 회복했다. 또한 그는 주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인"이기도 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그를 통해 주어졌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윗의 계보를 통해 다윗의 성 베들레헴에서 주님은 인간 몸을 입으셨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205항 1번과 6번)」: "말씀 가운데서 주님은 다윗에 의해 상징된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서 '왕들'은 하느님의 진리라는 측면의 주님을 표현(represent)하고 '사제들'은 하느님의 선이라는 측면의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특별히 왕 다윗에 의해 표현되었다. 다윗은 교회에 관련한 것들을 잘 보살폈다. 그뿐아니라 시편도 썼다....다윗이 하느님의 진리라는 면에서 주님을 표현함은 주님이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도록 의도하심과 '다윗의 아들'이라 부른 것 그리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 혹은 '이새의 뿌리'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어머니로부터 얻은 인간(human)을 벗어 버리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인간(Human) 즉 신성한 인간 (Divine Human) 이 되셨을 때는 그분은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419항): "천적인 것들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룩한 것과 그것에서 파생된 선들이고, 영적인 것들은 진리들과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선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믿음에 속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지식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용한다. 믿음이 가르치는 것 같이 존재하는 것은 천적인 수준에 속한다. 믿음은 위의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함으로 하프(harp, Lyre)와 오르간(panpipe or syrinx)이라는 두 가지의 악기를 통해 의미된다. 하프는 현악기로서 영적 진리를 의미하고, 오르간은 현악기와 관악기 사이

에 해당되므로 영적 선을 의미한다."

「**계시록 설명** (Apocalyse Explained 제 323항 1번과 12번」: " '하프'는 영적 진리들에서 오는 고백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하프가 현악기이기 때문이다. 현악기들은 영적인 것들 또는 진리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의미한다. 한편, 관악기는 천적인 것들 또는 선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뜻한다. 악기들이 영적인 것들과 천적인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이유는 악기들의 소리 때문이다. 소리는 애착들(affections)과 상응한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애착들이 소리들을 통해 지각(知覺)된다. 다양한 애착들이 있고 다양한 소리들이 많은 악기들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악기들은 상응에 의해서 애착들을 의미하게 된다. 현악기들은 일반적으로 진리에 대한 애착들에 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악기들은 선에 대한 애착들에 속한 것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악기는 영적 부류에 속하고 또 다른 악기는 천적 부류에 속한다. ...[12] 하프는 영적 진리들로부터 있게 되는 고백을 의미하며, 영적인 진리들은 주님의 영적 왕국 안에 있는 천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악으로부터 비롯된 거짓들과 그 안에 거하는 악한 영들을 흩어버린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을 덮칠 때 다윗은 하프를 뜯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되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사무엘상 16:23)라고 말씀에 쓰여 있는 것이다. 그 까닭은 왕들이 영적 왕국이라는 측면의 주님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왕들은 영적 진리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때의 사울은 영적 진리들에 반하는 거짓들을 표현하고, 이러한 거짓들은 하프의 소리에 의하여 흩어졌는데 그 이유가 하프는 진리에 대한 영적 애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표현적인 것들인 바, 이러한 사건에도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다.

질문 정리

1) 주님은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가?
2) 주님은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사무엘을 어디로 보냈는가?
3) 베들레헴에서는 다윗 외에 누가 태어났는가?
4)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5) 그 때 주님은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6) 주님은 이새의 아들 몇 명을 거절하셨는가?
7) 사람들에게 다윗을 데려오게 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8) 다윗에게 기름 부어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9) 이와 동시에 사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0) 다윗의 용모는 어떠했는가?
11) 이외에 다윗이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
12) 다윗은 어떤 악기를 연주했는가?
13) 다윗은 사울의 관심을 어떻게 샀는가?
14) 사울은 어떤 지위를 다윗에게 주었는가?
15) 성경의 어떤 책이 다윗을 통해 부분적으로 쓰였는가?
16) 다윗은 무엇에 상응하는가?
17) 다윗이 기름 부어진 후에도 사울이 권좌에 머물러 있음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1) 그의 왕국을 잃게 될 것 2) 베들레헴 3) 베냐민, 예수 4) "바로 여기 야훼께서 기름 부어 성별하실 자가 있구나" 5) "이 아들도 야훼께서 뽑으신 아들이 아니다" 6) 일곱 명 7) 양을 치고 있었다 8)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내림 9) 악령이 그를 괴롭힘 10) 볼이 붉고 눈이 반짝이며 잘생긴 아이 11) 용사, 시인, 하느님께 순종 12) 하프(lyre, harp) 13) 음악으로 사울의 머리를 맑게 해줌 14) 무기당번 15) 시편들 16) 삶을 지배하는 진리가 영적으로 이해됨
17) 낡은 습관은 고쳐지기 힘들다

18
솔로몬의 지혜

머리말

다윗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사항은 사무엘의 기름부음이 있기 전, 그는 베들레헴에서 목자이고 음악가이며 용사였다는 것이다. 또한 다윗에 의해 시편서의 많은 부분들이 쓰였음도 기억하자.

성서 본문: 열왕기상 3장

3장: 1. 솔로몬은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와 결혼동맹을 맺었다. 그는 파라오의 딸을 맞이하여, 자기의 궁과 야훼의 전과 예루살렘의 성곽을 다 짓기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두었다. 2. 국민은 아직 야훼의 이름으로 부를 전이 지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3.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4.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은 늘 그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천 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5. 야훼께서 그 날 밤 기브온에 와 있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다. 6.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는 저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오늘 그에게 주신 이 아들로 하여금 그의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7.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소인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8. 그런데 소인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몸입니다. 9. 그러하오니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 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히 그 누가 당신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10. 이러한 솔로몬의 청이 야훼의 마음에 들었다. 11.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장수나 부귀나 원수 갚는 것을 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옳은 것을 가려내는 머리를 달라고 하니 12. 자, 내가 네 말대로 해 주리라. 이제 너는 슬기롭고 명석하게 되었다. 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

라. 13.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지 않은 것, 부귀와 명예도 주리라. 네 평생에 너와
비교될 만한 왕을 보지 못할 것이다. 14.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이 내 길을 따라
살았듯이 내 길을 따라 살아 내 법도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네 수명도 길게 해 주리라."
15.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훼의 계약 궤 앞에
나아가 서서 번제와 친교제를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16. 그런데 창녀 둘이 왕에게 나와 섰다. 17. 그 가운데 한 여자가 말을 꺼냈다.
"임금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 이 여자도
집에 있었습니다. 18. 그런데 제가 해산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
니다. 집에는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19. 그런데 그 날 밤, 이 여자는 자기의 아들을
깔아 뭉개어 죽였습니다. 20.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이 계집종이
잠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제 아들을 가져다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놓고 간 것입니다. 21. 제가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다 보니 아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서야 그 아이가 제 몸에서
낳은 아이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22. 그러자 다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산 아이는 내 아이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야"하고 우겼다. 첫 번째 여자도 "천만에!
죽은 아이가 네 아이이고 산 아이는 내 아이야"하고 우겼다. 그렇게 그들은 왕 앞에서
말싸움을 벌였다. 23. 그 때 왕이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은 '산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네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네 아들은 죽었고 내 아들이 산 아이다'라
고 하는구나." 24. 그러면서 왕은 칼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왕 앞으로
칼을 내오자 25. 왕은 명령을 내렸다. "그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은 이 여자에게
또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26. 그러자 산 아이의 어머니는 제 자식을 생각하여
가슴이 메어지는 듯하여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만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네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고 하였다. 27. 그러자 왕의 분부가 떨어졌다.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처음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다." 28.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왕에게 하느님의 슬기가 있어 정의를 베푼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들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교리 요점

* 의를 사랑할 때만이 평화를 가질 수 있다.

해설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솔로몬 같아"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이 보통 이상으로 현명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이 어떻게 현명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장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20살도 안 된 젊은 나이에 보좌에 앉게 되자,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주님에게 말했다. 또한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으셨다. 솔로몬은 장수와 부귀 또는 원수 갚는 힘을 청하지 않고, 이해력이 있는 심정(understanding heart)을 주시어 흑백을 잘 가려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도록 주님께 요구했다. 솔로몬의 지혜는 겸손함,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님의 견지에서 의를 행하고 싶은 바램 등에 기초한다. 시편 111편 10절을 읽어 보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요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슬기를 깨친 사람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 a good understanding have all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이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그분에게서 오는 힘을 꾸준히 찾지 않고 옳음을 행할 충분한 지식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여기면 슬기로워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이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솔로몬(Solomon, Shalom)의 이름은 "평화스러운"을 뜻한다. 우리의 모든 재난과 다툼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 혹은 자아를 신뢰함에서 비롯된다. 솔로몬의 통치 40년 동안은 평화로웠다. 그의 지혜에 대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왕들이나 여왕들은 그의 가르침과 고견을 듣고자 그를 찾았다. 또한 그는 주님의 약속대로 부유함도 누렸다. 10장은 특별히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 설명한다.

솔로몬 통치의 극치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한 것이다. 다윗 역시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그는 "전쟁의 사람, 용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거절되었다. 주님의 성전(Temple)은 주님의 계명들에 의해 지어진 인격(character)을 묘사한다. 이는 우리가 선한 삶의 극치를 이루는 작업으로, 자신의 이기적 생각과 욕망을 버리고 주님의 이타적 사랑이 흘러 들어오도록 우리의 영혼 안에 길을 만들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시험과의 투쟁은 먼저 있어야 할 과정으로서 다윗의 통치를 통해 묘사된다. 전투가 승리로 끝날 때 평화와 행복이 뒤따른다.

솔로몬의 왕국의 영화가 왜 오래 지속되지 못 했는가하는 질문의 답은 나중 공부를 위한 배경이 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555항)」: "[2] 인간이 어떻게 진정한 지혜에까지 도달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총명이 지혜는 아니지만 지혜로 인도해 준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진리와 선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혜로워지면 그렇게 된다. 지혜는 오직 그 사람의 삶에 의해서만 단언된다. 사람은 지식들 곧 아는 것을 통해 지혜에로 안내되어진다. 사람 안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의지(will, 뜻하는 힘)와 이해력(이해하는 힘, understanding)이다. 의지가 우선하는 부분이며 이해력은 그 다음에 해당 된다. 사후 삶은 의지부분에 의해 결정되며, 지적 부분에 의해서는 결정되지 않는다. 의지는 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주님에 의해 인간 안에 형성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심은 순진함(innocence)과 부모, 유모 그리고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향한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많은 천적인 것들 또한 의지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아기와 아동기 때에 이러한 천적인 것들이 그 안에 심어지지 않는 다면 그는 결코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여 첫 평면(first plane)이 형성된다.

[3] 의지쪽만 가지고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하는바, 의지와 더불어 이해력이 주어진다. 즉 이해력과 의지가 함께하여야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해력은 반드시 지식들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므로 사람은 아동기부터 지식들을 점진적

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두 번째 평면 (second plane)이 이루어진다. 지적 부분이 지식들, 특히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에 대해서 가르쳐지게 되면 처음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거듭남이 시작되면, 주님은 유아기 때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천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지식들을 이용하셔서 선들과 진리들을 우리의 지적부분에 심으신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지적인 부분과 주님께서 심어 두신 천적인 것들이 하나를 이루게 된다. 주님께서 지적인 부분과 천적인 것들을 결합(conjoin)하실 때 그 사람에게는 선행(charity)이 주어진다. 그는 이렇게 주어진 선행으로 행동을 시작하는데, 이때의 선행은 다름 아닌 양심(conscience)이다. 이렇게 그는 처음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며 이것은 등차(degrees)별로 이루어진다. 이 새로운 생명으로부터의 빛이 지혜로 불리는데 이 지혜는 다른 것에 우선하며 총명(intelligence)위에 놓인다. 이렇게 하여 세 번째 평면(third plane)이 이루어진다. 사람이 육을 입고 사는 동안 이러한 단계들을 이루면, 그는 저 세상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더 완전해 간다. 이러한 고찰들은 무엇이 총명으로부터의 빛인지, 그리고 무엇이 지혜로부터의 빛인지에 대해 보여 준다.

질문 정리

1) 다윗은 사울과 무엇이 다른가?
2) 다윗이 가진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3) 성경의 어느 책이 다윗을 통해 주어졌는가?
4) 다윗의 통치 때에 성취된 것은 무엇인가?
5) 다윗은 궤를 어디에 놓았는가?
6)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인가?
7)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인가?
8) 솔로몬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 솔로몬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디로 갔는가?
10) 기브온에 무엇이 있었는가?
11) 기브온에서 꿨던 솔로몬의 꿈속에서 말한 이는 누구인가?

12) 주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물었는가?
13) 솔로몬은 주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14)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무엇을 지었는가?
15) 솔로몬의 통치는 몇 년간 지속되었는가?
16) 솔로몬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1)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들에 순종했다 2) 음악, 시인 3) 시편 4) 평화 5) 예루살렘 6) 솔로몬 7) 다윗 8) 평화스러움 9) 기브온 10) 성막(tabernacle) 11) 주님 12)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13) 이해력이 있는 심정(Understanding heart) 14) 성전(temple) 15) 40년 16)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랑함

19
엘리야와 아합

머리말

본과의 역사적 시대는 솔로몬 왕국의 분열 이후이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자료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열왕기상 12장을 통해 왕국의 분열에 관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왕국이 분단된 이유도 이해하도록 하자.

성 서 본 문: 열왕기상 17, 18장

17장: 1. 길르앗의 티스베에 살고 있던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오." 2.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3. "이 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에서 숨어 지내며 4.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들을 시켜 날라다 주도록 하리라." 5. 엘리야는 야훼의 말씀을 따라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로 가서 살았다. 6. 까마귀들이 아침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그는 계곡의 물을 마셨다. 7. 그렇게 얼마를 지내는데 개울의 물마저 말라 버렸다. 온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8.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9.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의 사렙다로 가서 그 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 놓았다." 10. 그래서 엘리야는 그 곳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 주실 수 없겠소?" 11.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12. 여인이 대답하였다. "군 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뒤주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워 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13.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14.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15. 이 말을 듣자 과부는 곧 집 안에 들어 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16.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 그대로 뒤주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동이 나지 않았다. 17. 이 일이 있은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하여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18. 여인이 엘리야를 추궁하였다. "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른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오시어 내 죄를 일깨워 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19. 그가 말하였다. "부인, 아이를 좀 봅시다." 그는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뉘었다. 20. 그리고 그는 야훼를 소리쳐 불렀다. "오, 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기어이 제가 머무르고 있는 과부의 집에 슬픔을 내리시어 아이를 죽이시렵니까?" 21. 그는 아이 위에 세 번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추고 나서 야훼께 기도하였다. "오, 야훼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22.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마침내 아이는 살아났다. 23.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 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부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24.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과연 하느님의 사람이십니다. 어른께서 전하신 야훼의 말씀도 참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18장: 1. 삼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가서 아합을 만나거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2.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갔다. 3. 가면서 보니 사마리아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다. 아합은 궁내대신인 오바디야를 불렀다. 오바디야는 야훼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4. 그는 왕후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낸 사람이었다. 5. 아합이 그 오바디야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나와 둘이서 전국을 다녀 보자. 어쩌다가 풀이 있는 곳을 만날지도 모르니 모든 샘과 계곡을 샅샅이 뒤져 보자. 어떻게든 말과 노새를 살려야지 그냥 죽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6. 이리하여 그들은 전 국토를 둘로 나누고 한쪽은 아합 자신이, 다른 쪽은 오바디야가 담당하여 두루 다니면서 물을 찾기 시작하였다. 7. 오바디야는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만나러 온 엘리야와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 인사를 하였다. "아니, 엘리야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가서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에 와 있다고 전하시오." 9. 그러나 오바디야는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를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10. 선생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말씀드립니다. 왕은 선생님을 찾기 위하여 모든 나라, 모든 왕국을 걸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을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11. 그런데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12. 내가 선생님을 떠난 즉시 야훼의 영이 선생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보고를 듣고 왕이 왔을 때 선생님은 여기 계시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야훼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13. 내가 한 일은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이세벨이 야훼의 예언자들을 학살했을 때, 야훼의 예언자 백 명을 오십 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과 물을 날라다 주어 살려 내었습니다. 14.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나더러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안다고 보고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15.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기필코 오늘 왕을 만나리다." 16. 그러자 오바디야는 아합을 찾아 소식을 전하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17.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말을 건넸다.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18.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왕 자신과 왕의 가문입니다. 왕께서는 야훼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19.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멜산으로 모이게 하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세벨 왕비에게서 녹을 받아 살고 있는 바알의 예언자 사백 오십 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사백 명도 함께 모아 주십시오." 20.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예언자들에게 가르멜산으로 모이라고 하였다. 21.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22.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야훼의 예언자로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요.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사백 오십 명이나 있습니다.
23. 이제 우리에게 황소 두 마리를 끌어다 주시오. 그들에게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채 그냥 두게 합시다. 나도 한 마리를 잡아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24. 당신들은 당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나는 나의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겠소. 어느 쪽이든지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느님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25.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황소 한

마리를 택하여 제물로 드리고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마시오." 26. 그들이 준비한 황소를 받아 잡아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오, 바알이여, 대답하소서." 그러나 대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 예언자들은 자기네가 만든 제단을 돌면서 절뚝거리는 춤을 추었다. 27.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였다. "바알은 신중인지 아니면 여행 중인지 혹은 잠이 드셨는지도 모르니 어서 깨워 보아라." 28.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자기네 의식을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다. 29. 한낮이 지나 제사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신접한 모습으로 날뛰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은커녕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없었다. 30.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자기 앞으로 다가오라고 말하였다. 백성들이 모두 다가 오자 그는 허물어진 야훼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31. 엘리야는 일찍이 야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려 주신 야곱의 열 두 아들들에게서 나온 지파의 수대로 돌을 열 두개 모았다. 32. 엘리야는 그 돌 열 두 개로 야훼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는 곡식 두 가마 정도 들어 갈 만큼 큰 도랑을 팠다. 33.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송아지를 잡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물을 네 동이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34. 그는 그렇게 한 번 더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대로 하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세 번을 붓자 35.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흘렀고 옆 도랑에 가득 괴었다.

36.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어 예언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외쳤다. "오,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여,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제가 한 모든 일이 당신의 말씀을 좇아 한 것임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37. 응답해 주십시오. 야훼여,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께서 하느님이심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당신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38. 그러자 야훼의 불길이 내려 와 제물과 함께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괴어 있던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말려 버렸다.

39.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부르짖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께서 하느님이십니다."
40.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모조리 사로잡으시오." 엘리야는 백성들이 사로잡아 온 그 예언자들을 키손 개울로 끌고 가 거기에서 죽였다. 41.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이젠 돌아 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내 귀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42. 아합이 돌아가서 음식을 드는데 엘리야는 가르멜산 꼭대기에 올라 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양 무릎 사이에 묻었다. 43. 엘리야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라고 일렀다. 시종이 올라가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와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는 일곱 번이나 되풀이하여 가 보라고 명하였다.
44. 시종은 일곱 번째 보고 와서는 바다에서 손바닥 만한 구름이 한 장 떠올랐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엘리야가 시종에게 명령하였다. "아합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채비하여 내려가시라고 일러라." 45. 그러는 동안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어 캄캄해지면서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아합이 병거를 몰아 이즈르엘을 향하여 가는데 46. 엘리야는 야훼의 힘에 사로잡혀 옷을 걷어붙이고 아합을 앞질러 이즈르엘 어귀까지 뛰어 갔다.

교리 요점

* 우리가 거듭남의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의 지성 부분은 심정부분 보다 더 즉각적으로 시험에 복종 당한다.
* 심정 속에 있는 이타적인 사랑 즉 주님을 사랑함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

해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에 스스로를 과신하게 되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라는 "경계심과 기도"를 게을리 하며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오래 동안 성공을 누리더라도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서 우리는 여러 왕과 여왕들이 솔로몬에게서 지혜와 조언을 구했음을 배웠다. 솔로몬은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파괴하라고 지시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나라의 여인과도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는 많은 외국 여인들을 사랑했고, 그녀들을 궁전으로 데려왔고 그녀들의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러다 결국 그도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이것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재물이나 쾌락에 빠져 계명의 제 1번을 잊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다.

솔로몬은 그의 모든 아내들을 부양하고 왕궁의 호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징수해야 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부담이 날로 늘어가게 되자, 백성들은 솔로몬이 죽은 후 그것을 가볍게 해 달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간청했다. 슬기로운 르호보암의 노신들은 백성들의 호소를 수락해야 한다고 르호보암에게 조언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백성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더욱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다. 그 결과 북쪽의 열 지파는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 국가는 이스라엘 왕국이라 불렀다. 남쪽 왕국은 유다 왕국이라 불렀는데, 이들은 솔로몬의 계보를 충실히 지키고 수도를 예루살렘에 두면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첫 왕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감을 막기 위해 「베델」과 북쪽 끝 「단」에 각각 금송아지를 세웠다.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악하며 우상을 숭배했다. 또한 그들의 통치기간은 매우 짧았고 폭정을 일삼았으며 왕의 계보 또한 쉽게 바뀌었다. 이러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주님을 예배함을 잊고 세상적 관심과 이기심으로 추론하도록 될 때 있는 우리 마음의 향방에 대한 것을 표현한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강했던 왕의 하나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다. 역사가는 그를 위대한 왕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지만, 성서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어느 왕들보다 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자”라고 평가한다. 주님이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라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자.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아합의 통치 시대 때, 주님은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 오랜 기근이

들어 나라가 고통 받게 될 것임을 아합에게 알리도록 하셨다. 세상적인 마음은 하늘의 비 즉 주님에게서 오는 진리를 받을 수 없다. 주님은 우리가 이기적인 이익 추구에 빠져 흡수될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험한 신호를 보내신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익히고 들은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감추어 두고 보존하신다. 이는 아합이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꺼이 경청하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존해 두신 상황과 같다.

우리는 가르멜 산에서 엘리야의 대결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열심히 불렀고,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제례 의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불이 그들의 제단에 내려오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 역시 열심히 일하며, 때로는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행복은 심정 속에 있는 이타적 사랑으로부터만 비롯되며,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분에게만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자아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 나서서,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느님이라면 나를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라고 말했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4844항 12번)」: " 엘리야에 관련된 모든 것은 성경의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표현적이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게 되자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내졌고,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먼저 과부가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고 그 후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은 것, 그리고 과부의 집에 있던 소량의 밀가루와 기름이 다하지 않는 것 등도 모두 표현적이다. 비가 오지 않아 든 흉년은 교회 안에 진리가 피폐해 졌음을 표현한다. 사렙다의 과부란 진리를 갈망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뜻한다. 엘리야에게 먼저 만들어준 떡은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온 선을 표현하며 자기가 가졌던 작은

선함을 주님을 사랑함에 먼저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 여자가 자기 자신과 아들보다 주님을 사랑함을 우선했다는 것이다. 밀가루 한줌이란 선에서 근원되는 진리를 의미하고, 기름 몇 방울이 들어있는 병이란 선행(charity)과 사랑(love)을 뜻한다, 엘리야는 말씀을 표현하므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질문 정리

1) 솔로몬은 무엇을 지었는가?
2) 솔로몬은 말기에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3) 실수의 결과는 무엇인가?
4) 분열된 두 왕국의 이름은 무엇인가?
5) 어느 왕국에 예루살렘이 있었는가?
6) 북쪽 왕국의 왕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감을 막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7) 역사가들은 북쪽 왕국에서 어느 왕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가?
8) 아합의 아내 이름은 무엇인가?
9) 아합의 통치기간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는가?
10) 어떤 예언자가 아합에게 경고하기 위해 보내졌는가?
11) 아합은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려 했는가?
12) 주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셨는가?
13) 엘리야가 아합에게 되돌아 와서 어떤 대결을 제시했는가?
14) 대결은 어디서 있었는가?
15) 바알 예언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의 하느님을 불렀는가?
16) 엘리야는 그의 제단을 어떻게 지었는가?
17) 엘리야가 주님을 부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18)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19) 바알 예언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0) 대결의 결과로 무엇이 왔는가?

21) 이스라엘과 유다는 각각 무엇을 표현하는가?
22) 엘리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1) 성전 2) 우상에게 예배했음 3) 왕국이 갈라짐 4) 이스라엘, 유다 5) 유다 6) 두 개의 금송아지를 세웠다 7) 아합 8) 이세벨 9) 가뭄 10) 엘리야 11) 죽이려고 했음 12) 까마귀가 그를 먹였음 13) "불로 응답하는 하느님..." 14) 가르멜산 15) 한 낮이 되기까지 불렀다 16) 열 두 개의 돌로 쌓고, 물 열 두 동이를 부었음 17) 불이 내려왔다 18) "야훼가 하느님이십니다" 19) 엘리야가 그들을 죽였다 20)비가 내렸다 21)이스라엘 - 지력 또는 이해력, 유다 - 심정 또는 의지 22) 예언의 말씀

20
아사왕의 통치

머리말

본과에 앞서 미리 알아야 할 것은 솔로몬 왕국이 두 왕국으로 분열됨과 그 두 왕국인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점이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주변의 이야기를 재정리하고, 유다 왕국이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에 충실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도 지속했음도 언급한다.

성서 본문: 열왕기상 15장

15장: 9.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이십 년에 아사가 유다 왕위에 올라 10. 예루살렘에

서 사십 일 년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11. 그런데 아사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야훼께서 보시기에 곧바른 일을 하였다. 12. 왕은 전국에서 남창들을 소멸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애 버렸다. 13.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는 음탕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그것을 토막 내어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14. 산당은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아사는 일생 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하였다. 15. 그는 자기의 부친과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각종 금은집기들을 야훼의 전에 바쳤다. 16.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전쟁을 하였다. 17.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유다를 침략하였다. 또 라마성을 튼튼하게 보수하여 유다 왕 아사로 하여금 군대를 출동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18. 그러자 아사는 야훼의 전과 왕실창고에 남아 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사신을 시켜 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내며 청을 넣었다. 당시 시리아는 헤지온의 손자이고 타브림몬의 아들인 벤하닷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정하고 있었다. 19. "나의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맺으신 동맹은 나와 당신 사이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으신 동맹을 파기하시고 바아사로 하여금 우리 영토에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20. 벤하닷은 아사왕의 청을 받아들여 군사령관을 불러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욘, 단, 아벨벳마아가, 긴네렛,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짓부수었다.
21. 바아사왕은 이 소식을 듣자 라마성을 보수하다 말고 다르사 지방으로 철수하였다. 22. 이에 아사왕은 유다 전국에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바아사가 라마성을 보수하는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겨 와서 미스바와 베냐민 지방의 게바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게 하였다. 23. 나머지 행적, 치적 및 그가 축성한 성읍들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 24. 아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조상 다윗의 성에 있는 그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교리 요점

* 우리는 삶의 첫째에 주님을 섬김 이외의 것을 놓는 일에 끊임없이 대항해야 한다.

해설

본과의 공부가 성서의 뒷장으로 되돌아간 것은 분단된 왕국의 역사를 기술하는 열왕기서의 두 책이 각각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따로 기술하여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체 160과를 망라해서 네 번의 공부는 이스라엘 왕국을, 또 네 번의 공부는 유다 왕국을 공부하도록 계획되었다. 유다 왕국의 역사에 관한 공부는 소수의 선왕들을 통해 명백해 진다. 그 왕들 중 첫 번째인 아사는 열왕기상 15장에 등장한다.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남쪽 부분인 유다는 여전히 솔로몬의 계보에 충직했고 예루살렘에서의 예배 또한 꾸준히 지켰다. 북쪽 부분인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을 거절했고 다른 왕을 세웠으며, 두 금송아지상들을 베델과 단에 세워 그것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국가가 되어 더욱 나빠져 갔다. 반면, 유다는 개혁을 꾀하려는 소수의 선한 왕들도 가졌으며, 그들은 주님에 대한 예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두 왕국의 백성들은 그들 주위의 이교도 국가들로 인해 점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

우리는 "갈라진 마음(divided mind)" 즉 옳은 것을 행하기 원하나 무엇이 옳은지 확실치 않은 상태와 옳은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 원치 않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이러한 심정 상태는 성경에서 분열된 왕국(divided kingdom)으로 표현된다. 남쪽의 유다는 심정(heart)을 표현하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지성(mind)을 표현한다. 솔로몬 치하의 평화스러운 단일 왕국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바를 알고 그것을 행하기 원하여 평화스럽고 행복한 때를 누리는 상황을 묘사한다.

이러한 솔로몬의 상태에 뒤따르는 것은 일차적으로 반역하는 우리의 지성이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 "주님을 전적으로 따름이 정말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기적 생각은 우리의 "더 좋은 성향(better nature)"이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온 원리들로 향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위 같은 질문이 일어나게 한다. 유다의 선한 왕들은 이와 같은 원리들을 표현한다. 아사왕은 백성들이 세운 우상들을 제거했다. 우리는 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아사왕처럼 판단하여 우리에게 선함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호소되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가치가 없음을 인식하며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사왕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거 하지는 않는다. 본문 14절에서는 "그러나 산당(high places)은 제거되지 않았으며(보존되었으며)"라고 기술되어 있다. 산당이란 우상들을 높이 세워 놓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놓은 높은 곳이다. 우리는 우리가 "숭배"해 왔던 것의 무가치함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의 판단 안에 있는 자기만족감과 자긍심은 쉽게 포기하지는 못한다. 자긍심은 산당을 통해 표현된다. 아사왕은 개혁을 완전히 마무리 짓지 않아 후에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 시리아 왕에게 원조를 청하도록 마음이 동요되었고 시리아 왕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전의 보물들을 포기했다. 본문의 23절에서는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자신의 지혜에 대한 자랑을 일삼게 될 경우, 주님의 길을 향해 걷는 대신 세상적 길로 되돌아가 뒤쳐지게 되어 결국 영적 다리를 앓게 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411항 18번」: "그날이 오면, 너희는 더러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위하던 은 우상, 금 우상을 저마다 내버릴 것이다..." (이사야 31:7); 이 말씀은 자기 총명에 빠져있는 자들이 신성한 것들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믿는 것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사는 이들로 배움으로 명예를 얻는 것 조차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추구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볼 수 없으므로 거짓들을 잡아서는 그것들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삶의 지침들이나 사랑들을 선호하는 거짓들이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들"로 의미된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들이 자기 총명 속에서 비롯되었음이 "너희는 더러운 손으로 만들어 놓는"의 의미이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6435항 4번과 11번)」: "[4]예언서에는 산과

언덕에 관한 언급이 꽤 많다. 이 산과 언덕은 내적 의미로는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선들을 의미한다... [11] 산과 언덕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선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대 교회(Ancient Church)에서는 하느님께 대한 예배가 산이나 언덕 위에서 행하였다. 그리고 후대의 히브리 국가도 산이나 언덕 위에 제단을 차려 놓았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언덕이 없는 지역일 경우는 높은 제단을 건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들은 산이나 언덕 자체가 거룩한 것인 양 여겨 버리고는 산이나 언덕이 의미하는 거룩한 것들에 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어 버렸다. 그러한 이유로 이런 형식의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인들에게 금하여졌다. 고대에 존재했던 이러한 표현(representative)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온산이 선택되어졌다. 이 시온산은 가장 높은 의미로는 주님의 신성한 사랑에서 나오는 신성한 선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주님의 왕국 안에 있는 신성한 천적 영역과 신성한 영적 영역을 표현하게 된다."

질문 정리

1) 오늘 공부에 등장한 유다의 왕은 누구입니까?
2) 그는 선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3) 그가 행한 일 중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4) 그가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5) 이스라엘 왕은 아사왕을 이겨보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6) 누구에게 아사왕은 도움을 청했습니까?
7) 아사왕은 무슨 선물을 시리아 왕에게 보냈습니까?
8) 노령 때에 아사왕은 무슨 병을 앓았습니까?
9) 오늘의 우리에게 우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10) 산당(high places)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질문의 답

1) 아사(Asa) 2) 선왕 3) 우상을 파괴한 일 4) 산당의 제거
5) 라마를 지었다 6) 시리아왕 벤하닷 7) 성전의 금과 은 8) 발병
9) 돈, 권력 등등 같은 것에 "예배함" 10) 자기 자신의 총명을 자랑함

21
시편에 관해서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시편 19편과도 연관 된다. 시편서의 역사와 성전 예배 때 시편의 사용에 관한 것들을 언급한다. 그리고 개인 생활에 있어서 시편의 활용 및 시편서의 영적 특성을 강조한다. 사무엘하 23장 1-2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다윗의 증언과 주님의 말씀을 꼭 읽어 두자.

성 서 본 문: 시편 1편, 사무엘하 23장 1-2절

1편: 1.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2.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3.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 따라 열매 맺으리. 4.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5.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 못하리라. 6.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사무엘하 23장: 1.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다. 야곱의 하느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요, 이스라엘의 수호자가 귀여워하시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 세우신 영웅의 말이다. 2. 야훼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어 말씀하셨다. 당신의 말씀을 내 혀에 담아 주셨다.

교리 요점

*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꾸준히 찾고 있을 때에 행복하게 된다.
* 우리가 무신론적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은 하향한다.

해설

시편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 받으며 대중적으로 읽혀지는 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단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시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시편들은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다윗이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1-2절에서 증언한다. 다윗은 왕이면서 음악가였다. 시편들은 노래로서 다윗에게 주어졌다. 그 이유는 음악은 감동을 주는 감정의 표현으로 심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편은 주님 쪽에서 우리 삶과 우리 쪽에서 주님이라는 쌍방 관계에서 갖게 되는 모든 감정이 적절하게 표현된 주님으로부터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느님에 관해 생각하게 될 때, 시편의 특정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시편 23편이 가장 사랑 받으며 알려진 이유는 역경에 처해 삶의 용기를 잃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때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사가 잘 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만족하면, 자신의 삶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시편들은 이러한 상태들을 깊이 탐사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안내와 교정에 따른 생각의 방향을 제시해 주며 그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되새기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에 맞도록 시편을 "짜깁기"하기도 한다. 또한 그들의 형편에 잘 융화되는 부분만을 읽고 위로 받으려하며 나머지 부분은 경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시편 1편은 끝없는 진정한 행복의 유일한 길은 주님의 법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 법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것이며, 주님의 법은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나 시련에 빠졌을 때나 변함없이 되새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준다.

제 1절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특별한 시험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는 하느님과 영적인 것들에 관해 진정한 믿음을 갖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러한 충고로부터 삶의 원리들을 만들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만인이 이렇게 하는데..."라고 말하며 행동한다. 이것은 영적 죽음을 향한 첫 번째 단계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는 죄를 받아들이게 되어 결국에는 하느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마저 포기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슬퍼하는 자리에 동석한다. 4절에서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다"고 주님이 무신론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과정은 속되며 좁은 안목에 불과한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볶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제 687-6항」: "이러한 표현들 (시편 1:1) 즉 걷는 것(to walk), 서는 것 (to stand), 앉는 것 (to sit)이라는 표현들은 서로 연속되는 동작으로 쓰인 것이다. 「걷는 것」이란 의도(intention)에서부터 오는 생각(thought)의 삶과 관련이 있고, 「서는 것」이란 의지(will)로부터 오는 의도의 삶과 관련이 있으며, 그리고 「앉는 것」이란 삶 그 자체인 의지의 삶과 관련이 있다. 「걷는 것」을 내포하는 「조언(counsel)」은 생각과 관계가 있고, 「길(way)」을 내포하는 「서는 것(standing)」은 의도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 것 (to sit in a seat)」은 인간 삶의 근원(the being [esse] of man's life)인 의지에 관계된다."

질문 정리

1) 왕국이 분단되기 전의 두 번째 왕은 누구인가?
2) 다윗의 특별한 재능은 무엇인가?
3) 다윗은 그가 쓴 것들에 관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4) 다윗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쓰인 책은 무엇인가?
5) 시편이란 무엇인가?
6) 유대인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7) 주님은 시편에 대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8) 우리는 시편 1편을 기억하는가?
9) "복된 자"란 무엇을 뜻하는가?
10) 행복해지고자 하면, 금해야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11)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12) 선한 사람은 무엇에 비유되는가?
13) 악한 자는 무엇에 비유되는가?
14) 주님은 시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
15)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는가?

질문의 답

1) 다윗 2) 음악과 시 3)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4) 시편 5) 노래
6) 찬송가(hymns) 7) 시편은 주님에 관해 쓰여 있다고... 8) "복되어라..." 9) "행복한 자" 10)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11) "주님이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12) 냇가에 심겨진 나무(tree) 13) 바람에 꺄불리는 겨(chaff) 14)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필요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심
15) 주님이 법을 주신 것에 기뻐하고, 그것을 날마다 되새겨야 한다.

22
이사야를 부르심

머리말

본과에서는 성경의 예언서를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대 예언서들의 역사적 개요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이사야는 아모쓰의 아들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는 우찌야 통치 13년 또는 서기 전 780년쯤에 태어났으며, 예언자로서 그의 활동기간은 약 60년간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는 아모스, 호세아, 요엘 그리고 미가(소 예언서 부분)와 동시대에 존재한다. 이사야서는 크게 3부분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5장까지의 예언들이다. 두 번째는 36장에서 39장까지의 히즈키야 왕의 역사적 전말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로 분류된다.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는 아나돗(Anathoth)이라는 베냐민 지파 영토에서 태어났으며 사제 중의 한사람이다. 그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북쪽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다른 예언서와 달리 이 책은 예레미야라는 개인에 관한 언급이 많다. 그는 젊은 시절에 고향에서 살았으며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로 인해 혹독한 시달림을 겪었다. 그가 처음 모습을 나타낸 때는 이사야 시대에서 약 130년 후였다. 그는 하느님이 내린 직분을 그의 고향땅에서 약 41년간 수행했고, 그 후는 이집트에서 예언했다.

에제키엘은 예루살렘이 붕괴되기 약 11년 전 즉 서기 전 599년에 여호야김과 그의 시종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 포로들은 유프라테스강 줄기의 하나인 「그발」강가에서 식민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델아브」에 집이 있었고 결혼도 했었다. 그는 타향 생활 15년째 되던 해(B.C 593)에 예언하기 시작했으며, 예루살렘 붕괴 후 16년 동안 예언직분을 수행했다. 그는 타향살이 동안 줄곧 백성들에게 존경 받았고, 많은 장로들 역시 그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는 타향생활 중에 자연사했다, 그의 무덤은 바그다드에서 좀 떨어진 「게펠(Kefel)」에 있는데, 수많은 유대인과 기독인들이 그곳을 방문했다. 그는 다니엘과 엇비슷한 시대의 인물이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 왕족의 일원으로 여호야김왕의 집권 3년째 되던 해 (604 B.C)에 느브갓네살 왕에 의해 바빌론으로 잡혀 갔다. 그는 세상적 부귀를 누린 유일한 히브리 예언자이기도 했다.

성서 본문: 이사야 6장

6장: 1. 우찌야왕이 죽던 해에 나는 야훼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은 성소를 덮고 있었다. 2. 날개가 여섯씩 달린 스랍들이 그를 모시고 있었는데,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나머지 둘로 훨훨 날아 다녔다. 3.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야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4. 그 외침으로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의 연기가 자욱하였다. 5. 내가 부르짖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6.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뜨거운 돌을 불집게로 집어 가지고 날아

와서 7.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보아라, 이제 너의 입술에 이것이 닿았으니 너의 악은 가시고 너의 죄는 사라졌다.”
8. 그 때 주의 음성이 들려 왔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하고 내가 여쭈었더니 9. 주께서 이르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말아라." 10.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며 눈을 뜨지 못하게 하여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와서 성해지면 어찌 하겠느냐?”
11. 나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하고 여쭈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도시들은 헐려 주민이 없고 집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농토는 짓밟혀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12. 야훼께서 사람을 멀리 쫓아 내시고 나면 이 곳엔 버려진 땅이 많으리라. 13. 주민의 십분의 일이 그 땅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마저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찍히듯이 쓰러지리라. 이렇듯 찍혀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인데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다.”

교리 요점

* 말씀으로부터 순수한 진리를 얻으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을 기꺼이 섬기려는 강한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해설

이사야서에서 시작되어 말라기서에 이르는 성경의 책은 총 17권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를 예언서라 부른다. 예언서는 크게 대 예언서와 소 예언서로 분류된다. 크다 혹은 작다 즉 대 혹은 소라는 분류는 책의 부피에 의한 것이며, 내용의 비중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그리고 다니엘은 대 예언서에 해당된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부르는 책도 썼다.
이사야는 네 왕의 통치기간 중에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다. 히즈키야왕은 네 왕

중에 으뜸이었다. 예레미야 역시 유다에서 예언했지만, 그는 이사야 후기 시대에 해당된다. 그는 유다왕국이 붕괴될 때에도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잡혀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늙자 백성들은 그를 억지로 이집트로 끌고 갔다. 그는 그곳에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을 썼다. 에제키엘과 다니엘은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끌려간 후부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즉, 그들은 타향에서 활동했던 것이다. 이사야서는 친숙하면서도 아름다운 구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주님의 강림에 관한 예언을 포함한다. 복음서들을 보면, 이사야서를 자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에서 주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부분을 살펴보자. 예언자들의 말은 사람의 사견이 아닌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 일 뿐이다. 본문은 한 사람이 진실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할 몇 가지 특질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 중 첫째는 주님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표현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둘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하는 것이다.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다. 셋째는 기꺼이 주님을 섬기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삶을 통해 늘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며 또한 늘 준비가 되어있어 기회가 주어질 때 즉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한 것처럼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제단에서 가져온 뜨거운 돌(living coal)이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장면은 주님의 이타적 사랑이 우리 삶에 와 닿는 것을 묘사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잘못을 행하고 그로 인해 불행해졌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아야 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행복과 평화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에게 진정으로 쓸모 있는 인간이 된다.

예언자들의 선교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 시대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그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경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한 이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보호와 도움을 보증시켜서 행복이 있을 것임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 하에 예언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와 전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지게 된 것이다. 주님은 예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듣기만 할 뿐 깨닫지 못하는 자 혹은 보기만 할 뿐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580항 4번)」: "치품천사중 하나가 예언자의 입과 입술을 건드림(touching)이란 예언자의 내면이 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내면이란 이해성과 의지를 뜻하며 가르침의 선물이 시작되는 것이다. 제단에서 가져온 뜨거운 돌이란 하느님의 사랑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모든 정화가 있게 된다. 입과 입술이란 생각과 애착(affection) 혹은 이해성과 의지를 뜻한다. 이 두 가지가 정화될 때 인간은 부정함과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너의 부정함이 떼어져 나갔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다'고 말해지는 것이다. 뜨거운 돌을 입과 입술에 대었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부정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303항)」: "인간은 자기가 인식하고 믿는 것 즉 자기 스스로 확신하는 것들로부터 삶을 이룬다. 스스로의 마음에 확신이 서는 것이나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룩한 것들을 모독 하는 경우는 스스로 그것들이 거룩한 것임을 인식하여 확신하지만 결국 그것들의 거룩함을 부정하게 될 때 이다.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도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이들과 마찬가지이며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안다고 하는 이들과도 같다. 주님의 강림 때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다. 따라서 말씀 중에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피폐(Vastated)해 지다' 또는 '황폐해지다'라고 하는 데 이것은 더 이상 어떤 믿음(faith)도 지니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말씀의 내면의 의미들이 열려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해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심장이 멈춰버린 사람들과 같기 때문이다. 믿음의 신비는 인간이 이러한 상태 즉 아주 피폐해져서 더 이상 어떠한 믿음도 없는 상태(앞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신성모독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에 이르지 않으면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주님은 슬기로운 자, 즉 그분을 인식하고 믿는 자를 "사람"이라 부르신다."

질문 정리

1) 예언자의 직분은 무엇인가?
2) 이스라엘 왕국에 보내진 큰 예언자는 누구인가?
3) 어떤 판관이 예언자였는가?
4)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5)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예언서는 어떤 책들인가?
6) 예언서는 어떻게 분류되는가?
7) 왜 대 또는 소 예언서라고 부르는가?
8) 대 예언서는 몇 권인가?
9) 대 예언서의 책 이름들은 무엇인가?
10) 본문의 책 이름은 무엇인가?
11) 이사야는 언제, 어디서 예언했는가?
12) 이사야는 환상 중에 누구를 보았는가?
13) 거룹은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14) 이사야는 왜 놀랐는가?
15) 주님은 이사야의 입술이 순수하게 되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16) 주님은 무엇을 물으셨는가?
17) 이사야는 뭐라고 답변했는가?
18) 예언자들의 선교란 무엇인가?
19)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주님을 대변하는 사람 2) 엘리야 3) 사무엘 4) 율법서, 예언서, 기타서적 5)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 열왕기 6) 대 예언서; 소 예언서 7) 책의 부피에 따라서 8) 네 권 9)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 10) 이사야서 11)

우찌야, 요담, 아하즈 그리고 히즈키야왕 시대에 유다에서 예언했다. 12) 주님 13) 여섯 날개 14) “불순한(unclean)” 입술 때문이다 15) 뜨거운 돌을 입에다 대었다 16)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17)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8) 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함 19) 주님의 환상을 볼 것, 겸손할 것, 성별 되어야 할 것, 그리고 자발적으로 섬길 것

23
활활 타는 화덕

머리말

앞서 공부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멸망되는 과정과 포로가 된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바빌론에서 포로 출신이었던 다니엘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포로라는 단순한 사실의 의미도 언급한다.

성 서 본 문: 다니엘 3장

3장: 1. 느부갓네살왕은 금으로 신상 하나를 만들어 바빌론 지방 두라 벌에 세웠다. 그 높이는 육십 척이요, 나비는 육 척이나 되었다. 2. 느부갓네살왕은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을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불러 들였다. 3. 그래서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고문관들, 재무관들, 판사들, 법률가들,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신상 앞에 나와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4. 그 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인종과 말이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4.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퉁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거든 곧 엎드려 느부갓네살왕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6.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않으면 당장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을 것이오.”
7. 그리하여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퉁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인종과 말이 다른 뭇 백성들은 엎드리어, 느부갓네살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 8. 이 때 어떤 바빌론 사람들이 나서서 유다인들을 고발하였다. 9. 그들은 느부갓네살왕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을 빕니다. 10. 임금님께서 영을 내리시어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퉁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엎드리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11. 엎드리어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는다고 칙령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12. 그런데 임금님의 칙령을 무시하고 임금님께서 위하시는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임금님께서 바빌론 지방 관리로 임명하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유다인들 입니다. 그들은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13. 느부갓네살은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끌려 오자, 14.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는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내가 위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다니, 그게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나팔, 피리, 거문고, 사현금, 칠현금, 퉁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는 대로 곧 엎드리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할 마음이 없느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질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 줄 신이 과연 있겠느냐?”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왕에게 대답했다. “저희는 임금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할 마음이 없습니다. 17.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힘이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들을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 넣으셔도 저희를 거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18.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을 섬기거나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19.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듣고는 금방 안색이 달라지며 노기에 차서 화덕의

불을 여느 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지피도록 하고, 20. 군인들 가운데서도 힘센 장정들을 뽑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활활 타는 화덕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하였다. 21. 사람들은 그들을 도포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활활 타는 화덕 속에 집어넣었다. 22. 왕명이 그만큼 급했던 것이다. 화덕이 너무나 달아 있었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넣던 사람들이 불길에 타 죽고 말았다. 23.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24. 그런데 느부갓네살왕이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 그는 벌떡 일어나 측근자에게 물었다. "꽁꽁 묶어서 화덕에 집어넣은 것이 세 명 아니었더냐?" 그들이 대답했다. "임금님, 그렇습니다." 25. "그런데 네 사람이 아무 탈없이 화덕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저 네 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모습을 닮았구나"하면서 26.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화덕 어귀에 가서 이렇게 외쳤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아 어서 나오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화덕에서 나온 다음 27. 지방장관들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측근들이 모여 와 그들을 살펴보니, 몸이 불에 데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도포도 눋지 않았으며 불길이 닿은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28.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찬양받으실 분이구나"하며 느부갓네살은 외쳤다. "저들의 하느님께서, 어명을 어기면서까지 목숨 걸고 당신만을 믿고 저희의 신 아닌 다른 신 앞에서는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는 이 신하들을 천사를 보내시어 구해 내셨구나. 29. 이제 나는 영을 내린다. 인종이나 말이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신에게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욕하는 자는 토막 내어 죽이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리라. 이처럼 자기를 믿는 자를 구해 줄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으리라." 30. 그리고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벼슬을 내렸다.
31. "인종과 말이 다른 천하 만민은 이 느부갓네살왕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빈다. 32.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표적을 너희에게 들려주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 33. 그가 보이신 표적은 놀라왔다. 그 베푸신 기적은 굉장하였다. 그는 영원히 왕위에 앉으시어 만대에 이르도록 다스릴 왕이시다.

교리 요점

* 주님은 우리가 곤란과 시험의 상태일 때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신다.

해설

유다왕국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었고 주님에 신실했던 소수의 왕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왕국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한 왕들의 노력과 예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고집했다. 결국 유다는 바빌론에게 점령당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학설 혹은 학식 그리고 세상의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들을 고집하면, 우리의 이기심은 우리의 심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본문의 다니엘과 3명의 소년들은 유다왕가 집안에 속한다. 그들은 그들의 탁월한 재능 때문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 바빌론 왕국에서 교육되도록 미리 보내졌고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주님께 신실하였고 어린 시절에 양육된 대로 실천했으므로, 주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번성시켰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요셉처럼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예언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오르도록 하셨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 3명도 행정관 수준의 직위에 올랐다.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의 지성을 그리며 유다 왕국은 우리의 심정을 뜻한다.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출발되었기 때문에 먼저 멸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세상적 추론에 귀 기울이게 되면, 시편 1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된다. 우리의 심정이 선한 의지를 지향하더라도 그것을 보호하며 인도해 줄 진리가 없으면, 지성 또는 이해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망한 후 심정을 상징하는 유다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선과 진리의 결합이 없게 되면 이기심이라는 악이 우리 마음에 득세하게 된다. 이기심 혹은 자기의 길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바빌론이다. 따라서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기적인 심정을 이끄는 원리를 표현한다. 그리고 그 원리란 자기자랑 또는 자신의 지혜만을 믿는 상태들을 뜻한다.

느부갓네살은 황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땅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예배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활활 타는 화덕 속에 던지라고 명령했다. 신상에 절하지 않은 대가로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불 화덕에 던져졌다. 여기서 활활 타는 화덕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찾고 있을 때 우리를 굴복시키려 찾아오는 시험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험들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주님은 지상 생활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과 대적하고 극복하셨다. 우리가 신실하다면 주님은 불가마속에서도 상처를 입지 않은 채 3명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험들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볶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1010항)」: "명예욕과 지배욕 그리고 남보다 우월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교회가 갖게 되는 마지막 상태이다. 이때에 거짓은 진리에 대항하여 싸우게 되는데 그것은 이러한 지옥적인 사랑이 마지막 상태에 처한 교회를 지배하려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옥적 사랑으로부터 생겨난 악에서 나오는 거짓 마음의 중심이 되어 끝내는 진리를 뒤엎어 버린다. 이런 사랑이 그 어떤 것 보다 우세해지면 천국의 빛을 소멸시키고 점점 지옥의 어둠을 드리운다. 이런 사랑의 소유자는 천국과 교회의 측면에서는 아주 두꺼운 어둠 안에 있는 상황 즉 거짓들 안에만 있으므로, 그 사람 안에는 교회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 안의 자연적 빛이 발하는 광채로 인해 영적 빛이 상대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광채가 망상적인 빛에서 나오는 이유는 자기 총명을 사랑함과 자기가 영광을 받기 원함으로부터 불이 붙여져 밝혀진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에서 이러한 총명은 아주 사악하거나 혹은 정신이상자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런 지옥적 사랑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마음에 속한 모든 것이 뒤 집어져서 더 이상 어떠한 진리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선을 행하려는 의지도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나 선용(uses)을 목적으로 할 때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 이 때는 인간이 명예나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의 특출함을 선용에 응용한다. 그리하여 명예, 지배욕 그리고 탁월성 등은 선용을 위한 수단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 자연계로부터의 많은 사람들은 존경받

고 싶은 마음, 지배욕 그리고 탁월함을 자랑하는 마음을 소유하지만, 그들 중에서 선용을 사랑하는 자는 극히 드물다. 선용이란 섬기는 것이다. 명예 그 자체가 선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선용으로 결실되어 지지 않는 것은 설사 그것이 사랑으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용한 것이 되어 버린다. 선용으로 결실되어 지지 않는 사랑은 천국에 그 자리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가 천국은 곧 선용으로 통치가 되는 곳인데 이 말은 주님의 왕국은 선용의 왕국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결실인 선용이 곧 선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용으로 우리의 마음이 규율되어 질 때 그것은 곧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 된다. 그 이유는 모든 선의 근원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1) 유다왕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2) 포로들 중 어느 왕족 청년이 성경을 썼는가?
3)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누구인가?
4)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해롭게 했는가?
5) 바빌론 왕은 누구인가?
6)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7) 그는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8)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는 절했는가?
9) 느부갓네살은 세 청년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10) 그들은 불에 태워졌는가?
11) 불가마 안에서 세 청년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12) 불가마에 세 청년을 던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3) 느부갓네살은 결국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14) 바빌론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5)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질문의 답

1)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다 2) 다니엘 3)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 아님
5) 느부갓네살 6) 금 신상 7) 음악이 울려 퍼지면 금 신상에 절하라
8) 아님 9) 활활 타는 화덕에 던지라고 했다 10) 아님 11) 주님 12) 죽었다
13)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하여 욕된 말을 하지 못한다.
14) 자기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는 사랑
15) 자기 칭찬이나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뽐내는 자

24
예언자 미가

머리말

본과는 소 예언서에 관한 공부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소 예언자들”과 “소”라 불리는 이유를 알아본다. 그리고 본문 6장 8절을 읽고 의미를 파악해 보자.

성 서 본 문: 미가서 6장

6장: 1. 잘 들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일어나 산악을 향해 변명해 보아라. 할 말이 있거든 언덕들에게 말해 보아라.” 2. 산악은 야훼의 논고를 들어라. 땅의 주춧돌들은 귀를 기울여라.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을 걸어 논고를 펴신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밝히신다. 3. “내 백성이라는 것들아, 대답해 보아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으며, 너희에게 무슨 못할 일을 했느냐? 4.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장세워 종살이하던 데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5. 내 백성이

라는 것들아, 모압 왕 발락이 꾸민 계략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한 말, 시띰에서 길갈에 이르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도 이 야훼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느냐? 6. “높이 계시는 하느님 야훼께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번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7. 수양 몇 천 마리 바치면 야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거역하기만 하던 죄를 벗으려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이 죽을 죄를 벗으려면, 이 몸에서 난 자식이라도 바쳐야 합니까?” 8.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9. 야훼께서 이 성읍에 외치시는 소리, 유다 지파는 들어라. 이 성읍에서 사는 무리들은 들어라. 12. 남을 등쳐 치부한 것들아, 거짓말만 내뱉는 도시 놈들아, 말끝마다 사기를 하는 것들아, 들어라. 10. “천벌 받을 것들, 부정한 되로 부정 축재한 것들을 나 어찌 용서하겠느냐? 11. 자루에는 엉터리 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며 맞지도 않는 저울을 쓰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겠느냐? 13.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치리라. 그런 죄를 보고 어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15. 너희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올리브기름을 짜도 몸에 발라 보지 못하며 포도를 짜 술을 빚어도 마시지 못하리라. 14.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은 것마저도 살이 되지 않으리라. 살아 보려고 버둥거려도 빠져 나갈 길 없고, 빠져 나가더라도 칼에 맞아 죽으리라. 너희는 오므리의 정책을 따르고 16. 그 아들 아합 왕조의 시정을 그대로 본 따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멸망시키리니, 사람들은 그 끔찍스런 꼴을 보고 빈정거리며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교리 요점

* 선행(charity)은 삶의 근본이다.

해설

구약 성서의 마지막 열두 권을 소 예언서라고 부른다. 이 책들이 소 예언서라고 불리는 이유는 대 예언서들 보다 분량이 작기 때문이지 예언서들에 어떤 구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구약시대의 책은 오늘날과는 달리 긴 양피지를 둥근 막대기로 말아 놓은 형식이었는데 소 예언서들은 하나의 두루마리 안에 다 들어가는 분량이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라(Torah, Law)들을 이 같은 두루마리로 써서 "궤(ark)"라 부르는 조그만 방에 보관한다. 이 조그만 방은 우리의 교회가 교인들 모두의 시선이 모일 수 있는 중앙에 설치한 성경을 놓는 제단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 예언서와 친숙하지 못하다. 그 책들은 극히 적은 대화체로 이뤄져 있어 우리 마음에 담아두기가 힘들고, 문장들이 종종 단절되어 내용이 쉽게 연결되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소예언서를 읽을 때면 주님은 언제나처럼 수호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셔서 말씀의 내적 의미를 인지하도록 도우신다. 따라서 주님은 본문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미를 지닌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예언자 미가(Micah)는 유다의 세 왕들 시대에 살았으며, 그 중 히즈키야 왕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미가 1:1 참조) 미가는 타 예언자들처럼 백성들이 범한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계속 고집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를 그들에게 경고하도록 주님에 의해 보내졌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따라서 예언자들은 대중적인 인기는 얻지 못했다. 미가서는 백성들의 정의, 맹렬함 그리고 기만성을 지적하면서 수많은 일을 해 주신 그들의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도록 호소하고 있다. 미가는 주님께 바치는 제물 따위로 백성들의 행위를 덮을 수 없다고 했다.

오늘날의 신앙인들 중에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얻을 경우 그것의 일부를 교회에 헌납하거나 자선을 베푸는데 쓰면 죄가 되지 않는 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미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료들을 대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해야 할 것이며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되새겨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것 밖에 무엇이 더 있겠는가"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볶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0143항 3번과 4번)」: "[3] 번제물(burnt-offering)과 희생 제물(sacrifices)이 특별히 의미하는 바는 악과 거짓으로부터의 정화(purification), 그리고 그 후에 있게 되는 선과 진리의 주입, 그리고 그 둘의 결합, 그럼으로 있게 되는 거듭남이다. 이러한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은 진정한 예배 안에 있게 되는 데 그 이유가 악과 거짓으로부터 정화된다는 것은 그것들을 그만 두었다는 것과 그것들을 멀리하고 그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과 진리의 주입이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과 선과 진리를 말과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선과 진리의 결합이란 선과 진리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 이유가 선과 진리가 사람과 결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의지와 이해성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삶을 얻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러한 인격을 가지게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신성한 예배가 있게 된다. 그것은 그가 모든 것에서 신성함을 찾고 신성을 공경하며 사랑하고 결국에는 신성함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4] 예배가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이 진정한 하느님에 대한 예배임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배에 속한 것을 입과 생각에서만 구성하고, 믿음의 선 혹은 사랑의 선으로부터 있게 되는 일(work)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 주님은 찬양이나 기도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심정(heart) 곧 그들의 내면의 것들, 그들이 얼마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 지에 관해서만 주목하신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의 이러한 내면의 것들이 그의 찬양과 기도 안에 없다면, 이러한 찬양과 기도 안에는 생명과 영혼이 없는 것이 되고 단지 세상적인 것들 즉 아첨들과 위선들 같은 것만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의 현명한 사람조차 싫어하는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질문 정리

1) 본문의 예언서의 이름은 무엇인가?
2) 미가는 분단된 두 왕국 중 어느 곳에서 예언했는가?
3) 미가는 세 왕의 통치 시대에 예언했다. 세 왕은 누구인가?
4) 주님은 왜 예언자를 보내셨는가?
5) 미가 예언시대에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
6) 백성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 했는가?
7) 미가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8) “to do justly”는 어떤 의미인가?
9) “to love mercy”는 어떤 의미인가?
10) “to walk humbly with thy God”은 어떤 의미인가?
11) 선한 생활에 대한 요구 사항은 우리 삶의 어떤 세 가지 단계에 있어져야 하는가?
12) 왜 미가의 예언에서 이 세 가지 순서로 말씀이 주어졌는가?

질문의 답

1) 미가(Micah) 2) 유다 3) 요담, 아하즈, 히즈키야 4) 백성들의 잘못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이다. 5) 속이고, 거짓말하고, 모독함 6) 희생 제물 7) 공의를 행하며(to do justly), 자비를 사랑하며(love mercy),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walk humbly) 8)공정하고 정직함 9) 친절하고 도와주며 용서함
10)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함 11) 행위(conduct), 생각(thought), 의지(will) 12) 우선,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것을 통해 생각을 깨끗케 하는 단계로 발전한 후에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의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5
성전의 재건

머리말

성전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성막의 가구와 재건에 관한 근본적 계획을 고찰한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을 때 궤 또한 사라져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허용된 것은 모두 주님이 거룩한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성 서 본 문: 하깨서 1장

1장: 1. 다리우스왕 제 이년 유월 초하루였다. 야훼께서 예언자 하깨를 시켜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2.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 백성은 아직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3. 야훼께서 예언자 하깨를 시켜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4.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아랑곳없이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에서 사느냐? 5.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6. 씨는 많이 뿌렸어도 수확은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성이 차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아무리 벌어 들여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7.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나의 성전을 지어라. 나는 그 집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8.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지내 왔는지 돌아보아라. 9. 많이 거두려니 했지만, 거두고 보니 얼마나 되더냐? 집에 들여 온 것마저도 내가 날려 버리리라. 만군의 야훼가 그 곡절을 일러 주리라. 너희가 나의 성전 무너진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 집만 짓느라고 바삐 돌아다닌 탓이다.

10. 그러니, 하늘이 이슬을 내릴 성싶으냐? 땅이 소출을 낼 성싶으냐? 11. 나는 평지에도 산에도 가뭄이 들라고 선포하였다. 땅은 밀도, 포도주도, 올리브기름도, 밖의 어떤 소출도 내지 않아 사람도 짐승도 모두 배를 곯게 되었다. 너희가 손이 닳도록 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되었다!" 12.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은 저희의 하느님 야훼께서 보내신 예언자 하깨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야훼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13. 그래서, 하깨는 야훼의 특사로서 야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였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 야훼의 말이다." 14. 야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즈루빠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사제와 그 밖에 살아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의 하느님, 만군의 야훼의 성전에 들어 가 일을 시작하였다. 15. 때는 유월 이십사일 이었다.

교리 요점

* 건전한 인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먼저 오셔야만 한다.

해설

예언자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지속적인 존경을 받았음은 그가 느부갓네살왕, 메대왕 다리우스 그리고 페르샤왕 고레스 때에도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바빌론에서 노예화 되지 않았고 일부는 그곳에 정착하여 번성했으므로, 고향으로 귀환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주님은 많은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거룩한 땅에서 태어나셔야 했다. 따라서 끌려간 백성들 중 일부는 되돌아 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해야 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포로가 된지 70년 후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예레미야 29:10) 고레스 왕은 백성들의 귀환을 허용했다. 역사가인 에즈라는 주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도록 임무를 맡겼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귀환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돈, 양식, 옷 그리고 가축 등을 원조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스스로도 과거 느부갓네살왕이 빼앗아 온 성전의 금과 은 집기들을 되돌려 보냈다.
귀환자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옛 솔로몬의 성전 위치에 제단을 쌓고 새 성전을 위한 기초를 놓았다. 그 후, 그들은 거의 16년 동안 더 이상 건축에 대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를 사마리아인들과 가졌던 언쟁 탓으로 돌렸다. 사마리아인들은 과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왕국의 백성들을 끌고 가 정착시킨 사람들이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성전 재건이 지연된 것은 그들과의 언쟁 때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예언자 하깨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전 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에 의해 보내졌다. 성전 재건이 지연된 진짜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집을 짓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그들의 편함을 위해서 그들의 집을 짓기를 우선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집이란 인격에 대한 상징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인격을 짓는다면, 우리의 인격은 주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안과 이익을 위한 집을 짓기에 집중하여서 자신 안의 주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방치해 둔다.
하깨는 백성들이 뉘우치고 성전건축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여서 성전 재건은 그 후 4년 만에 완공됐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요한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1029[e]항)」: "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은 과거 교회의 영적인 것들을 표현해왔던 지위를 잃게 되었다. 그들은 그 지위를 통해 천국과 교통할 수 있었지만, 그 지위가 아시리아왕의 손아귀로 넘어간 후에 그것은 불가능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표현성을 갖지 않고 천국과의 교통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다 백성들은 믿음의 선과 진리를 표현해 왔던 율법이나 모든 지위 등을 뒤섞고 모독하여 선과 진리의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남지 않게 되었다. 유다 백성들이 상징하던 교회가 바빌론과

하나가 되어 버렸을 때 그들의 왕, 왕자, 전 백성 그리고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을 포함하여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모든 집기들까지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성전도 불태워 졌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상징하는 바는 교회 속의 거룩한 것들에 대한 모독을 의미한다. 바빌론이 의미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모독이다. 하지만 그 결과 하느님의 교회를 상징했던 땅 즉 거룩한 땅은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 의하여 더 이상은 모독되지 않게 되었고, 다만 바빌론이 상징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예레미야에 의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바빌론왕에 항복하게 될 것이고, 만일 스스로 포기치 않고 그 땅에 남아 있겠다하면, 칼에 의하여, 기근에 의하여 각종 질병과 같은 재앙으로 죽게 되리라"라고 예언되었다. (25:1-11)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은 칠십 년의 포로생활 후에 귀환되어 질 것이고 성전 또한 재건되어 질 것이라고 예언하셨다.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성전의 재건이 반드시 필요했던 까닭은 상응의 원리로 주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땅에서 태어나야만 했고, 그럼으로서 교회가 무엇이며 하느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귀환한 곳에 남아있는 교회는 바빌론으로 상징되는 교회뿐, 그전에 있던 유다 백성들로 상징되던 교회는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서들을 통해 이러한 여러 나라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들에서 알 수 있고, 또한 그 땅의 백성들이 탄생하신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보면 이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은 로마제국에 의해 다시 한 번 파괴 되어졌고 성전도 불타버렸던 것이다."

질문 정리

1) 어떤 통치자 때에 유다 백성들의 귀환이 허용 되었는가?
2) 그들의 포로생활은 얼마동안 지속되었는가?
3) 고레스왕은 귀환하려는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 했는가?
4) 왕은 귀환 백성들에게 무엇까지 되돌려 주었는가?
5) 귀환자들은 성전재건의 지연 원인으로 어떤 것을 핑계 삼았는가?
6) 어떤 예언자가 핑계 많은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 보내졌는가?

7) 예언자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춘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8) 성전의 금과 은 집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9) 유대인들이 거룩한 땅에 되돌아가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고레스 2) 70년 3) 성전을 재건하라고 4) 성전에서 강탈해왔던 금과 은 집기들 5) 아직은 주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6) 하깨(Haggi) 7) 자신들의 안락에 더 관심이 있었다. 8) 어떻게 올바르게 사느냐에 관한 말씀의 가르침
9)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유대주의의 재 건립과 성전재건을 위함이다.

26
주님이 세상에 오시다

머리말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연속적인 성서임을 주지해야 한다. 신약과 구약 사이는 약 400여 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유대 민족은 거룩한 땅에 정착함과 더불어 옛날의 예배를 재건했다. 모든 신약 성서의 공부는 구약성서의 내용에 의존되어 연속된다. 따라서 우리는 신, 구약 관계의 중요성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뤄져 있듯이, 우리는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에 관해 공부할 때에도 주님의 이중적 본성 즉 아버지로부터 온 신성(the divine)과 신성을 옷 입힌 마리아로부터 온 유한한 인성(the finite humanity)을 기억해야 한다.

성서 본문: 마태복음 1장 18-25절, 2장 13-23절

1장: 18.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19.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낼 생각도 없었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 20.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어라. 그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하고 일러 주었다. 22. 이 모든 일로써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23.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24.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일러 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다. 25.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다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그 아기를 예수라고 불렀다.

2장: 13. 박사들이 물러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거라"하고 일러 주었다. 14.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5.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중하여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9.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20.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21.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23.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교리 요점

*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더 이상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를 통해 인도하실 수 없게 되자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
* 어린 시절 주님이 받은 교육은 말씀의 글자에 관한 것이었다.

해설

구약은 성전재건과 주님의 강림을 예언함으로 마무리 된다. 본문과 구약성서 시대 사이는 약 사백년의 시간차가 있으며, 그 기간은 힘든 고난의 역사였다. 그들은 거룩한 땅에 있었으나 오랜 시간 타민족의 통치하에 놓여 있었다. 유대의 후손들의 오랜 역사는 하느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주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지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표현하는 권리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이 "율법과 예언서를 성취"하시기 위해 유대인의 어머니로부터 그곳에서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하느님의 섭리 하에 계속 보존되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 백성들은 그들의 왕 헤로데가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로마 황제의 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헤로데는 로마 총독의 감독 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옛 성전 터에 새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으며, 교회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종교 법률을 성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메시아를 아주 강한 왕으로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구원자로 인식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로데는 메시아에게조차 그의 자리를 양보하기를 원치 않았다.

신약 성서 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리스도(Christ)란 그리스어 (Greek word)로 메시아 즉 하느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예수(Jesus)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Jehovah Saves)”를 의미한다.

우리는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여 살게 된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던 것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가서 보호받았던 것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집트가 기억적 지식을 의미함을 상기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이집트로 피신한 사건으로부터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악들을 정복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주님께서 악들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 본성을 입으시고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었다. 스웨덴볼은 사람의 영적 본성을 영(spirit)과 혼(soul)로 구분하는 데 여기서 영은 영체 즉 육체 안에서 형성되어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될 영으로된 몸을 뜻하며, 혼은 영체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영은 우리의 삶의 질에 따라 그 모양과 형상이 결정되어 지는 우리의 내적인 몸이고 혼은 하느님의 임하심이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이르는 곳, 곧 우리 생명의 근원이다. 그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soul)은 하느님 즉 신성한 사랑 자체였다. 하지만 그분의 영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육체에 존재하던 모든 악들을 이겨내는 가운데 성장하고 계발되어 져야만 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재구성과 거듭남의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대적하여 싸우셨던 악들은 우리들이 싸우는 악들과는 차원이 달랐는데 그 이유가 주님께서는 그 때까지 인류에게 축적된 모든 악한 경향성들과 싸우셔야 했기 때문이다.

주님은 어떤 지식도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배워야만 했다. 이것이 이집트에 체류하셨다로 기술된 말씀의 의미이다. 주님 역시 기억적 지식을 마음(His mind)에 저장하셨는데, 이는 구약성서에 관한 글자적 지식을 뜻한다. 복음서들을 보면 주님께서 구약성서에 대해 매우 해박하셨음 알 수 있다. 주님의 인간적 본성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3장에서 주님의 세례 받는 내용으로부터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654항 19번)」: "아기이신 주님이 이집트로 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받은 첫 훈육을 의미한다. 주님은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훈육되어졌지만, 그분의 근원이 되는 신성으로 인해 어느 누구보다 더욱 총명하고 지혜롭게 훈육 되었다. 하지만 이집트로 가셨다는 것은 훈육에 대한 단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스라엘 교회나 유대 교회를 통해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관련이 있음으로 주님 스스로도 그러한 표현을 입으셔서 그대로 지키셨는데 이것은 법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함이셨다... 표현적인 것들(representatives)은 천국과 교회의 궁극의 형상들(the outmosts, 물질계에 나타나는 현상적 물질적 형태)이다. 그럼으로 모든 선행(先行)하는 것들, 즉 합리적, 영적, 천적인 것들은 모두 이 궁극의 형상들 안에 거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도 합리적, 영적, 천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궁극의 형상들 안에 계실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힘이 궁극의 형상들 안에 있음으로 주님께서는 먼저 된 것들로부터 궁극의 형상들을 통하여 모든 지옥들을 복종시키셨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질서 안으로 환원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에서의 삶의 전부가 표현적인 것이 되는 까닭이며 또한 그분의 고난(passion)에 관련된 복음서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 교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천국과 교회 속의 모든 선과 진리, 그리고 신성에 상반되는 것들 이었다."

질문 정리

1)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뉘는가?
2) 글자상의 역사로 구약성서는 어떤 국가에 대한 것인가?
3) 이스라엘 민족은 몇 지파인가?
4) 그 땅의 큰 두 부분에 정착된 국가는 무엇인가?
5) 이스라엘 왕국에 속했던 백성들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6) 어떤 나라가 유다 백성을 포로가 되게 했는가?
7) 유다 백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바빌론에 붙잡혀 있었는가?

8) 포로가 된 백성 중 일부는 귀환했는데, 이것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9) 귀환한 백성은 무엇을 다시 지었는가?
10) 신약 시대의 거룩한 땅은 어떻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는가?
11) 예수는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12) 예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13)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14) 주님은 요셉의 꿈에서 어떻게 아기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5) 당시 유다의 왕은 누구인가?
16)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하느님은 요셉에게 무엇을 지시하셨는가?
17) 헤로데 왕은 왜 주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18) 헤로데는 이를 어떻게 실행했는가?
19) 요셉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였는가?
20) 요셉의 가족은 어디에 정착했는가?
21) 주님이 이집트로 가신 장면은 무엇을 묘사하는가?
22) 주님은 왜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 거룩한 땅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질문의 답

1)신약과 구약성서 2)히브리인 국가 3)열 두 지파 4)이스라엘, 유다 왕국 5)아시리아로 끌려갔다 6)바빌론 7)70년 8)유대주의의 재 건립 9)성전 10)갈릴래아, 사마리아, 유다 11)베들레헴 12)마리아 13)하느님 14)예수 15)헤로데 16)이집트로 피신하라고 하심 17)자기 왕권을 뺏길까봐 18)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사내 아기들을 죽였다 19)헤로데가 죽은 때이다 20)나자렛 21)성경을 배우심 22)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와 상응적 의미를 완성하기기 위해

27

동방 박사의 방문

머리말

이 공과는 절기를 위한 특별 공과이다. 이 공과에서 지적해주어야 할 것은 말씀에서 동방의 박사의 이름이나 그 수가 몇 명인지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지 말씀에서 세가지 선물이 말해진 것으로 미루어 아마 현인들(박사들)의 숫자도 셋일 것 같다는 대중의 추측이 이어져 오다가 전통으로 굳혀진 것 뿐이다. 이 세 명에게 주어진 이름, 가스팔Gaspar), 멜키올(Melchior), 벨다살(Balthazar) 역시 전설적일 뿐인바, 말씀의 일부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성탄절의 많은 연극 혹은 이야기들은 이러한 전통에 기반 한다. 우리는 성경 교육과정 처음부터(어린 아이들을 포함) 성경과 전통(tradition)을 구분하여 알아야 한다. 이는 성경과 전통의 혼동은 시간이 지나면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서 본문: 마태복음 2장

2장: 1. 예수께서 헤로데왕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2.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 3.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4.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5.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6. ‘유다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고 하였습니다.” 7. 그 때에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고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 주시오”하고 부탁하였다. 9.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이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10.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11. 그 집에 들어 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12.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13. 박사들이 물러 간 뒤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로데가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알려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하고 일러 주었다. 14. 요셉은 일어나 그 밤으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14.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6.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알아 본 때를 대중하여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17.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18.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울부짖고 애통하는 소리, 자식 잃고 우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는구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9. 헤로데가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20.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이미 죽었으니 일어나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하고 일러 주었다. 21.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왔다. 22. 그러나 아르켈라오가 자기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리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다시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가서 23. 나자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그를 나자렛 사람이라 부르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교리 요점

*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이다.
* 주님은 때가 찼을 때(in the fullness of time, plenituck temporis)오셨다. 즉 어떤 선과 진리도 인간 중에 더 이상 없을 때 주님은 오신 것이다.

해설

부모들은 성탄 절기 때 아이들을 위해 선물과 음식을 준비하고 나무를 장식하는 일들로 바쁘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쉽게 잊는 선물 중 가장 큰 선물은 성탄의 거룩함과 성탄의 의미에 관한 지식이다.

성탄절 첫 해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크고 풍부한, 이전에 없었던 선물 즉 그분 자신을 주셨다. 우리는 이에 대해 그분의 생일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가 선물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을 때도 흔하다.

우리는 주님의 생일날 그분에게 선물을 드려야 한다. 동방 박사들은 그분에게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을 선물로 드렸다. 선물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선물들을 드린 것은 그것들의 물질적인 가치 때문은 아니었다. 그들은 세 가지 선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별을 보았을 때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있었음과 같다. 그들은 주님과 가까이 살면서 창조된 모든 것들의 상응적 의미를 알았던 고대 시대로부터 전해 온 지식의 일부를 전해 받고 그것을 간직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었다.

금은 사랑을 상징하며,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것 중의 하나이다. 유향은 우리의 지성, 생각, 신뢰 그리고 믿음의 헌납이다. 몰약은 나무의 진한 액으로 아주 쓴맛을 지닌다. 이는 금과 유향이라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과히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선물을 삶 가운데서 기꺼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때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쪽에서 삶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며 올바른 길을 흠모하면, 주님은 우리의 진리가 비록 작더라도 동방 박사의 길을 안내한 별처럼 우리를 안내해 주셔서 그분께 근접할 수 있도록 하신다. 또한 우리는 베들레헴 근처 거룩한 땅에 살고 있는 목자와도 같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 양육되고 부모에게 올바른 길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목자들은 큰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은 아주 먼 곳의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빛과 같은 것이다. 목자들은 주님께 가는데 박사들의 긴 여행이 아닌 아주 짧은 거리만을 갔다. 그러나 주님을 발견하는 조건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즉, 선한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바램만이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상징하는 별 또는 마음의 진리를 밝히는 빛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먼 옛날 현명한 박사들처럼 우리도 슬기로워져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받기 위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발견할 때 그분의 발아래 우리의 선물을 내 놓을 것이다. 우리의 선물은 우리의 사랑인 황금, 우리의 신뢰와 믿음인 유향 그리고 우리의 순종인 몰약이다. 우리는 이 선물을 준비함에 있어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9293항)」: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은 사랑의 선과 주님에 대한 믿음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금은 사랑으로부터의 선에 속한 것들, 유향은 믿음으로부터의 선에 속한 것들 그리고 몰약은 사랑과 믿음이 외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방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고대 시대로부터 내려온 선조들의 지혜나 지식이 있었다. 이 지식이란 세상과 지상에 존재하는 것들 안에 있는 천적인 것과 신성한 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천국이나 신성과 상응되어 표현됨과 그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므로,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주님께 바쳤다. 이런 사실은 이방인들의 오래된 기념비들 혹은 오래된 책들을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은 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이 하느님께 바쳐야할 선들을 의미함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고대 교회 속에 있었던 예언적 저술로부터도 주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과 그 때에 별이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질문 정리

1)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인가?
2) 주님은 언제 세상에 오셨는가?
3)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4) 주님 외에 누가 그곳에서 태어났는가?
5) 박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6) 왜 그들이 오게 되었는가?
7) 그들은 별의 의미를 어떻게 알았는가?
8) 그들은 먼저 어디로 갔는가?
9) 헤로데는 박사들이 찾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가?
10) 박사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정확한 장소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11) 그들은 어떤 예물을 주님께 바쳤는가?
12) 박사들은 왜 헤로데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는가?
13) 요셉은 주님을 어디로 피신시켰는가?
14) 요셉은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가?
15) 헤로데는 어떤 참혹한 짓을 행했는가?
16) 주님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 모시도록 요셉에게 언제 말해졌는가?
17) 그들은 어디를 거주지로 정했는가?
18) 첫 성탄절 날 주님은 어떤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19)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예수 2) 각 년도가 해당됨 3) 베들레헴 4) 베냐민, 다윗 5) 동쪽 6) 별을 보았기 때문 7) 상응에 관한 고대 지식으로 8) 예루살렘 9) 율법 학자들이 예언서에서 발견했다 10) 별의 인도로 11) 금, 유황, 몰약 12) 꿈에 지시를 받았기 때문 13) 이집트 14) 꿈으로 15) 베들레헴 주위의 모든 사내아이들을 죽였다 16) 헤로데가 죽은 후 17) 갈릴래아의 나자렛 18) 그분 자신 19) 사랑, 믿음, 순종

28

세례를 받으신 주님

머리말

세례자 요한에 관한 면모를 살피기 위해 마태복음 11장 7-15절과 14장 1-1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11절을 읽어 보자. 또한 누가복음 1장 5-20절과 39-45절 그리고 57-80절, 누가복음 3장 10-14절, 요한복음 1장 19-30절,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말라기 4장 5-6절을 읽고 본문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하자.

성 서 본 문: 마태복음 3장

3장: 1.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2.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선포하였다. 3.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4.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다. 5. 그 때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유다 각 지방과 요르단 강 부근의 사람들이 다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가서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많은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 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8.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써 보여라. 9.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사실 하느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12. 그분은 손에 키를 드시고 타작마당의 곡식을 깨끗이 가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13.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

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 오셨다. 14.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15.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하고 대답하였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시는 대로 하였다.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홀연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17. 그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교리 요점

* 세례란 거듭남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회개와 개혁을 뜻한다.

해설

구약 성서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악해져서 주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질 때 즉 주님이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들에게 닿을 수 없을 때 주님 스스로 메시아 혹은 기름 부은 자(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수차례 예언되었다. 강림의 때가 가까이 이르면 주님의 길을 닦을 전달자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

사람은 한 번 나쁜 습관으로 빠지게 되면 단번에 그것을 고칠 수 없다. 심리학자들 중에는 자살의 이유 중의 하나가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한꺼번에 실감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 안의 악들을 인식하는 것 또한 단계별로 조금씩 덜 한 것부터 인식하기 시작해 하나하나씩 그 악들과 싸워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점진적으로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들로 재구성해 나가 결국 선을 사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주님 앞에 보내진 전달자이다.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다. 천국은 그 나라를 원하는 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천국을 손에 쥐는 조건의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다. 세례자 요한은

말씀 속의 교훈을 배우며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바깥 삶 즉 일상생활을 정리 정돈하여 깨끗케 함을 표현한다. 세례자 요한이 말한 더 높은 차원의 세례 즉 주님이 주시는 세례인 성령과 불의 세례는 우리가 삶의 행위적 측면(일상생활)들을 질서에 맞게 해 놓아 그분의 길을 예비해 놓으면 우리의 지성 안에는 그분의 진리가 들어오고 우리의 심정 안에는 그분의 이타적 사랑이 들어오게 됨을 말한다. 즉, 우리가 책임지고 이루어야 할 부분은 세례자 요한인 물세례에 해당되며 이것을 이룬 후 그 다음은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다.

주님은 사실 우리처럼 회개해야 하는 어떤 악도 범하지 않으셨다. 이는 본문 14절에 있는 요한의 말로 잘 표현된다. 주님은 우리의 본보기이시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례받기를 원하셨다. 우리는 본문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세례 받아야 하는 중요성을 이해할 것이다.

세례 그 자체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려는 의도와 바램을 나타내는 거룩한 상징이다. 성인이 세례를 받을 때는 당사자 스스로가 이 고백을 한다. 유아나 어린이가 세례 받을 경우는 부모가 기독교적 생활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서약한다. 외형적 세례는 세례 받은 이들을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 모임에 소개하는 것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세례는 성서에서 취해진 말씀을 가지고 수행된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기독교 천사들과 세례 받은 자를 연결해 준다. 그리고 이 행위는 주님이 새로운 길로 세례 받은 이에게 도달할 수 있는 다리도 만들어 준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9372항)」: "성경에는 말씀에 관한 측면으로 또는 신성한 진리로 주님을 표현하는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아주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요한이 거처했던 유다 광야란 주님이 세상에 오실 당시에 말씀이 사람들 속에 점유된 상태를 표현한다. 말씀의 가장 바깥 면 또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외적 양상은 세례자 요한의 '음식'과 '옷'으로 기술되어 있다. '낙타의 털'이란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난 기억속의 진리(memory-truths)들을 의미하고, '가죽띠'란 모든 내용적인 것들을 질서적으로 보존

되도록 연결하는 외적인 묶임(bond)을 의미한다. '메뚜기'란 아주 보편적인 진리 또는 말단에 있는 진리를 의미한다. '들 꿀'이란 이러한 끝 진리들이 산출하는 즐거움(pleasantness)을 의미한다."

「진정한 기독 종교 (True Christian Religion 제 677-684항)」: "세례의 첫 효용(use)은 세례인이 기독교회로 입문되는 것과 동시에 영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세례가 교회로의 입문을 상징한다는 것은 유아 세례를 살펴보면 이해된다. 유아들은 아직 어떤 이성적 능력도 없고 이제 막 뻗어 나온 새 가지와 같아 믿음에 속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다. 그러나 유아들은 세례를 통해 기독교 천국에 소개되고 그곳에서 돌봄을 받도록 주님에 의해 천사들이 할당된다. 세례의 두 번째 효용은 기독교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속량자, 구세주를 알고 인식하여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함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삶을 영위해 간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세례의 세 번째 효용 곧 마지막 효용은 인간이 거듭남을 의미하며, 이는 각 세례가 존재하는 목적에 해당되는 본질적 효용이므로 마지막 세례이다."

질문 정리

1)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2) 주님은 헤로데로부터 구원되기 위해 어느 곳으로 피신하셨는가?
3) 주님의 공생애는 몇세에 시작 되었는가?
4) 누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졌는가?
5) 세례자 요한은 어떤 옷을 걸치고 있었는가?
6) 그의 음식은 무엇인가?
7)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8) 그는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9) 요한이 말한 세 가지 세례란 무엇인가?
10) 누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는가?
11) 예수를 보고 요한은 무엇을 느꼈는가?

12) 주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3) 주님이 세례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내려 온 것은 무엇인가?
14) 하늘로부터의 음성은 어떻게 말했는가?
15) 세례의 세 가지는 무엇을 묘사하는가?
16) 세 가지 세례의 효용들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베들레헴 2) 이집트 3) 30세 4) 세례자 요한
5) 낙타 털옷에 가죽 띠 6) 메뚜기와 들 꿀 7) 회개하라! 8) 요르단 강
9) 물, 성령, 불세례 10) 예수 11) 자신의 무가치함
12) "이렇게 해야... 하느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13) 비둘기 14)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15) 회개, 개혁, 거듭남
16) ①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불리게 되고
② 그가 주님을 알고 따르며
③ 그의 삶의 안과 밖이 모두 거듭 나게 되는 것

29
시험을 받으신 주님

머리말

본과의 내용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문제로 여겨질 것이다. 우리는 각자에게 오는 시험을 똑바로 보고 굳세게 싸워나감을 배워갈 때만이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의를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바램은 총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허사가 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스러

운 상태에 있을 때 이를 고치려거나 제지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때로 그것을 단행하기 위해 심한 꾸지람이나 매를 들지만 쉽게 교정하지 못하기도 한다. 우리는 본과를 통해 시험은 지옥에서 오는 것이며 각 사람의 지성과 심정을 장악하기 위한 악령과 천사들의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싸움의 결정적 요소는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서: 마태복음 4장 1-11절

4장: 1. 그 뒤에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2. 사십 주야를 단식하시고 나서 몹시 시장하셨을 때에 3. 유혹하는 자가 와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4.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5. 그러자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 너를 시중들게 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소?" 하고 말하였다. 7. 예수께서는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는 말씀도 성서에 있다"하고 대답하셨다. 8. 악마는 다시 아주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 주며 9. "당신이 내 앞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하고 말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시지 않았느냐?"하고 대답하셨다. 11. 마침내 악마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

교리 요점

* 주님은 지상생활 동안 많은 시험들을 받으셨다.
* 우리의 영은 처음부터 영계에 존재하여서 좋은 영들과 나쁜 영들 양쪽 모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해설

주님이 아기였을 때 이집트에 머문 구절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는 앞서 공부를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무지에서 출발해 배움을 통해 기억적 지식을 획득하고 또 그를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셔야만 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습득하기로 선택한 지식은 구약성경이었다. 본문에서는 그분이 어떻게 습득된 지식의 일부를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작하자마자 그것이 뒤틀리고 깨뜨려지도록 하는 시험을 겪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받으셨음에 대한 이유이다. 40일간의 주님의 시험은 그분의 공생애를 위한 준비과정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응을 통한 깊은 의미들이 함축 되어 있다. 이 때, 주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수행된 그분의 모든 시험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는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도 설명해 준다. 시험은 본질적 성격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즉, 주님을 꾸준히 찾는 대신 외향으로 나타나는 선함만을 만족하는 형태의 시험과 우리가 교회에 잘 참석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만 되풀이하면 지상에서 우리의 삶에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시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아주 돌아서서 자신의 복지에만 몰입하는 삶을 영위하는 시험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악마는 상징적 모양새로 지옥의 영향력을 표현한다. 각 시험마다 주님은 “성서에 .... 쓰여 있나니 ....” 라는 형식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다. 주님의 권능은 말씀의 글자 안에 존재한다. 말씀의 글자는 우리와 주님 그리고 천사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주님과 천사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담긴 말씀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우리가 규칙적으로 매일 성경을 반복하여 읽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며 그들이 말씀의 구절을 암송하도록 해야 함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첫 번째 사항은 성경을 빠지는

날이 없이 매일 읽으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끊임없이 붙어 다니는 죄”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한 결점들이 있다.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신의 나쁜 습관을 금하거나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구절을 찾아내서 그 구절을 늘 마음에 간직하며 시험이 들 때마다 그 구절을 상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볶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690항): 주님의 삶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시험을 겪으신 것과 그 시험들을 모두 승리로 이끄신 것으로 가득하였음은 구약성서의 말씀 중 많은 것들을 통해 증거가 된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험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암시된다. “악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해 본 끝에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4:13)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까지 즉 인성을 가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로 증명이 된다... 주님의 마지막 시험은 그분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적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인데, 이것은 곧 세계의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 주님의 삶을 증거 하는 복음서들은 광야에서의 시험을 제외하면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그분이 겪으신 다른 시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겪으시는 시험들의 진정한 의미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 까닭은 글자적인 의미로 나타내어 질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약하여 이러한 수준에서 말하고 대답하는 것은 영적인 시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겪으신 시험은 인간의 범주에서는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비통한 것이었다. 마태(4:1-11), 마가(1:12-13) 그리고 누가(4:1-13) 복음서들에 있는 시험에 대한 증거들은 모든 시험을 요약적으로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전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써 지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맞서 싸우셨음이다. 모든 시험은 그 사람의 중심원리가 되는 사랑을 공략한다. 그래서 시험은 그 사람이 가진 사랑의 정도만큼에서 있게 된다. 사랑이 공격받지 않는다면 시험도 없다. 그 이유는 사랑이 파괴되면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는 사랑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생명은 전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위대하여 순수한 사랑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도가 없다.... 주님의 참 생명인 사랑은 "그분의 배고프심"으로 의미된다. 그분이 세상사랑 즉 세상사랑 속에 있는 모든 것과 싸우셨다는 것은 '악마가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로 표현되고 있다. 그분이 자아사랑 즉 자아사랑에 속한 모든 것과 싸우셨다는 것은 '악마는 예수를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가서...'로 표현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승리하셨음은 시험이 끝난 후에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들었다'라고 말해진 것으로 요약된다."

질문 정리

1)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누가 왔었는가?
2) 세례자 요한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3) 그는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4) 그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5) 주님이 세례 받으러 오시자,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6) 주님은 뭐라고 답변 하셨는가?
7) 주님이 세례 받으시자, 하늘로부터 무엇이 내려왔는가?
8) 하늘의 음성은 뭐라고 말했는가?
9) 세례 받으신 후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10) 주님은 광야에서 얼마 동안 계셨는가?
11) 거기서 누가 주님을 시험했는가?
12) 첫 시험은 무엇인가?
13)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14)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15) 매 시험마다 주님은 어떻게 답하셨는가?
16)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도록 유혹될 때 재빨리 사용할 수 있는 두 마디의 말은 무엇인가?
17) 시험이 끝나자 누가 와서 주님을 시중들었는가?

18) 세 가지 시험은 각기 무엇을 의미하는가?
19) 왜 주님은 시험 받으셨는가?

질문의 답

1) 세례자 요한 2) 유다 광야 3)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음 4) 회개하라! 5) "제가 선생님께 세례 받아야 합니다." 6)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7) 비둘기 8)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9) 광야 10) 40일 11) "악마"
12) 돌이 빵이 되게 해 보라 13) 스스로 뛰어 내려 보라 14) 악마에게 절해보라 15) "성서에 ...라고 쓰여 있다" 16) "사탄아 물러가라!" 17) 천사 18) ① 선함을 자연적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 ② 우리가 어리석은데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③ 주님의 뜻을 배우고 행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 19) 그분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30
주님의 첫 제자들

머리말

본과를 통해 제자와 사도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 두자.

성서: 마태복음 4장 12-25절

4장: 12.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래아로 가셨다. 13.

그러나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즈불룬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14.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15. “즈불룬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7.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 왔다”하고 말씀하셨다. 18. 예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아 형제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하시자 20.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갔다. 21.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22.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22.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 갔다. 23. 예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24.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25. 그러자 갈릴래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교리 요점

*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물질적으로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것과 똑같은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다.
*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상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야 할 것이다.

해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성장해

왔던 나자렛 지역을 떠나 갈릴래아 해변가인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는 것이다.

물은 진리를 상징하며, 바다는 진리가 한 장소에 많이 모여 있는 것 즉 우리의 기억(memory)을 묘사한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바다 중에서 거룩한 땅에 있는 갈릴래아와 사해는 가장 중요한 바다로 등장한다. 요르단 강 역시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요르단의 명칭은 "내려가는 것, descender"이란 의미이며, 이는 주님으로부터 인간의 마음 안으로 흘러 내려가는 진리를 상징한다. 이 두 바다는 우리 내의 두 가지 다른 수준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요르단 강물은 갈릴래아 바다와 사해 바다로 흘러간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분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 물론 앎의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어떤 이는 말씀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그것들을 활용함이 없어서 결국 무엇도 이룸이 없게 된다. 즉,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을 담고 있는 지성(mind)이 바로 사해이다. 사해에는 고기가 없으므로, 어부와 배도 없다. 반면, 갈릴래아 바다는 고기로 가득해 고기잡이배가 언제나 그 위에 떠 있고, 그곳의 많은 이들은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것은 아직 영적 영역이 파괴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 안에 꺼내져서 사용되는 것을 기다리는 말씀으로부터 온 살아있는 진리가 가득함을 의미한다. 이는 주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가버나움에서 사셨던 것과 그분의 첫 제자들이 어부였던 이유이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이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주님의 꾸준한 동반자로서 주님의 변모한 모습까지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그들은 학식 있는 자들도 아니며 세상이 인정하는 중요 인물도 아니었다. 주님은 그들의 어떤 점을 보신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본문을 통해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주님을 인식했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그들의 모든 관심사와 이익을 버리고 즉각 그분을 따라나서며 그분께 순종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첫 제자(배우는 자)가 되었고, 후에는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란 "파견됨, sent out"이란 뜻이며,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한 자들이다.

기독교인으로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즉 "기름부은 자"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심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아 충족 혹은 세상적 포부를 위한 관심에서 벗어나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들을 배우며 그분께

순종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 곧 복음이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손닿기 어려운 더 폭넓은 대중에게, 즉 모두에게 도달되도록 노력하려고 일상 생활의 고아한 품성을 수단으로, 대회를 수단으로, 그리고 교회를 떠받드는 것을 수단으로, 등등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야하지 않을까? 우리가 진심으로 선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갈릴래아 바닷가에 살던 어부들과 같게 된다. 즉,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단순히 명령하신 것을 듣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pse Explained, 제 821항)」: "복음서의 말씀 중에 사도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온 선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의미하며, 어떤 경우 이와 반대 의미인 선으로부터 분리된 진리도 의미한다. 진리는 믿음 속에 있고 선은 선행(charity) 속에 있으므로, '베드로'는 선행으로부터 있는 믿음도 의미하게 된다. 어떤 경우 이와 반대되는 의미인 선행에서 분리된 믿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열 두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처럼 교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하므로 선과 진리들에 관한 모든 것을 표현한다. 이는 모든 진리들은 믿음 속에 있고, 선들은 사랑 속에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의미에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믿음, 선행 그리고 이타적인 행위들을 표현한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 주님을 따랐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셋을 하나로 표현한다. 세 사람들이 하나인 이유는 선행 없이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며 이타적인 행위가 없는 선행은 참된 선행이 아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믿음에 대한 순종을 뜻하는 안드레아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았다.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 받아졌다. 또한 주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그분은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 주셨고, 시대의 종말과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도 했다. 또한 주님은 게쎄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도아네르게스이라고 기술된다. '천둥의 아들'이

란 천적인 선에서 나온 진리를 의미한다. 요한은 선한 일이란 측면에서 교회를 표현한다. 선한 일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선행에 속한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요한은 다른 제자보다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질문 정리

1)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어떤 바다 근처에 주거지를 두셨는가?
2) 그분이 사신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
3) 주님이 부르신 첫 제자들은 누구인가?
4) 그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5) 그들은 부름 받을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6) 주님은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7) 주님이 부르시자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8) 주님의 공생애를 구성하는 세 가지 형태는 무엇인가?
9)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형태는 무엇인가?
10) 주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11) 바다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12) 고기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13) "사람의 어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1) 갈릴래아 2) 가버나움 3)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4) 어부
5) 그물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 6) "나를 따라 오라" 7) 즉각 따라 나섰다.
8) 가르침, 전도하심, 병을 고치심 9) 마귀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
10) 사방 각처에서 왔음 11) 기억 안에 모아진 지식 12) 지식에 대한 애착
13) 주님의 왕국으로 다른 이들을 이끄는 것

31
산 위에서의 설교

머리말

산 위에서의 설교 규모를 가늠해 봄으로써 세심하게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리고 최소한 마지막 비유는 기억하도록 하자.

성서: 마태복음 5, 6, 7장

5장: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2.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7.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9.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10.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터무니없는 말로 갖은 비난을 다 받게 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너희에 앞서 같은 박해를 받았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15. 등불을 켜서 됫박으로 덮어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 둔다. 그래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16.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18. 분명히 말해 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일 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20.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 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더러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24.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 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 와 예물을 드려라. 25. 누가 너를 고소하여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서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형리에게 내 주어 감옥에 가둘 것이다. 26. 분명히 말해 둔다.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풀려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 29. 오른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 던져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0.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 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31. "또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면 그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32.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33. "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 맹세한 것은 다 지켜라'고 옛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느님의 옥좌이다. 35.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그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다. 37. 너희는 그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8.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앙갚음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 주어라. 41. 누가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주어라. 42.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46.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8.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6장: 1. "너희는 일부러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 2.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3.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그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5. "기도할 때에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6.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 주실 것이다." 7.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 주시는 줄 안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벌써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9.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10.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11.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4.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16.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에 그 기색을 하고 다닌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17. 단식할 때에는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18. 그리하여 단식하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19. "재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먹거나 녹이 슬어 못쓰게 되며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간다. 그러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서는 좀먹거나 녹슬어 못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 와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며 23.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만일 네 마음의 빛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25.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26.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늘일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온갖 신성화 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 입지 못하였다. 30.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32.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7장: 1.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 받지 않을 것이다. 2.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을 저울질하는 대로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3.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제 눈 속에 들어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네 눈의 티를 빼내어 주겠다'고 하겠느냐? 5.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 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7. "구하라, 받을 것이다. 찾으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8.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9.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10.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1.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2.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14.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 드는 사람이 적다." 15.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마는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 있다. 16. 너희는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마련이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 행위를 보아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21. "나더러 '주님, 주님'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22.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하고 말할 것이다. 23. 그러나 그 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다." 24.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25.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26. 그러나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 비가 내려 큰물이 밀려오고 또 바람이 불어 들이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다. 29.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교리 요점

* 주님의 진리 위에 인격이 세워져야 한다.
* 복이란 주님에 의해 주어진 행복을 위한 규율이다.

해설

앞서 공부했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주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각 곳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병을 치료하셨다고 쓰여 있다. 따라서 그분이 많은 설교를 하셨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분이 강연하셨던 목적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본문의 첫 부분도 "예수께서는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시작된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들을 언제나 "산 위에서의 설교"라고 부른다.

갈릴리에 있는 산은 세상적인 삶의 평면 위에 있게 되는 영적인 전망대 또는 영적인 견해를 상징한다. 영적인 견해와 자연적인 견해는 본질적 면에서 수준이 다르다. 인간적으로 지혜롭다는 견해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 설교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설교는 축복으로 시작하고 있다. "복 있음(blessed)"이란 행복(happy)을 의미한다. 축복 조항을 읽고, 그곳에서 언급된 조건 중 어느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보자.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으로,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다. 이천 여 년 전 주님의 육성으로부터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그분이 진리를 말함을 인식했음은 본문 7장 마지막 절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

5-7장까지 산 위에서의 설교에는 각각 유명한 단원이 있다. 제 5장은 주님이 주시는 복, 제 6장은 주님의 기도 그리고 제 7장은 황금률에 관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매우 평범하며 실제적인 교훈이 담겨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경험과 문제들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올바른 것을 알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십계명은 세상이 변하더라도 선한 삶의 기본 법칙이라는 것, 외향적 선한 삶만으로 충분치 않고 올바른 심정을 가져야 하는 것,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닌 자아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우리 삶의 본보기로 삼아 정진해야 한다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을 행하고 하늘에서의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적 미래를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상적 성공을 하지 못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남을 비평하기 보다는 자신을 비평해야 한다는 것, 열심히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이 그 예이다.

성직자들은 본문의 구절에서 많은 설교 재료들을 발견한다. 7장의 마지막 비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모든 노력을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인격이라는 집을 지어야 할 기초가 하느님의 진리를 상징하는 반석임을 보여 준다. 주님은 인간적 편견을 상징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음을 경고하고 계시며, 구원의 길은 이를 피하여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신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9207항)」: "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의 소금'이란 선을 갈망하는 교회속의 진리들을 의미한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함은 어떤 선도 갈망하지 않는 진리를 뜻한다. 이러한 진리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음을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다'라고 기술된다. 따라서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즉, 선을 갈망한다는 것은 선을 행함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며 이로 인해서만이 진리와 선이 합쳐진다."

「계시록 설명 (Apocalpse Explained 제 1193항)」: "인간이 유용함을 삶으로서 사랑하는 것을 첫 째로, 세상 사랑과 자아 사랑을 두 번째로 하면, 전자는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구성하며 후자는 자연적인 것을 구성하게 된다. 이것은 마태복음서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6:33) '그의 나라 즉 하늘나라'란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의미한다. '의(justice)'란 영적, 도덕적 그리고 시민적 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행해지는 모든 선이 곧 하나의 유용(use)이다.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유용함이 우선 순위에 놓이게 되면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선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삶은 그분의 지배를 받아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뜻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 관계된 하느님의 섭리는 영원한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더 주시는 모든 것'은 양식과 의복에 관련되어 기술된다. 양식(food)은 영혼에 영양을 공급하는 모든 내적인 것을 뜻하고, 의복(raiment)은 육체가 의복으로 옷 입혀져 있듯이 모든 외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내적인 것은 사랑과 지혜와 관계되며, 모든 외적인 것은 부귀 혹은 명예와 연관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유용함 그 자체를 위해 유용함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해준다. 인간의 지혜는 곧 유용함에서 오는 것이며, 이러한 지혜는 바로 천국에서의 부귀의 척도가 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질문 정리

1) 주님은 세례 받으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2)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3) 매 시험 때마다 주님은 악마에게 어떤 형식으로 대답 하셨는가?
4)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5) 산 위에서의 설교는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6) 복 있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7) 주님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과 같은 복을 열거하셨는가?
8) 주님은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치셨는가?
9) 산 위에서의 설교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0) 6장에서의 유명한 단원은 무엇인가?
11) 7장에서는 유명한 단원은 무엇인가?
12) 황금률의 구절을 기억하는가?
13) 산 위에서의 설교는 어떤 비유로 마무리되는가?
14) 우리의 집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15) 집을 세우기 위한 안전한 반석은 무엇을 뜻하는가?
16) 인간의 견해는 왜 모래와 같은가?
17) 주님은 왜 권위를 갖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질문의 답

1) 광야 2) 시험 받으셨다 3) "성서에... 라고 씌였나니..." 4) 산 위에서의 설교 5) 복(blessings), Beatitude 6) 행복(happy) 7) 아님 8) 주님 9) 3장 10)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11) 황금률 (the Golden Rule)
12) 성서참조 (마태 7:12, 누가 6:31) 13)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14) 우리의 인격 15) 말씀에서 온 진리 16)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통일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17) 그분은 권위를 가졌기 때문이다

32
주님의 공생애

머리말

본문은 주님의 공생애를 간략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다.

성서: 마태복음 8장

8장: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뒤따랐다. 2. 그 때에 나병환자 하나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주님, 주님은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하고 간청하였다. 3.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렇게 해 주마. 깨끗하게 되어라”하고 말씀하시자 대뜸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4.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해 준 대로 예물을 드려 네 몸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5. 예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 가셨을 때에 한 백인대장이 예수께 와서 6. “주님, 제 하인이 중풍 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하고 사정하였다. 7.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마”하시자 8. 백인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9.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하고 대답하였다. 10.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감탄하시며 따라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어떤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1. 잘 들어라. 많은 사람이 사방에서 모여 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겠으나 12. 이 나라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13. 그리고 나서 백인대장에게 “가 보아라.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마침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것을 보시고 15. 예수께서 부인의 손을 잡으시자 그는 곧 열이 내려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시중들었다. 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마귀 들린 사람을 많이 데려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 한 마디로 악령을 쫓아내시고 다른 병자들도 모두 고쳐 주셨다. 17. 이리하여 예언자 이시야가, “그분은 몸소 우리의 허약함을 맡아 주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예수께서는 둘러서 있는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다. 19. 그런데 한 율법학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 가겠습니

다."하고 말하였다. 20.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하고 말씀하셨다. 21.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 주십시오"하고 청하였다. 22.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 24. 그 때 마침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들이 곁에 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하고 부르짖었다.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하시며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사방이 아주 고요해졌다. 27.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래져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하며 수군거렸다. 28.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마귀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29.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하느님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간섭하시려는 것입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하고 소리 질렀다. 30. 마침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놓아기르는 돼지 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31. 마귀들은 예수께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들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하고 간청하였다. 32.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자 마귀들은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 떼는 온통 비탈을 내리달려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 빠져 죽었다. 33. 돼지 치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읍내로 달려가서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사람들의 일을 알렸다. 34. 그러자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서 예수를 보고는 저희 고장에서 떠나 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교리 요점

* 모든 치료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다.
* 기적은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행하시는 것을 가르쳐 준다.
* 말씀 속의 모든 질병은 영혼의 결함 혹은 어떤 약함과 상응된다.

해설

주님의 공생애는 가르침과 전도 그리고 병 고침으로 구성된다. 본문을 8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여러 가지 실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접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주님도 병을 고치셨고 그의 사도들에게도 병을 고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회들도 이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마누엘 스웨덴볶의 저술에서 이러한 견해에 대한 명백하고 합당한 가르침을 발견한다. 그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거나 약을 먹지 않아도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병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계에 있는 선물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 그분이 창조해 놓으신 각종 자연물의 도움을 얻어 올바르게 정정될 수 있다. 이 또한 의사들의 전문 분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들도 잘 치료할 수 없는 경우와 의사들이 "포기"한 것이 치료될 때도 보게 된다. 마지막 치료는 언제나 하느님의 섭리 하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데, 그분은 왜 언제나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주님의 원칙적인 주된 관심사는 건강한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영혼을 수반한다고 할 수 없다. 우리가 한 결 같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느님의 법률을 자연적 측면과 영적 측면에서 완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질병 혹은 사고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를 멈추어 생각하기 전 우리의 무식함, 이기심, 불순종 등의 결과로 고통 받도록 허용되어질 필요가 있다. 심지어 순진한 어린 아이들까지도 세상이 악들을 일깨워 주기 전 타고난 것들로 고통 받아야 하는 것이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사람들은 율법 혹은 물질적 세계보다 높은 세계에 대해 무지했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그분이 베푸시는 능력의 가시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신체적 또는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주님과 천국적인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요인이 발생될 때 종종 위의 사항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된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육체적 건강을 가장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헬렌 켈러(Helen keller)를 떠올려 보자. 그녀는 세상에서 아주 유용한 삶을 보낸 이들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의 불리한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밝고 강건한 삶을 이끌어 후세대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물질적 몸을 한 쪽에 두고 저 세계에서 깨어날 때 쓰이는 건강한 영적 몸이 진실로 중요함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켈러 여사는 이를 실천했다) 이는 우리가 영원히 지니고 살아갈 것이 영적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몸은 일상생활 가운데 선 혹은 악의 선택에 따라 건설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하느님의 섭리 (Divine Providence 제 133항)」: "기적에 대한 결과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있어서 다르다. 선한 이들은 기적을 바라지 않고 말씀의 기록을 믿는다. 그러나 악한 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기적으로 믿음을 강요하거나 그 자체에 빠져들어 그것을 예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도 아주 잠시일 뿐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악들이 그것을 계속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악들에 있는 탐욕과 탐욕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외적 예배나 외적 경건함에만 치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적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일컬어 하나의 속임수, 만들어진 사건 혹은 자연에 있는 우연한 일이라고 단정하며 즉시 악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잠시 예배한 뒤 뒤돌아서서 진정한 예배에 있는 선과 진리를 모독한다. 이러한 모독을 일삼는 이들이 가 있는 사후 세계는 모든 것 중에서도 최악의 상태이다. 말씀에 있는 기적들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적을 수행해야 한다면, 기적들은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기적이 없는 것에 대한 답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질문 정리

1) 주님의 공생애 중에 그분이 행하신 세 가지는 무엇인가?
2) 본문은 주님의 세 가지 일 중 주로 무엇에 해당되는가?
3) 기적이란 무엇인가?
4) 주님이 고치신 질병들은 무엇인가?
5)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지닌 어떤 병을 낫게 하셨는가?
6) 주님은 백인대장의 하인을 어떻게 낫게 하셨는가?
7) 주님은 제자들과 어디로 가셨는가?
8) 바다 한 가운데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9) 사람들이 주님을 깨우자,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0) 주님은 바다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11) 각기 다른 질병들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2) 주님이 병을 치료 하시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13) 주님은 지상에 계신 동안 왜 기적을 수행하셨는가?
14) 오늘날의 우리는 왜 기적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가?

질문의 답

1) 가르침, 전도, 병 고침 2) 병 고침 3) 주님에 의해 행해진 굉장한 일들
4) 나병, 중풍, 열병, 귀신들린 자 5) 열병 6) 그분의 말씀으로 7) 배를 타셨다
8) 풍랑을 만났다 9)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10)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11) 영혼의 약함과 결점들
12) 주님이 낫게 해 주신다는 믿음을 환자가 지녀야 했다.
13)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에 기적들이 기록되게 하시려고
14) 믿음을 강요당할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33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

머리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면 반드시 죽기 전에 우리들 속에 천국이 와 있어야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진리의 씨를 받아 잘 키우게 될 때 우리 속의 천국이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감을 언급한다.

성서: 마태복음 13장

13장: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2.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 들었다.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로 나갔다. 4.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5.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6. 해가 뜨자 타 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7.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8.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백배가 된 것도 있고 육십 배가 된 것도 있고 삼십 배가 된 것도 있었다. 9.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10. 제자들이 예수께 가까이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11.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였다. 12.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 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 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18.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 보아라. 19.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21.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22.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3.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는다." 24.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25.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26. 밀이 자라서 이삭이 팼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27.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이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28. 주인의 대답이 '원수가 그랬구나!' 하였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자 29. 주인은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 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게 하겠다.' 고 대답하였다." 31.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에 비길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겨자씨를 뿌렸다. 32.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귀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 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어떤 누룩에 비길 수 있다." 34.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그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내가 말할 때에는 비유로 말하겠고 천지 창조 때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36. 그 뒤에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그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했다. 37.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38.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40. 그러므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서 묶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끝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 그날이 오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모조리 자기 나라에서 추려내어 42.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43.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44.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46.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47.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 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48.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49. 세상 끝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50. 불구덩이에 처넣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51.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한 말을 다 알아 듣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은 “예” 하고 대답하였다. 52.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낡은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53. “예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곳을 떠나 54.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며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55. 저 사람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56.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저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면서 57. 예수를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도 고향과 제 집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58.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별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교리 요점

* 하늘나라의 비유들은 천국적 인격의 발달을 다룬다.
* 모든 사람은 구원에 필요한 진리를 충분히 받고 있다.
* 주님의 진리는 그분의 진리에 순종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해설

본문은 주님께서 언제나 비유로(34절)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가르쳐 준다. 본문의 11절에서 15절까지는 주님 스스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언급하고 계신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분의 명확한 가르침에 대해 어떤 때는 무지하고 고집스러워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와 닿으려 하시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아주 단순하며 마치 응고되면 단단하게 하나로 굳어 버리는 시멘트처럼 하나로 뭉쳐서 우리 마음의 바닥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우리는 본문에서 일곱 개의 비유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이다. 비유를 떠올리면서 본문을 읽어 가면, 모든 비유가 하나로 엮여 하늘나라가 발달되는 과정을 확연히 알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속에서 천국이 발달되어져야 함을 뜻한다.

우리 속에서의 천국의 시작은 씨를 뿌리는 상황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속의

진리를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진리라는 모든 씨들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것들은 장차 새들이 휴식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마음에 취한 모든 씨들이 뿌리를 내려 자라나지는 않는다. 간혹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고 천박하며, 심지어는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해 진리들이 질식해 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가라지들, 즉 우리에게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 사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우리에게 참된 모습을 드러낸다. 시험이라는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고, 이렇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점차 순수해지게 된다. 이것은 마치 밀가루 반죽이 누룩에 의해 발효되어 마침내 맛있는 빵이 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네 개의 비유는 군중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다. 이는 진정한 주님의 추종자가 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단계로서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비유였기 때문이다. 그 후 주님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 더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군중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된다. 세상적 사람들은 하늘의 지식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자연적 혹은 이기적 야망을 포기하고 주님을 이해하며 예배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있는 것을 다 팔아” 진주를 사지 않는다.

마지막 비유에서 가르치시는 바는 주님 또는 자아를 선택하는 것이 매순간 마다 또는 날마다 반복되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행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행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선택(choice)은 우리가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본문에서 짚고 가야할 것은 49절에 있는 말, “세상 끝 날 .... (end of the world)”은 그리스어의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시대의 완결(종말), consummation of age”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은 물질세계의 파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자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단지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간주하여 주님의 현존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은 하느님이 유일한 인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임마누엘(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시다는 사실을 역사와 성경의 모든 증거로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큰 값어치가 있는 진주란 그리스도가 하느님 바로 그분이심을 진실로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이리하여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가 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함이 천국을 향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계시록 풀이 (Apocalypse Revealed 제 916항)」: " '그 열 두 문은 열 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라는 말씀은 주님에 관한 지식과 인식, 즉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이 하나로 연합되어 말씀으로부터 와서 교회에 소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열 두 진주' 역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들이 진주들' 이며 '문마다 한 진주'인 이유는 문은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들을 뜻하고, 한 개의 진주는 하나의 지식 즉 한 개의 그릇에 모아진 모든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지식이란 주님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 사실 이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아주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주님에 관한 지식은 교리에 속한 모든 것과 교리로부터 있게 되는 교회의 모든 것에 관한 보편적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분에 관한 지식과 인식이 진주 자체란 것은 마태복음서의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질문 정리

1) 비유란 무엇인가?
2) 주님은 왜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3) 본문의 비유들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4) 본문의 첫 비유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5) 주님은 왜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셨는가?
6)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7) 씨란 무엇인가?
8) 각기 다른 종류의 땅이란 무엇인가?

9)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살려면, 먼저 천국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10) 본문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가?
11) 그 비유들을 간단히 나열해보라.
12) 가라지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13) 비유 전체가 주는 일반적 교훈은 무엇인가?
14) 값진 진주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속뜻을 가진 이야기 2)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깊은 뜻을 지녔기 때문이다.
3)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이다. 4) 씨 뿌리는 사람
5) 그들은 열심히 배우려고 했다. 6) 주님 7) 말씀에서 온 진리
8) 각양각색의 마음들 9)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한다. 10) 일곱 개
11) 씨 뿌리는 사람,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물, 진주, 그물의 비유
12) 우리가 우리의 악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
13) 천국적 인격의 발달 14) 주님에 관한 지식과 인식

34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머리말

주님의 열 두 제자, 특별히 첫 네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한다. 그리고 「변모(transfigure)」의 의미를 본문의 구절들을 통해 공부한다.

성 서 본 문: 마태복음 17장

17장: 1. 엿새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만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 가셨다. 2. 그 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3. 그리고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4. 그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 5. 베드로의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6.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워서 땅에 엎드렸다. 7.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셨다. 8. 그들이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을 때는 예수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9.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하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10. 그 때에 제자들이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11. 예수께서는 "과연 엘리야가 와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을 것이다. 12. 그런데 실상 엘리야는 벌써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제멋대로 다루었다. 사람의 아들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하고 대답하셨다. 13. 그제야 비로소 제자들은 이것이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교리 요점

* 이 세상 삶은 우리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살찌울 때만이 중요하다.
* 주님은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준비도 되지 않은 진리로부터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 진리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으면 신성모독이 된다.

* 우리가 주님의 삶을 공부하고 그분의 삶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해설

「변모(transfiguration)」란 글자대로 보면 "얼굴이 바뀜"을 의미한다. 본과의 주제에 「변모」란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본문의 환상을 읽어 보면 이해될 것이다. 환상을 보도록 선택된 세 제자들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추종자들이었다. 주님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에게 특별한 교훈과 경험을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고백인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구절을 찾을 수 있다. 주님은 그 믿음이야말로 그분의 교회를 기초하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의 신성한 영광으로부터의 빛 안에서 뵙고 있다. 그럼에도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베드로의 첫 반응은 세 사람 모두 신성한 존재들로 보여서 모두를 예배하려 했던 것이다.

베드로의 첫 반응은 하늘로부터의 음성과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즉시 정정되었다. 그러나 세 제자들은 엘리야의 환상에 대해 의문을 떨치지 못했다. 이는 그들이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 의문에 대답해 주셨다. 세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1:21) 엘리야를 다시 보리라는 예언은 이미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으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벌써 말씀해주셨지만 단지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 (마태복음 11:7-15)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예언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보여 진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부활하신 뒤 "율법과 예언서 그리고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에 대한 것을 보여 주셨다. 세 제자들이 높은 산 위에서 가졌던 환상의 경험은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더욱 기억되며 이해되었을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 안에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비밀들이 있다. 이는 그들도 우리처럼 각자의 교육이나 환경에 제한되

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말씀이 전 시대의 모든 이들을 위해 주님에 의해 깊은 의미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본문의 높은 산은 사고의 높은 평면을 상징한다. 해같이 주님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깊은 측면이 하느님 자신임을 뜻한다. 우리의 해이시다는 것 혹은 그분의 의상이 "빛과 같이 희다"는 것은 순수한 진리를 묘사하며, 그 진리가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을 옷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은 그분만이 율법과 예언서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뜻이다. "제자들을 덮은 빛나는 구름"이란 글자적으로는 똑같은 말씀인 듯 보이나, 그 안에 담긴 신성한 의미로부터의 진리가 우리에게 열려질 때를 의미한다. 하늘로부터의 소리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이다. 주님은 삶의 길을 그분으로부터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549-2)」: "주님은 '변모하심'에서 말씀이신 신성한 진리를 표현하셨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을 때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진리로 만드셨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분은 강림의 시작부터 있어 온 신성 자체 (Divine Itself)에 신성한 진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분의 인성을 신성한 선(Divine Good)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변모하셨을 때 보여 진 특별한 사건들은 신성한 선으로부터 신성한 진리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사랑의 신성한 선들로부터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 신성한 진리를 가졌다. 이는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라로 표현된다. 그 이유는 얼굴은 내용물(interiors)을 표현하며, 내용물들은 얼굴을 통해 빛나기 때문이다. '해'란 신성한 사랑을 의미한다. 신성한 진리는 빛나는 옷으로 표현된다. 이는 신성한 진리가 천국의 빛을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씀 가운데서는 빛으로 의미되고 있다. 빛은 말씀이며 말씀은 신성한 진리이다. 이것은 말씀에서 '그분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남으로 표현된다.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을 의미한다. '모세'는 역사적 말씀을, '엘리야'는 예언적 말씀을 뜻한다. 글자적 측면에서의 말씀은 제자들을 뒤덮은 구름으로 표현된다. 제자들은 말씀에서의

교회를 표현하므로, 그들은 그때 혹은 그 후에도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로부터 진리에 있는 교회를 뜻한다. 계시와 응답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신성한 진리에 의해 이뤄지며 그 진리는 말씀의 글자적 의미에서의 진리와 같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게 된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진리 혹은 말씀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1) 주님이 처음 선택하신 네 제자는 누구인가?
2) 누가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았는가?
3) 변모란 무엇을 뜻하는가?
4) 변모하시는 모습을 어디서 보았는가?
5) 환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가 대화하고 있었는가?
6)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제안했는가?
7)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인가?
8) 그 뒤 제자들은 누구를 보았는가?
9)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당부하셨는가?
10) 제자들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가?
11)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12) 모세와 엘리야는 왜 주님과 함께 보여 졌는가?
13) 본문에서 세례자 요한이 거론된 이유는 무엇인가?
14) 변모하심의 이야기 속에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

질문의 답

1)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2)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얼굴이 바뀜
4) 높은 산 5) 모세, 엘리야 6) 세 초막을 지읍시다.
7) 빛나는 구름과 소리 8) 예수님만 보았다 9)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10)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나이까?”
11) 세례자 요한이 예언을 성취시켰다 12) 주님이 율법과 예언들을 구체화(embody) 하여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13) 회개를 가르치심 (첫 단계)
14) 주님을 뵙는 것은 말씀 안에서임을 믿는 모든 이 각각에게도 환상은 가능하다.

35
종려 주일

머리말

본과는 교회 절기 공부로 분류 되는데, 이는 특별한 날로 지키는 주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 마태복음 21장 1-27절

21장: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 보아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3. 혹시 누가 무어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 줄 것이다.” 4.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5.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네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6.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앉으시자 8.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펴 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 놓기도 하였다. 9.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시민이 들떠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다. 11. 사람들은 “이분은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요”하고 대답하였다. 12.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 가 거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 내시고 환금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13. 그리고 그들에게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하고 나무라셨다. 14. 그 때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던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이 앞으로 나오자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15.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이며 성전 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16. 예수께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들립니까?”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들린다.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하고 대답하셨다. 17.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성밖에 있는 베다니아로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18. 이튿날 아침에 예수께서 성안으로 들어오시다가 마침 시장하시던 참에 19.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곧 말라 버렸다. 20.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그렇게 당장 말라 버렸습니까?”하고 물었다. 21.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22.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24. “나도 한 가지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25. 요한은 누구에게서 권한을 받아 세례를 베풀었느냐? 하늘이 준 것이냐? 사람이 준 것이냐?”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 권한을 하늘이 주었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26. 사람이 주었다고 하면 모두들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군중이 가만있지 않을 테지?”하고 의논한 끝에 27.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교리 요점

*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율하는 원리가 우리 속의 “왕”이다.
*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사상을 포기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 던지게 된다.
* 주님만이 우리의 잘못된 사고와 이기적 바램들을 제거하셔서 우리 영혼 속의 “성전”을 깨끗케 하실 수 있다.

해설

종려주일이란 지상에서의 주님의 삶 중 마지막 주 초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님은 공생애 3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과 요르단 강 넘어까지 가셔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병을 치료하셨다. 주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 주심으로 인해 군중들은 그분을 따랐다. 그러나 그분이 군중을 매혹시키려 했다거나 군중들이 그분을 추종해서 기뻐하셨다는 기록은 없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

이 떡과 물고기를 위해 단지 그분을 따랐음을 명백히 말씀하시기도 했다. 또한 그분은 대다수의 군중이 그분을 떠나도록 하는 것들을 주저하시지 않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그들로부터 물러나서 그분의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본보기로서 주님을 택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적 일을 조용히 행하며 근심 없이 그것을 군중에 호소해야할 것이다. 주님은 "내 이름으로 모이는 두, 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사이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종려주일 즉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입성은 그분의 오심에 대한 징표를 드러내신 유일한 때였으며, 예언자 즈가리야를 통해 말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다. (즈가리야 9:9)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신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판관이나 왕들이 나귀를 타는 관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군중은 주님을 왕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분을 죽일 것임을 알고 계셨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왕은 한 나라가 인정한 통치자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치하도록 인정한 원리(principle)가 바로 우리의 "왕"이다. 우리에게는 앞서 「엘리야와 아합」에서 공부했던 바와 같이 선택이 주어져 있다. 선택은 주님 또는 바알이냐와 하느님의 진리 또는 세상적이고 자기주의의 원리이냐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쪽이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 우리는 우리의 충절을 양쪽으로 갈라놓을 수 없다. 주님은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둘을 다 섬기려 하면 우리의 영적 원리들이 희생됨을 그분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에 보여 주셨다.

사람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면서 그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그분 앞에 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입히고 있는 겉옷 즉 우리 자신의 사상을 기꺼이 포기하는 자발성을 표현한다. 또한 하느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치해야 하며, 우리와 세상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오는 모든 권능이 그분에게만 있음을 묘사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첫째로 이기적 이득을 위해 종교를 사용하고 있는 자들을 성전으로부터 몰아내셨다. 성전이란 영적 국면에서 우리의 인격을 상징한다.

성전을 깨끗하게 함이란 "영혼을 수색해서" 영혼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기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전을 깨끗케 하심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을 맺는 투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2781항 8번)」: " '나귀 위에 탄다는 것'은 자연적인 속성을 종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나귀의 아들인 망아지를 탄다는' 것은 자연적인 합리성을 종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들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전통적으로 나귀를 타는 것은 왕이나 가장 높은 판관의 관례라는 것과 더불어 교회의 표현적인 것들이 성취되어야만 했으므로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것이다. 위의 사항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그 시대의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 그리고 그분의 왕국에 있는 천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것이다. 암나귀나 암나귀에서 출생한 망아지도 이를 표현한다. 이 동물에 의해 선과 진리적인 측면에서의 자연적 인간이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유는 자연성이 합리성을, 합리성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은 천적인 것을 그리고 천적인 것은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종속되는 질서이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1) 오늘은 무슨 날인가?
2) 이 날은 무엇을 기념하는가?
3) 예루살렘 입성 때에 주님은 무엇을 타셨는가?
4) 제자들은 나귀 위에 무엇을 놓았는가?
5) 주님이 나귀를 타시자 그분 앞에 사람들은 무엇을 뿌렸는가?
6) 군중들은 뭐라고 외쳤는가?
7) 주님은 입성하신 후 어디로 가셨는가?
8) 그곳에서 주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9) 성전에 관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0) 이외에 주님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11) 주님은 밤을 어디서 보내셨는가?
12)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가?
13)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은 무엇을 그리는가?
14) 종려나무가지란 무엇을 그리는가?
15)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임은 우리 삶의 측면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1) 종려주일 2) 주님의 의기양양한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 3) 나귀 4) 그들의 겉 옷 5)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 6) 호산나 7) 성전 8)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를 내쫓으셨다 9)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10) 소경들과 절름발이들을 고쳐 주셨다
11) 베다니아 12)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13) 그분만이 그분의 자연적 이성을 신성의 지배 아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
14)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15) 그분의 법칙이 우리의 삶을 규율하며 그 규율에 순종해야 함을 인식하는 것

36
주님의 지상 마지막 주간

머리말

주님의 심문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사건의 순서를 글자적으로 확실히 아는데

중점 한다. 십자가란 주님의 선함과 진리가 모든 악의 권세를 정복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면 우리 역시 악의 정복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배반에 관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분을 배반하는 것임을 염두 하자. 그리고 과월절 축제 동안에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은 과월절을 대신하는 기독교회를 위한 것임도 기억하자.

성서: 마태복음 26; 27장

26장: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2. “너희가 알다시피 이제 이틀만 있으면 과월절이 되는데 그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잡혀 가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 그 무렵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파라는 대사제 관저에 모여 4. 흉계를 꾸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5. 그러면서도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만은 피하자”고 하였다. 6. 그 때 예수께서는 베다니아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는데 7.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8. 이것을 본 제자들은 분개하여 “이렇게 낭비를 하다니! 9. 이것을 팔면 많은 돈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하고 말했다. 10.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이 여자는 나에게 갸륵한 일을 했는데 왜 괴롭히느냐? 11.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언제까지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12.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다. 13.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14. 그 때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가리옷 사람 유다가 대사제들에게 가서 15.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를 넘겨 주면 그 값으로 얼마를 주겠소?”하자 그들은 은전 서른 닢을 내주었다. 16. 그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 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께서 드실 과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차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물었다. 18. 예수께서는 이렇게 일러 주셨다.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더러 ‘우리 선생님께서 자기 때가

가까 왔다고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과월절을 지내시겠다고 하십니다'고 말하여라." 19.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과월절 준비를 하였다. 20.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열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21. 같이 음식을 나누시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22.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하고 물었다. 2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 바로 나를 배반할 것이다. 24. 사람의 아들은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25. 그 때에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나서서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하고 묻자 예수께서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다. 26.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하시고 27.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28.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29. 잘 들어 두어라.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결코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하고 말씀하셨다. 30. 그들은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32.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그 때 베드로가 나서서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하였다. 34.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35. 베드로가 다시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하고 장담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36.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쎄마니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하시고 37.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38.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싸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와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어라"하시고는 39.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40.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에게 돌아 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41.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며 한탄하셨다. 42. 예수께서 다시 가셔서 “아버지, 이것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하고 기도하셨다. 43.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시니 그들이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44. 하는 수 없이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세 번째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5.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 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때가 왔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 손에 넘어 가게 되었다. 46. 일어나 가자. 나를 넘겨 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47.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 두 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몰려 왔다. 48. 배반자는 그들과 미리 암호를 짜고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붙잡아라.”고 일러두었던 것이다. 49. 그는 예수께 다가 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하고 인사하면서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께서 “자 이 사람아, 어서 할 일이나 하라”하고 말씀하시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51. 그 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사제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 버렸다. 52.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53.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 두 군단도 넘는 천사를 보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한 성서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고는 55. 무리를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전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을 때에는 나를 잡지 않다가 지금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56.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일어난 것이다.” 그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모두 달아났다. 57.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대사제 가야파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58.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사제의 관저에까지 가서 일의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 가 경비원들 틈에 끼어 앉아 있었다. 59. 대사제들과 온 의회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60. 많은 사람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나타나서 61. "이 사람이 하느님의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하고 증언하였다. 62.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께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가?"하고 물었다. 63.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내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대답하여라. 그대가 과연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하고 물었다. 64.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것은 너의 말이다"하시고는 "잘 들어 두어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 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의 구름 위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65. 이 말을 듣고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느님을 모독했으니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방금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소? 66.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하고 묻자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하고 아우성쳤다. 67.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자들은 뺨을 때리면서 68.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추어 보아라."하며 조롱하였다. 69. 그 동안 베드로는 바깥뜰에 앉아 있었는데 여종 하나가 그에게 다가 와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군요."하고 말하였다. 70.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린지 나는 모르겠소."하고 부인하였다. 71.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의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오."하고 말하였다. 72.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73. 조금 뒤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 오며 "틀림없이 당신도 그들과 한 패요. 당신의 말씨만 들어도 알 수 있소"하고 말하였다. 74.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하고 잡아떼었다. 바로 그 때에 닭이 울었다. 75.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27장: 1. 이른 아침에 모든 대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짜고
2. 그를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 3. 그 때에 배반자 유다는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자기가 저지른 일을 뉘우쳤다. 그래서 은전
서른 닢을 대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며 4.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하고 말하였다. 5. 유다는 그 은전을 성소에 내동댕이치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6. 대사제들은 그 은전을 주워 들고 "이것은 피
값이니 헌금 궤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하며 7.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8.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이라고 불린다. 9.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정한
한 사람의 몸값, 은전 서른 닢을 받아서 10.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옹기장이의
밭 값을 치렀다"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네가 유다인의 왕인가?"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네 말이다"하고 대답하셨
다. 12. 그러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하고 다시 물었지만 14.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5. 명절이 되면 총독은 군중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관례가 있었다. 16. 마침 그 때에 (예수)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17. 빌라도는 모여든 군중에게 "누구를 놓아 주면 좋겠느냐?
바라빠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하고 물었다. 18. 빌라도는 예수가 군중에
게 끌려 온 것이 그들의 시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다. 19.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전갈을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왔습니다."하고 당부하였
다. 20. 그 동안 대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선동하여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죽여 달라고 요구하게 하였다. 21. 총독이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놓아 달라는
말이냐?"하고 묻자 그들이 "바라빠요"하고 소리 질렀다. 22.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자 모두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소리 질렀
다. 23. 빌라도가 "도대체 그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냐?"하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더

악을 써가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하고 외쳤다. 24. 빌라도는 그 이상 더 말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기세가 보였으므로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너희가 맡아서 처리하여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하고 말하였다. 25. 군중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하고 소리쳤다. 26.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내어 주었다. 27.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전 부대원을 불러 모아 예수를 에워쌌다. 28.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힌 뒤 29. 가시로 왕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떠들며 조롱하였다. 30.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31.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그 겉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32.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 그리고 골고타 곧 해골산이라는 데에 이르렀을 때에 34. 그들은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라고 주었으나 예수께서는 맛만 보시고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35.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사위를 던져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갖고 36. 거기 앉아 예수를 지키고 있었다. 37. 그리고 예수의 머리 위에 죄목을 적어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 38. 그 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렸다. 39.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40.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다시 짓는다던 자야, 네 목숨이나 건져라. 네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하며 모욕하였다. 41. 같은 모양으로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도 42.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못 살리는구나.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래.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 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고말고. 43. 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또 제가 하느님의 아들입네 했으니 하느님이 원하시면 어디 살려 보시라지.”하며 조롱하였다. 44.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모욕하였다. 45. 낮 열 두 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6. 세 시쯤 되어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하고 부르짖으셨다. 이 말씀은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47.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말하였다. 48.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은 곧 달려 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 끝에 꽂아 예수께 목을 축이라고 주었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시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하고 말하였다. 50. 예수께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51. 바로 그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52.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옛 성인들이 다시 살아났다. 53.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54.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고나!"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55. 또 거기에는 멀리서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께 시중들며 따라 온 여자들이었다. 56. 그 중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베대오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57.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태아 사람인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쾌히 승낙하여 내어 주라고 명령했다. 59.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고운 베로 싸서 59.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아 놓고 갔다. 61. 그 때에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62. 그 날은 명절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 다음 날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몰려 와서 63. 이렇게 말하였다. "각하, 그 거짓말장이가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64. 그러니 사흘이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서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65. 빌라도는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 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하고 말하였다. 66.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하였다.

교리 요점

* 십자가란 악을 정복한 주님의 승리를 상징한다.
* 우리는 주님이 맞서서 극복하지 못한 시험은 직면하지 않는다.
* 성만찬은 기독교회를 위해 과월절 대신 거행된다.

해설

종려 주일에 관한 공부는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지상 생활 마지막 주간 첫 날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으며 그들의 왕으로서 환영 받았는가를 알게 해주었다. 마지막 주간의 뒷부분에서 의아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쉽사리 주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 놓고 하룻밤 사이에 마음이 변해 그것을 취소하는 경험을 회상해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본문에는 교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을 뜨끔하게 하는 세 가지 사건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유다의 행동과 그 행동 후에 자포자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행위 중 가장 나쁜 행위의 본보기로서 유다를 언급하기를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가 우리 안에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자신의 일시적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행할 때 바로 우리 안의 "유다"가 행동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은 주님이 붙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는 상황이다. (마태복음 26:56)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이야기다. 우리가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면, 말씀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또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묵상된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 가야 한다. 시편 1편 1-2절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생활 전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이를 더 확연히 보여 준다. 주님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심정과 장차 일어나게 될 일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꾸준히 앞으로만 전진하시며 각 시험을 극복하셨다. 즉, 주님은 그분 스스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실 때까지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시키신 것이다.

새교회인들을 위한 십자가의 의미는 주님의 승리(victory), 즉 신성한 사랑이 인간 본성 속에 축적된 모든 악을 이긴 마지막 승리(triumph)이다. 이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발생할 수 없음을 표현해 주기도 한다. 주님은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겁내지 말라. 그들이 영혼 까지도 죽일 수는 없으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분을 죽이려는 자들과 전 시대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 모든 최악의 것을 그분에게 허용하신 것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400-14항)」: "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실 때와 천사들이 내려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려 내릴 때도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지진들은 교회의 상태가 그 순간 변화되었음을 암시하기 위해 발생된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게쎄마니에서의 기도 중에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마지막 시험에 의해 지옥을 정복하셨고, 지옥에 있는 모든 것과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 놓으셨다. 이와 더불어 주님은 그분의 인성을 신성화 하셨다. 즉, 인성을 신성하게 만드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지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진' 사실이 그분의 인성이 신성으로 변화되셨음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1) 종려주일에 무엇이 발생했는가?
2) 주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는가?

3) 주님은 마지막 과월절 음식을 드신 후에 어떤 새로운 기념일을 설립하셨는가?
4) 주님은 열 두 제자 중 하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5) 제자들 각자는 뭐라고 물었는가?
6) 어떤 제자가 주님을 배반했는가?
7) 유다는 주님을 어떻게 배반했는가?
8) 주님이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9)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는가?
10)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11) 그는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12) 베드로에게 자신의 예수에 대한 부인에 관해 주님이 말씀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
13) 주님은 누구 앞에서 처음으로 심문 받았는가?
14) 누가 주님의 사형선고를 내렸는가?
15) 빌라도는 군중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었는가?
16) 주님은 어떻게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가?
17) 그분의 시신은 어떻게 묻혔는가?
18)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어떤 조처를 취했는가?
19) 성찬 때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20)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의 답

1)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2) 과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3) 성찬식(Holy Supper) 4) "나를 배반하리라" 5) "그게 저입니까?" 6) "가리옷 사람 유다(Juda Iscariot)" 7) 키스함으로 8) 도망갔다 9) 주님을 부인함 10) 아님 11) 세 번이나 부인했다 12) 닭의 울음 13) 가야파라는 대제사장 14) 빌라도, 로마제국 총독, 15) 예수를 석방할 것이냐? 혹은 바라빠냐? 16) 십자가에 달리심 17)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에 모셨다 18) 무덤에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두었다 19) 주님의 신성한

37
부활하신 주님

머리말

종려주일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까지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하며 시작한다. 종려주일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그분은 이틀 동안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성밖의 베다니아로 가셔서 그분의 친구들인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자로의 집에서 머무셨다. 목요일 저녁 주님은 성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과월절을 기념하셨다. 이때에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이는 과월절 대신 기독교계에서 거행되는 기념일이다. 주님은 만찬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 게쎄마니 동산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이 그분을 붙잡았다. 그분은 대제사장 가야파, 헤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심문받으셨다. 그들은 그들이 사용한 거짓 증거 외에는 어떤 결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고, 금요일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다.

성서: 마태복음 28장

28장: 1.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 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3.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 4.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쳤다. 5. 그 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6.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7.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오'하고 알려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8. 여자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9.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 오셔서 "평안하냐?"하고 말씀 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하였다. 10.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셨다. 11. 여자들이 떠나간 뒤에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안으로 들어 가 그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대사제들에게 낱낱이 보고하였다. 12. 대사제들은 원로들과 만나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집어 주며 13. "너희가 잠든 사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 갔다고 말하여라. 14.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하고 말하였다. 15.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유다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16. 열 한 제자는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갈릴래아에 있는 산으로 갔다. 17.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뵙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시대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교리 요점

* 부활에 대한 불신앙은 고집적인 것이지 논리적이지는 못하다.
* 부활절은 미래의 삶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움을 초월한 사랑의 힘과 거짓을 극복하는 진리가 모든 삶 안에 있어야 함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 주님의 부활은 비록 우리가 육체적 눈으로 그분을 뵙지 못한다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가르쳐준다.

해설

부활절은 교회 달력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중요시하는 날이다.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지만, 부활절은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만 했던 일의 완성과 신성한 인성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광스런 확증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활절 이야기에 어느 정도 친숙하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죽은 후 되돌아 와서 사후의 삶에 대해 말해주는 이가 없지 않는가?"라고 묻는다고 가정해 보자. 여러분은 생각 끝에 "주님이 되돌아 오셔서 우리에게 말했잖아."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야. 그 기록들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라고 되물을지도 모른다. 우리 역시 이러한 질문의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가장 가까운 제자를 포함한 그의 모든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그들은 예수가 예견해 온 것들을 그분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착오를 범했다. 그분의 제자 중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수군대는 소리에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과거의 직업으로 되돌아갔다.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기독교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를 바꾸었다. 부활의 믿음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게 한다. 그 이유는 그 믿음에 포함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과 하늘 아버지가 스스로 인간에게 밝히신 것 등 그분이 천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활은 하느님 자신이 복음서와 구약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자신에 관해서 말씀 안에서 가르쳐 말씀하고 계심을 믿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며 공부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패턴에 따라 우리 삶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특전이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죽음이 우리의 진짜 삶으로 가는 입구이며 이 세상의 삶은 단지 시작에 불과해 영원한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임을 인식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갈릴래아 산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는 제자들과 같이 된다. 생각하는 우리의 평면은 세상적이며 이기적 생각뿐인 평면에서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더 순수한 공기를 호흡하게 되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천국의 태양 아래에서 진정한 위치와 관계를 가지고 펼쳐 나가게 된다. 우리의 고난과 시련은 과거 부활 신앙이 없었던 생각 속에서는 마치 우리 인생의 전체인 것처럼 크게 확대되어 보였지만, 부활신앙이 있는 생각 속에서 그것은 아주 조그만 사건으로 그것을 넘어있는 사랑스러운 장면만이 늘 보인다.

주님이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그분이 갈릴래아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내가 시대의 종말(consummation of the age)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상의 어느 친구보다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그것을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기며 극복하여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자들을 도와 주워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자.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2405항)」: 새벽(dawn)에 대한 상응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의미로서 '아침'은 주님, 그분의 탄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왕국에의 접근을 뜻한다. 이 외에 새로운 교회의 일어남도 의미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 즉 개별적인 측면과 일반적인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 측면으로는 지구상에 어떤 교회가 새로이 일어날 때이고, 개별적인 측면으로는 한 인간이 거듭날 때이다.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왕국이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 그가 하나의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아주 개별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랑과 믿음에서 오는 선이 사람 속에서 일하고 있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 작은 선함 속에 주님의 탄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셋째 날 아침에 있는 주님의 부활은 각 개인의 일상생활, 더 세분하면 매 순간마다의 거듭나는 마음 안에서 다시 그분이 일어나신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측면과 개별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천국의 신비 (Arcana Coelestia 제 10591-10595항): "인간이 창조된 이후 각 인간은 내적 측면에서는 죽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분과 결합되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내적(Internal)인 것은 태어나는 모든 이들 안에 있다. 외적(External)인 것은 믿음과 사랑에 속하는 것들을 결과 안에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있는 것이다. 이 수단으로 해서 믿음과 사랑을 내적인 것의 소유물이 되게 해준다. 내적인 것은 소위 '혼(soul)'이라 불리며, 외적인 것은 '몸(body)'이라고 불린다. 인간이 세상에서 지니고 다니는 외적인 것은 세상에서의 유용(uses)을 위해 편의를 제공(accommodate)한다. (일반적인) 외적인 것은 인간이 죽을 때 한쪽 옆에 놓이게 되지만, 유용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 온 (특별해진) 외적인 것은 저 세상에서도 죽지 않는다. 내적인 것과 후자의 외적인 것을 합쳐서 '영(spirit)'이라고 부른다. 인간이 세상에서 선했다면 선한 영(good spirit) 또는 천사가 된다. 반면, 인간이 악했다면 악한 영(evil spirit)이 된다. 인간의 영은 저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 보여진 인간 형체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그것은 이세상에서와 같이 생각하고, 뜻하며 행동한다. 한마디로 지상의 삶에서 그를 담고 있던 육체 그 자체를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의 영적 인간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의 육체는 그가 죽을 때 뒤에 남겨지고 되고, 그는 결코 그것을 되찾지 못한다. 이렇게 인간의 삶은 연속된다는 것이 부활에 의해 의미되고 있다."

질문 정리

1) 본문에서 언급된 날은 어떤 날인가?

2) 우리는 왜 부활주일을 지키는가?
3) 사람들은 왜 주님을 왕으로 환영한지 며칠도 채 안 되어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는가?
4) 주님은 왜 목요일 저녁에 다시 성으로 들어 가셨는가?
5) 주님은 어떤 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6) 우리는 성주간 중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요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7)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후 그분의 시신은 어떻게 되었는가?
8) 누가 부활주일 아침 무덤에 먼저 왔는가?
9)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10) 천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11) 천사는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서 만날 거라고 말해 주었는가?
12) 여인들은 달려갔을 때 누구를 만났는가?
13)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이 불신임되도록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
14)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15)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래아에서 만났을 때, 그분에 대해 하신 첫 말씀은 무엇인가?
16)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17)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격려는 무엇인가?
18) 주님은 왜 갈릴래아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고 하셨는가?
19) 여인들이 왜 부활에 대해 제일 먼저 배웠는가?

질문의 답

1) 부활주일 2)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3) 그들이 시기심 많은 종교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4) 과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5) 금요일 6) Good Friday 7) 새 무덤에 놓여졌다 8) 여인들 9) 열려진 무덤 10) 그분은 다시 사셨다 11) 갈릴래아 12) 예수 13)경비병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트리게 했다 14) 죽은 후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 15)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16)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17)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18) 갈릴래아 = 일상생활 (outer, everyday life) 산 = 생각의 높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 다시말해 생각의 높은 상태인 영적 관점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주님은 우리와 만나실 수 있기 때문. 19) 진리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외적 증거들이 의심을 조장하더라도 존속되기 때문이다.

38
요한의 환상

머리말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의 연결을 언급한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 대략 40여 년이 지난 AD.70년 경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마지막으로 「디도(Titus)」하의 로마 군인에 의해 파괴되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은 산산이 흩어져 소아시아와 그 넘어 까지 흩어졌다.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소아시아에서 발달되었다. 초심자들은 사도 요한과 세례자 요한을 혼동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시록은 그리스어로 묵시록

(Apocalyse)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베일이 벗겨짐(unveiling) 혹은 밝혀짐(revealation)을 의미한다.

성서: 요한 계시록 1장

1장: 1.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느님께서 곧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당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려 주셨습니다. 2.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것, 곧 내가 본 모든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시각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4.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과 그분의 옥좌 앞에 있는 일곱 영신께서, 5. 그리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시며,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 우리로 하여금 한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또 당신의 하느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서 영광과 권세를 영원무궁토록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7. 그분은 구름을 사용하여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땅 위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8. 지금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9. 여러분의 형제이며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환난을 같이 겪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같이 견디어 온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파트모스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10. 나는 주님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 뒤에서 울려 오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11. 그 음성은 나에게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 에페소, 스미르나, 베르가모, 티아디라, 사르디스,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이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어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2.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 섰습니다. 돌아 서서

보았더니 황금등경이 일곱 개 있었고 13. 그 일곱 등경 한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4.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또는 눈같이 희었으며 눈은 불꽃같았고 15. 발은 풀무불에 단 놋쇠 같았으며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습니다. 16. 오른손에는 일곱별을 쥐고 계셨으며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17. 나는 그분을 뵙자 마치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나에게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18. 살아 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었지만 이렇게 살아 있고 영원무궁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내 손에 쥐고 있다. 19. 그러므로 너는 네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20. 네가 보는 내 오른손의 일곱별과 일곱 황금등경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고 일곱 등경은 곧 일곱 교회이다.

교리 요점

* 부활하시고 신성화 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 본문 1장에 있는 환상은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 주님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다.
* 계시록은 새 교회의 "헌장(charter)"이기도 하다.

해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회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책이 되어왔다. 사실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비웃는 사람들까지도 이 책의 힘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책은 누군가가 가공했다거나 가공할 수 있는 것처럼 읽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예언으로서 인식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역사적인 세상의 큰 사건과 이 책의 놀랄만한 예언들과 대비시켜 연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책의 첫 절에서 요한은 "곧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고 하고, 제 19절에서는 "네가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라고 말한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었다. 그는 영적 눈이 열려 기독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심정과 지성을 볼 수 있었고, 그들은 신성한 사랑과 지혜의 빛이 비취는 자리에 나타났다. 그는 상징적인 심판의 과정에 대한 경이로운 광경을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본 것이다. 그는 맨 처음 주님을 보았다. 그분은 그가 세상에서 따라 다녔던 스승이요, 오래 전 변모하셨던 분이셨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무나도 위대해서 요한은 그분 발아래 죽은 자 같이 쓰러져 있었다. 바로 그 때 주님은 그에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라고 명백히 말씀하셨다. 부활하시어 신성화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다. 그 외 다른 하느님은 결코 없다.

많은 화가들은 그리스도를 그렸다. 하지만 그 그림들은 그분이 이렇게 생기셨지 않았을까하는 그들의 착상에 불과하다. 그 그림들은 그분이 지상에 계셨을 때 혹은 그 뒤 그분을 보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려진 그림이라 하더라도 닮은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주님이 수세기 전 팔레스타인 거리를 거닐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그들이 머물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섭리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 계신 주님, 즉 현존하시는 주님에 관해 생각해야 한다. 마태복음서에서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시대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하신 마지막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납득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다. 간혹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갖는다. 주님은 이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주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림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떠올려야할 주님, 곧 우리 사이를 걸으시며 복음서에 있는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신성화 하셔서 오른손에는 일곱별을 쥐고 입에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오고 대낮의 태양처럼 빛나는 주님이심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sword)은 악과 거짓된 것은 파괴하고 순수하며 선한 모든 것을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그분의 진리이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설명 (Apocalypse Explained, 제 1장에 대한 소개)」: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이라 불리는 예언의 책을 상술해 왔지만, 어느 누구도 말씀의 내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 책 안의 개별적인 것들을 세상 역사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상태들에 적용하면서 역사적 사항들 속의 시민적 사건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꿰맞추었다. 따라서 그들의 해설은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이어서 진리로서 단언할만한 빛 안에서 결코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의 해설을 참조해서 계시록을 읽을 경우 계시록이라는 성서는 한 개인의 사색적 의견의 수준에 머물러 결국 한쪽으로 밀쳐지고 만다. 세상에 존재한 계시록에 대한 해설들이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저자들이 말씀의 내적 또는 영적 의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계시록 풀이 (제 1장에 대한 서문적인 목차만 발췌했음)」: "제 12절에서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라고 함은 생활의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지각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주님에게 돌아설 때 있어지는 상태로의 전환(inversion)을 의미한다. '돌아서서 보았더니 황금 등경이 일곱 개 있었고'란 말씀의 안에서 밖으로 주님으로부터 계발되는 새교회(the New Church)를 의미한다. 제 13절에서 '그 일곱 등경 한 가운데에 사람같이 생긴 분이 서 계셨습니다.'라고 함은 말씀의 측면에서 주님과 그분으로부터 교회가 있어짐을 의미한다.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라는 것은 신성이 진행됨, 즉 신성한 진리를 의미한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라는 것은 처음 것들과 최말단 것들 안에 있는 신성한 지혜로부터의 신성한 사랑을 의미한다. '눈은 불꽃같았으며'이란 신성한 선의 자연성을 의미한다. '음성은 큰 물소리 같았다'라고 함은 신성한 진리의 자연성을 의미한다. 제 16절의 '오른 손에는 일곱 별을 쥐고 계셨으며'이란 그분으로부터 말씀 안에 있게 된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지식을 의미한다. '입에서는 날카로운 쌍날칼이 나왔고'란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교리를 통하여 주님이 거짓을 쫓아 버리심을 의미한다. '얼굴은 대낮의 태양처럼 빛났다'라고 함은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지혜를 의미하며, 이는 그분 자신으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의미한다."

질문 정리

1) 복음서에는 어떤 두 요한이 있는가?
2) 어느 요한을 통하여 복음서가 기록되었는가?
3) 주님이 죽으신 뒤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가?
4) 초대 기독교회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5) 복음서 외에 어느 책이 요한에 의해 쓰였는가?
6) 요한에게 계시가 주어질 당시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7) 요한은 처음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8) 그는 돌아섰을 때 맨 처음 무엇을 보았는가?
9) 일곱 황금등경 한 가운데에는 누가 서 있었는가?
10)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1) 그분은 오른 손에 무엇을 쥐고 계셨는가?
12)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3) 그분은 일곱 등경과 일곱 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4) 그분은 요한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15) 이 환상에는 왜 여러 차례 빛에 대한 언급이 있는가?
16) 금띠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17) 이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질문의 답

1) 세례자 요한, 사도 요한 2) 사도 요한 3) 모두 파괴 되어졌다
4) 소아시아 5) 요한 1,2,3서; 계시록 6) 파트모스섬 7)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8) 일곱 황금등경 9) 부활하신 주님 10)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11) 일곱 별 12)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13) 교회들과 천사들
14) 환상을 받아써라 15) 신성한 진리가 권능이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임

16) 모든 것을 묶어주는 신성한 사랑 17)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그려 보아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39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머리말

본문에서는 어린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제시되는 공통점이 언급된다. 각 메시지에 있는 공통점을 간단히 요약해 보자.

(1) 주님에 대한 환상 중 일부가 거론된다.

(2) 선을 행하도록 교회에 명령한다.

(3) 각 교회의 특별한 악들을 견책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악들을 보여준다.

(4) 각 교회가 그들의 악을 멀리할 때 따르는 보상을 제시한다.
(5) "들을 귀 있는 자는..."라고 끝맺으며 각 교회가 순종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성서: 요한계시록 2, 3장

2장: 1. 에페소 교회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시고 일곱 황금등경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2.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었으며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를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허위를 가려 낸 일도 잘 알고 있다. 3.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어 냈으며 낙심하는 일이 없었다. 4.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버린 것이다. 5.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여 뉘우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등경을 그 자리에서 치워 버리겠다. 6. 그러나 네가 잘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니골라오파의 소행을 미워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8. 또 스미르나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죽었었지만 살아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9. '나는 네가 겪은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하다. 네가 유다인으로 자칭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이다. 10. 네가 장차 당할 고통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 하고 있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월계관을 너에게 씌워 주겠다. 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두 번째 죽음의 화를 입지 않을 것이다.' 12. 베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13.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 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건히 믿고 있다. 또 나의 진실한 증인 안디바스가 사탄이
살고 있는 그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14.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중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죄짓게 하였고 우상에
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음란한 짓을 하게 하였던 자다. 15. 또 너희 중에도
니골라오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16. 그러므로 뉘우쳐라. 만일 뉘우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한다. 승리하는 사람에게
는 감추어 둔 만나를 주겠고 또 흰돌도 주겠다. 그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사람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8. 티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불꽃 같은 눈과 놋쇠 같은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느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19.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20.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
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며 내 종들을 잘못 가르쳐서
미혹하게 했고 음란한 짓을 하게 했으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게 하였다. 21.
나는 그 여자에게 뉘우칠 시간을 주었지만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뉘우치려고
하지 않는다.
22. 이제 나는 그 여자를 고통의 침상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 여자와 간음하는 자들도
뉘우치지 않고 그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버리겠다.
23. 그리고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여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 주겠다. 24. 그러나 티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의 가르침을
받아 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비밀을 배우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으니 25.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어라. 26. 승리하는 자, 곧 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에게는, 여러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27. 그는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28.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샛별을 주겠다. 29.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3장: 1.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하느님의 일곱 영신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가 살아 있다는 말이 있지만 실상 너는 죽었다. 2. 그러므로 깨어 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나는 네가 하는 일이 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 그러므로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그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나타날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5.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6.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7.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네 힘은 비록 미약하지만 너는 내 말을 잘 지켰으며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9.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 자칭 유다인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나와서 네 발 앞에 엎드려 너를 경배하게 하겠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10. 참고 견디라는 내 명령을 너는 잘 지켰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앞으로 온 세계에 환난이 닥쳐 올 때에 나는 너를 보호해 주겠다. 11. 내가 곧 갈 터이니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 아무에게도 네 월계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라. 12. 나는 승리하는 자를 내 하느님의 성전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다시는 그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내 하느님의 이름과 내 하느님의 도성의 이름, 곧 하늘에서 내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로운 이름을 그 이기는 자 위에 새기겠다. 13.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14.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며 진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느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15.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16.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17.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하며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18.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잘못을 뉘우쳐라. 20.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21. 승리하는 자는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옥좌에 앉은 것같이 나와 함께 내 옥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22.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교리 요점

* "선행과 믿음 안에" 있는 정도만큼 삶 속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다.
* 주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교회는 그 자체로는 하나뿐이나 인간이 그것을 받는 양상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있게 된다.
* 주님은 언제나 문을 두드리며 서계신다. 문을 열고 닫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해설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일곱 황금등경은 일곱 교회이며 그분의 오른 손에

쥐고 있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라고 말씀하셨음을 배웠다. 천사란 단어는 전달자라는 뜻이다. 주님은 각 교회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요한에게 주신다.

언급된 일곱 교회는 실제 교회였다. 그 교회들은 초기 기독교로서 소아시아에 설립되었다. 교회들은 A.D. 70년경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남아있는 사도들과 추종자들이 흩어진 뒤 특별하게 발달되었다. 주님이 요한을 통해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는 교회속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과 같이 견해를 달리하여 자칫 뿌루퉁한 것, 세상적인 가치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 또는 영적인 것들에 게으른 것을 뚜렷하게 보여 준다. 우리는 네 복음서에서 열두 사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과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몸조심에 급급했음을 보았다. 부활이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주어 그들 중 일부가 순교 당하는 고난을 감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갑자기 완전해지거나 반듯해진 것은 아니다. 기독교회는 시초부터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주님에게서 보다는 인간에게서 찾았고 복음서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편지(서간문)에 의존했으며, 주님의 부활 후 약 삼백여 년이 지난 때에는 니카야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결정에 교회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4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참고해야 한다.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것 이상을 주고 있다. 일곱 교회란 사람들의 일곱 형태를 보여준다. 우리들은 자신만의 특질, 능력, 약함 그리고 과오를 지니고 있다. 주님은 이러한 모든 면을 보시고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서 성장하는 선을 단단히 지속시켜라. 그러나 네 속의 악을 인식하며 회개하여 그 길을 바꾸어 천국에 준비된 네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신다. 우리에게 도달 가능한 특별한 천국적 인격이 있음과 같이, 각 교회들에게도 신실함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약속이 주어진다. 우리는 라오디게이아 교회의 경우 그들의 "미적지근함" 때문에 가장 신랄한 질책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결점을 극복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아주 클 것임을 약속하신 것을 주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들의 결점이 극복되는 것이 아주 힘들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미적지근함"은 대부분의 우리가 지니는 죄가 아닐까? 우리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핑계를 찾으려하지 말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할까를 궁리해야 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영혼의 문 앞에

서 계시며, 우리는 종종 그분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일과로 인해 문을 열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곤 한다. 예를 들어, 오늘은 너무 바쁘다보니 피곤해서 성경을 못 읽고 어제는 기분 나쁜 일 때문에 만사가 귀찮아 성경을 읽기는커녕 생각도 못했다는 변명들 혹은 이번 주일은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니 교회에 못 가고 지난 주일은 가게 수리 때문에 못 갔다는 등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핑계들은 얼마든지 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기 고집대로 길을 간다면 결국에는 불행을 만날 것이며 그분의 길을 선택한다면 영원한 기쁨(joy)에로 인도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다. 주님은 본문의 일곱 교회에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신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밝힘 (Apocalypse Revealed, 제 202-204항,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관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씀은 어떤 때는 말씀의 신성과 거룩함을 부정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에 대해 긍정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들은 하느님에 관해 부정하거나 긍정하기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교회 속의 모든 것도 이와 동일하게 대한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때는 지옥에 있는 이들과 어울리고 어떤 때는 천국에 있는 이들과 어울린다. 마치 그들은 양쪽을 위아래로 날아다니면서 이쪽저쪽으로 얼굴을 돌려 댄다. 그들은 하느님의 실재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고도 물러서기도 한다. 그들은 초기의 확증이 되돌아 올 때는 인정하지만 되돌아오지 않을 때는 부정해 버린다. 그들이 뒤로 물러선 이유는 그들 자신과 세상에 몰두하여 저명해지기를 갈망함에 따라 자아욕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옥이 그들 위에서 넘실거리게 된다. '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말씀은 그들이 말씀과 교회 속의 거룩한 것을 심정으로부터 부정하거나 인정함이 그들을 위해 차라리 더 나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리와 거짓 혹은 선을 악과 섞어 버려 거룩한

것을 모독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진리와 거짓 혹은 선과 악이 분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천국 또는 지옥의 어느 곳에 있도록 준비될 수 없어서 합리적 삶은 파괴되고 오로지 삶의 최종적인 것 즉 고기 덩어리만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최종적인 것들에서 삶의 내용물을 분리시키고 나면 망상(phantasy)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1) 누가 계시록에 기술된 환상을 보았는가?
2) 요한은 어디서 이 환상을 보았는가?
3) 그는 환상의 처음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4) 요한은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5) 요한은 주님 주위에 있는 무엇을 보았는가?
6) 주님은 일곱 등경이 무엇이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는가?
7) 일곱 교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8) 본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9) 이 메시지들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10) 그들은 어떻게 달랐는가?
11) 어느 교회가 가장 신실하다고 기술되는가?
12)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에서 문은 어떻게 있다고 했는가?
13)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무엇이 나쁘다고 했는가?
14) 이 교회에 대해서 문은 어떠하다고 말해졌는가?
15) 각 메시지는 어떤 말로 끝맺는가?
16)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 본문 2장과 3장은 우리에게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가?
18) 왜 라오디게이아의 미적지근함이 심하게 비난받았는가?

질문의 답

1) 사도 요한　2) 파트모스 섬　3) 부활하신 주님　4) 제 1장 23-26절을 읽어 보자.
5) 일곱 등경　6) 교회들　7) 소아시아　8)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9) 선을 칭찬하고 결점들이 지적되며 약속이 뒤 따른다
10) 각기 다른 결점과 보상이 있음　11) 필라델피아 교회　12) 열려있다　13) 미적지근한 것　14) 닫혀있다　15) "들을 귀가 있는 자는..."
16) 들었으면 순종하라　17) 문을 닫는 것 혹은 여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다.
18) 극복하는데 가장 힘든 결점이므로

40
거룩한 성

머리말

요한의 환상이 마무리되는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하늘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에서 붙여졌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과 기쁨을 더해 줄 것이다. 환상의 요점을 염두 하고, 말씀의 시작에서 말씀을 끝맺고 있는 본문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성서공부 제 1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자아의 인도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있게 되는 우리 안의

선의 발달 혹은 악의 발달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성 서 본 문: 요한계시록 21, 22장

21장: 1. 그 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2.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 그 때 나는 옥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4.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5. 그 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 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6.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7.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8.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장이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장이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9. 마지막 일곱 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손에 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 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싸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 두 대문이 있었고 그 열 두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14.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5.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 이었습니다. 17.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백 사십 사 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18.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9.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읍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아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취옥으로, 20. 다섯째는 홍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람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한째는 청옥으로,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1. 또 열 두 대문은 열 두 진주로 되어 있었고 각각의 대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 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24.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25.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26.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 올 것입니다. 27.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 가지 못하고 흉측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뿐입니다.

22장: 1. 그 천사는 또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로부터 나와 2. 그 도성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약 입니다. 3. 이제 그 도성에는 저주받은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어린 양의 옥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4. 그 얼굴을 뵈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는 하느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5. 이제 그 도성에는 밤이 없어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6. 그 천사가 또 나에게 "이 말씀은 확실하고 참된 말씀이다.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곧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다."하고 말했습니다. 7. 그러자 주님께서 "자, 내가 곧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나서 나에게 이것들을 보여 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습니다. 9. 그러자 그는 "이러지 말아라. 나도 너나 네 형제인 예언자들이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종에 지나지 않는다. 경배는 하느님께 드려라."하고 말했습니다. 10. 그는 이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때가 가까 왔으니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12.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13. 나는 알파요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4.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15. 개들과 마술장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자들은 다 문 밖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 16.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에서 돋은 그의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17.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소서!"하고 외칩니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마시십시오. 18.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말해 둡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벌하실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재난도 덧붙여서 주실 것입니다. 19.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 대한 그의 몫을 하느님께서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20.

이 모든 계시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소서, 주 예수여! 21. 주 예수의 품위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교리 요점

* 거룩한 성에 관한 기사는 끝없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는 우리 삶의 진정한 형체에 대한 환상이다.
* 성으로 가는 우리의 “문”이란 말씀을 규칙적으로 공부하며 공부한 말씀 속의 진리를 삶에 응용하려는 항구적인 노력을 말한다.

해설

많은 교회들, 특히 성서의 서술들을 글자대로 취하는 교회들은 세상의 끝 날이 언젠가 있을 것이며 그 끝 날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씀의 많은 부분이 실제 역사이지만, 새 교회의 경우는 말씀의 모두를 비유로 간주한다. 우리는 심판들이 이미 여러 번 있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계승되어 내려온 다양한 교회들 각각에 심판이 있었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각자 죽음을 맞아 영계로 들어갈 때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즉, 각자의 내적 생명이 드러나고 (revealed)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형성해 놓은 자신의 인격에 따라 지옥 또는 천국의 거처를 발견하게 됨을 믿는다는 것이다.

제 20장 12절에서는 “나는 또 죽은 자들이 인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 옥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된다. 많은 책이란 날마다 써 내려간 우리 삶의 기록이며, 생명의 책이란 하느님의 말씀이다. 천국적 인격이란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모양을 만든 삶이다.

계시록에 있는 요한의 환상은 주님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하여 각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약속이 이어지는 심판의 전 과정에 대한 상징적 그림이다. 요한은 주님에 대한 환상을 본 후 보좌를 보았고, 그 위에 앉아 계시며 오른 손에 생명책을 들고

계신 그분을 보았다. 이 책은 처음에는 일곱 봉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이는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있는 우리의 상태이다. 즉, 말씀을 읽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뜻한다. 주님은 그 다음 환상에서 하나씩 봉인을 떼시고, 각 봉인들이 떼어질 때마다 기이하고 격렬한 일들이 발생된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더 깊게 알게 될수록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더 많은 악들을 실감하게 되고 주님의 도움을 얻어 악과 싸워 극복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상 전체를 통틀어 선한 것도 밝혀지는데 그것은 주님에 의해 보호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속에서 발견되는 선은 어떤 것이든 보존하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는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게 하는 우리 삶의 진정한 틀에 대한 환상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고 그것의 깊은 진리를 인정하며 그 진리에 따라 살게 된다. 성의 성벽이란 말씀의 글자적인 의미를 뜻하며, 성의 기초란 십계명으로 다져진 선한 생활의 기초를 의미한다. 보석들이란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진리들을 말한다. 진주 성문이란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함을 통해서만 성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내의 황금거리란 우리가 걷는 동안 배우는 것 즉 섬김을 사랑하는 길을 의미한다.

새 교회는 말씀의 글자 속에 들어 있는 의미를 밝혀 주신 것(revealation)에 기초한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교(Church of New Jerusalem)" 이라고 부른다. 거룩한 성으로의 길은 주님에 의해 밝혀졌다. 그 길은 언제나 쉽지 않고, 세상적이며 자아 만족을 주는 길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 보겠다고 선택한다면, 주님과 천사들이 우리들과 함께 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계발시켜 주시며 영감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신다. 22장 14절의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에서 두루마기를 빤다함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참고 문헌 - 스웨덴볼의 저서에서

「요한 계시록 밝힘 (Apocalypse Revealed 제 897 항)」: " '하느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 같이 빛나는 벽옥과 같았다.' 그 교회에서는 말씀이 이해되어질 것임을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영적인 의미는 반투명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새 예루살렘의 교리 안에 있는 이들, 즉 그 교리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말씀이 이해되어짐이 기술된 것이다.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이 빛난다. 그들이 읽는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수단으로 주님으로부터 빛이 발해진다. 그 이유는 주님이 말씀이요, 영적인 의미가 해처럼 그분으로부터 발출되어 천국의 빛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요한 계시록 밝힘 (제 935항)」: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선, 즉 영적인 선을 자기가 행하고 있다고 믿는 이도 그 사람 안에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들이 있지 않으면 그 선은 상당히 미혹되어진 선이다. 진리가 없는 선은 선이 아니다. 설사 선이 없는 진리들이 자신에게 진리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이유는 진리 없는 선은 이해성이 없는 인간의 자발성과 같고, 이 자발성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런 자발성은 예술가가 조각해낸 작품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지적인 것과 함께 하는 자발성은 지적인 것으로 인한 이해성의 상태에 따라 인간이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생명 상태는 의지가 이해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으며, 이해성 역시 의지가 없으면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문 정리

1) 주님의 메시지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2) 라오디게이아 교회는 왜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았는가?
3) 계시록 21장 2절의 성은 무엇이라고 불리는가?
4) 그 도성은 몇 개의 문을 갖고 있는가?
5) 천사들은 어떤 도구로 이 성을 측정했는가?
6) 이 성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7) 그 성의 기초에는 무엇이 보였는가?

8) 이 성의 문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9) 이 성은 누구로 인해 밝혀지고 있는가?
10) 누가 그 성에 들어가는가?
11) 하느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무엇이 보였는가?
12) 그 강가에서는 무엇이 자랐는가?
13) 생명나무와 강에 대해서 어디에서 공부했는가?
14) 요한이 경배를 드리려 하자 천사는 뭐라고 말했는가?
15) 우리는 성서의 마지막 절을 주로 어디서 사용하는가?
16) 거룩한 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17) 우리 교회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질문의 답

1)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지적하며, 경고하고 약속을 주고 있다. 2) 극복해내기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새 예루살렘 4) 열두 문 5) 금 자 (gold reed) 6) 네모 반듯 했다. (foursquare) 7) 보석들 8) 진주 9) 주님 10)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이 11) 생명수의 강 12) 생명나무 13) 에덴의 동산 14) 하느님을 경배하라 15) (예배의 끝) 기도문에서 16) 교리의 진정한 체계는 열린 말씀 안에서만 발견 된다. 17) 그 이름이 함축하는 모든 것을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어 보라는 도전장과 같다.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Matthew 25:21